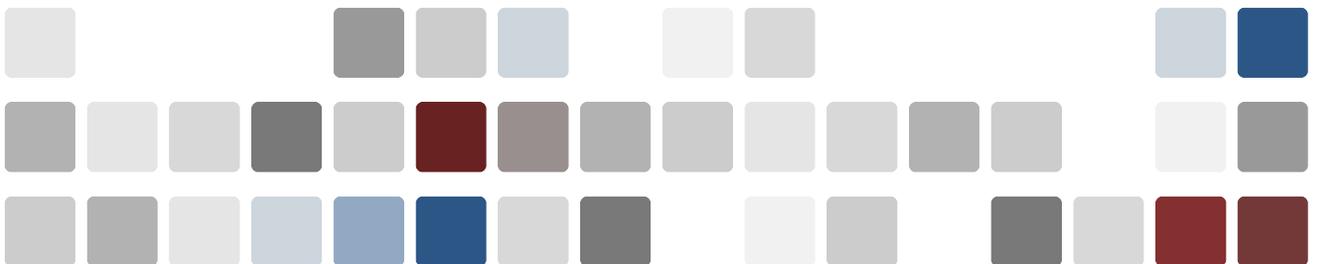




외무조정실
외무총리비서실 귀중

2016년도 ODA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2016. 9.



목 차

제1장. 조사 개요	1
I. 조사 배경 및 목적	3
II. 조사 설계	3
III. 조사 내용	4
IV. 응답자 특성표	5
제2장. 주요 결과 분석 및 시사점	7
I. 주요 조사 결과	9
1. 저개발국 방문 경험	9
2.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인식	10
3. 대외원조 제공 인식	11
4. 정부의 대외원조 제공 지지	12
5. 대외원조 제공 찬성 이유	13
6. 대외원조 제공 반대 이유	14
7. 정부의 대외원조 규모 적정성	15
8. 정부 대외원조의 실질적 효과	16
9. 대외원조 정보를 접해본 경험 유무	17
10. 대외원조 정보를 접한 경로	18
11. 대외원조 정보 제공 매체 선호도	19
12. 가장 관심이 가는 대외원조 정보	20
II. 종합 분석 및 시사점	21
1. 정부 대외원조 제공에 대한 인식	21
2. 대외원조 정책에 대한 의견	22
3. 대외원조에 대한 정보 접근성	23
III. 정책 제언	24
제3장. 조사 결과 분석	31
I. 대외원조에 대한 기초인식	33
1. 외국 방문 경험	33

2. 저개발국 방문 경험	36
3.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인식	39
4. 대외원조 제공 인식	42
5. 저개발국 주민 지원활동 인식	45
6. 저개발국 지원 참여의사	48
7. 저개발국 지원과 관련한 행동 및 의견	51
II. 대외원조의 중요성 및 원조동기 인식	54
1. 저개발국의 심각한 문제	54
2. 국제사회의 저개발국 지원 중요성	57
3. 선진국의 저개발국 원조 이유	60
4. 한국의 수원 경험 인식	63
5. 한국의 수원 경험 기여도	66
6. 한국의 저개발국 원조 이유	69
7. 저개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정책	72
8. 대외원조와 타 정책 충돌 시 대처방법	75
III. 대외원조의 정책 선호도 및 예산규모에 대한 인식	78
1. 정부의 대외원조 제공 찬반	78
1-1. 대외원조 제공 찬성 이유	81
1-2. 대외원조 제공 반대 이유	84
2. 정부의 대외원조 규모 적정성	87
2-1. 대외원조 규모 확대 필요 이유	90
2-2. 대외원조 규모 축소 필요 이유	93
IV. 정부의 대외원조 효과 및 정책 개선 과제	96
1. 정부 대외원조의 실질적 효과	96
1-1. 정부의 대외원조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99
2. 우리나라가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외원조 분야	102
3. 저개발국 지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105
4. 대외원조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	108
V. 대외원조 관련 정보 접근성	111
1. 지속가능개발목표 인지 여부	111
2.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인지 여부	114
3. 정부의 대외원조 관련 정보를 접해본 경험	117
3-1. 정부의 대외원조 관련 정보를 접한 경로	120
3-2. 대외원조 관련 정보의 충분성	123

4. 대외원조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도	126
5. 가장 관심이 가는 대외원조 관련 정보	129
6. 대외원조 정보 제공 매체 선호도	132
7. 대외원조 홍보 형태 선호도	135
8. 대외원조 관련 교육 경험	138
8-1. 대외원조 관련 교육 경로	141
9. 초·중·고생 대상 대외원조 교육의 충분성	144
10. 초·중·고생 대상 대외원조 교육 강화에 대한 의견	147
11. 초·중·고생 대상 대외원조 교육 강화 필요부분	150

제4장. 정책 홍보 사례 153

I. 보건복지부	155
II. 질병관리본부	156
III. 교육부	157
IV. 문화체육관광부	158
V. 관세청	159
VI. 금융위원회	160
VII. 고용노동부	161

부록1. 조사 설문지 163

부록2. 통계표 175

표 목 차

<표 I-1> 외국 방문 경험	34
<표 I-2> 저개발국 방문 경험	37
<표 I-3>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인식	40
<표 I-4> 대외원조 제공 인식	43
<표 I-5> 저개발국 주민 지원활동 인식	46
<표 I-6> 저개발국 지원 참여의사	49
<표 I-7> 저개발국 지원과 관련한 행동 및 의견	52
<표 II-1> 저개발국의 심각한 문제 (복수응답)	55
<표 II-2> 국제사회의 저개발국 지원 중요성	58
<표 II-3> 선진국의 저개발국 원조 이유 (복수응답)	61
<표 II-4> 한국의 수원 경험 인식	64
<표 II-5> 한국의 수원 경험 기여도	67
<표 II-6> 한국의 저개발국 원조 이유 (복수응답)	70
<표 II-7> 저개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정책	73
<표 II-8> 대외원조와 타 정책 충돌 시 대처방법	76
<표 III-1> 정부의 대외원조 제공 찬반	79
<표 III-1-1> 대외원조 제공 찬성 이유	82
<표 III-1-2> 대외원조 제공 반대 이유	85
<표 III-2> 정부의 대외원조 규모 적정성	88
<표 III-2-1> 대외원조 규모 확대 필요 이유	91
<표 III-2-2> 대외원조 규모 축소 필요 이유	94
<표 IV-1> 대외원조의 실질적 효과	97
<표 IV-1-1> 정부의 대외원조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100
<표 IV-2> 우리나라가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외원조 분야 (복수응답)	103
<표 IV-3> 저개발국 지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106
<표 IV-4> 대외원조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 (복수응답)	109
<표 V-1> 지속가능개발목표 인지 여부	112
<표 V-2>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인지 여부	115
<표 V-3> 정부의 대외원조 관련 정보를 접해본 경험	118
<표 V-3-1> 정부의 대외원조 관련 정보를 접한 경로 (복수응답)	121
<표 V-3-2> 대외원조 관련 정보의 충분성	124
<표 V-4> 대외원조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도	127
<표 V-5> 가장 관심이 가는 대외원조 관련 정보 (복수응답)	130
<표 V-6> 대외원조 정보 제공 매체 선호도 (복수응답)	133
<표 V-7> 대외원조 홍보 형태 선호도 (복수응답)	136

<표 V-8> 대외원조 관련 교육 경험	139
<표 V-8-1> 대외원조 관련 교육 경로 (복수응답)	142
<표 V-9> 초·중·고생 대상 대외원조 교육의 충분성	145
<표 V-10> 초·중·고생 대상 대외원조 교육 강화에 대한 의견	148
<표 V-11> 초·중·고생 대상 대외원조 교육 강화 필요부분 (복수응답)	151

그림 목 차

<그림 1> 저개발국 방문 경험	9
<그림 2>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인식	10
<그림 3> 대외원조 제공 인식	11
<그림 4> 정부의 대외원조 제공 지지	12
<그림 5> 대외원조 제공 찬성 이유	13
<그림 6> 대외원조 제공 반대 이유	14
<그림 7> 정부의 대외원조 규모 적정성	15
<그림 8> 정부 대외원조의 실질적 효과	16
<그림 9> 대외원조 정보를 접해본 경험 유무	17
<그림 10> 대외원조 정보를 접한 경로 (복수응답)	18
<그림 11> 대외원조 정보 제공 매체 선호도 (복수응답)	19
<그림 12> 가장 관심이 가는 대외원조 정보 (복수응답)	20
<그림 I-1> 외국 방문 경험	33
<그림 I-2> 저개발국 방문 경험	36
<그림 I-3>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인식	39
<그림 I-4> 대외원조 제공 인식	42
<그림 I-5> 저개발국 주민 지원활동 인식	45
<그림 I-6> 저개발국 지원 참여의사	48
<그림 I-7> 저개발국 지원과 관련한 행동 및 의견	51
<그림 II-1> 저개발국의 심각한 문제 (복수응답)	54
<그림 II-2> 국제사회의 저개발국 지원 중요성	57
<그림 II-3> 선진국의 저개발국 원조 이유 (복수응답)	60
<그림 II-4> 한국의 수원 경험 인식	63
<그림 II-5> 한국의 수원 경험 기여도	66
<그림 II-6> 한국의 저개발국 원조 이유 (복수응답)	69
<그림 II-7> 저개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정책	72
<그림 II-8> 대외원조와 타 정책 충돌 시 대처방법	75
<그림 III-1> 정부의 대외원조 제공 찬반	78
<그림 III-1-1> 대외원조 제공 찬성 이유	81
<그림 III-1-2> 대외원조 제공 반대 이유	84
<그림 III-2> 정부의 대외원조 규모 적정성	87
<그림 III-2-1> 대외원조 규모 확대 필요 이유	90
<그림 III-2-2> 대외원조 규모 축소 필요 이유	93
<그림 IV-1> 대외원조의 실질적 효과	96
<그림 IV-1-1> 정부의 대외원조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99

<그림 IV-2> 우리나라가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외원조 분야 (복수응답)	102
<그림 IV-3> 저개발국 지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105
<그림 IV-4> 대외원조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 (복수응답)	108
<그림 V-1> 지속가능개발목표 인지 여부	111
<그림 V-2>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인지 여부	114
<그림 V-3> 정부의 대외원조 관련 정보를 접해본 경험	117
<그림 V-3-1> 정부의 대외원조 관련 정보를 접한 경로 (복수응답)	120
<그림 V-3-2> 대외원조 관련 정보의 충분성	123
<그림 V-4> 대외원조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도	126
<그림 V-5> 가장 관심이 가는 대외원조 관련 정보 (복수응답)	129
<그림 V-6> 대외원조 정보 제공 매체 선호도 (복수응답)	132
<그림 V-7> 대외원조 홍보 형태 선호도 (복수응답)	135
<그림 V-8> 대외원조 관련 교육 경험	138
<그림 V-8-1> 대외원조 관련 교육 경로 (복수응답)	141
<그림 V-9> 초·중·고생 대상 대외원조 교육의 충분성	144
<그림 V-10> 초·중·고생 대상 대외원조 교육 강화에 대한 의견	147
<그림 V-11> 초·중·고생 대상 대외원조 교육 강화 필요부분 (복수응답)	150

제1장 |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조사 설계
3. 조사 내용
4. 응답자 특성

I. 조사 배경 및 목적

-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지난 해 ODA 규모는 19억 1천만 달러 수준으로 세계 14위를 기록했으며,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통해, 현재 0.14% 수준인 국민총소득 대비 ODA 금액을 2020년까지 0.2% 수준으로 올리기로 결정함
- 수혜 대상이 타 국가 및 외국인인 ODA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ODA에 대한 국민 인식의 지속적 파악이 필요함
- 본 조사를 통해 우리 정부의 ODA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과년도 실시된 인식조사와 연계를 통해 인식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국민의 ODA 이해 증진 및 정책홍보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II. 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대상	• 전국 17개 시/도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추출방법	• 지역, 성, 연령을 고려한 인구비례할당
조사방법	• 개별 방문면접 조사
표본 오차	• $\pm 3.10\%$ (95% 신뢰수준)
조사기간	• 2016. 07. 28 ~ 2016. 08. 23

Ⅲ. 조사 내용

조사 영역	조사 항목
<p>대외원조에 대한 기초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방문 경험 • 저개발국 방문 경험 •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인식 • 대외원조 제공 인식 • 저개발국 주민 지원활동 인식 • 저개발국 지원 참여의사 • 저개발국 지원에 대한 생각
<p>대외원조의 중요성 및 원조동기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개발국의 심각한 문제 • 국제사회의 저개발국 지원에 대한 중요성 • 선진국의 저개발국 원조 이유 • 한국의 수원 경험 인식 • 한국의 수원 발전 기여도 • 한국의 저개발국 원조 이유 • 저개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정책 •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대처방법
<p>대외원조의 정책 선호도 및 예산규모에 대한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대외원조 제공 찬반 • 정부의 대외원조 제공 찬성 및 반대 이유 • 정부의 대외원조 규모 적정성 • 정부의 대외원조 규모 확대 및 축소 필요 이유
<p>정부의 대외원조 효과 및 정책 개선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원조의 실질적 효과 • 정부의 대외원조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 우리나라가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외원조 분야 • 저개발국 지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 대외원조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
<p>대외원조에 관한 정보 접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개발목표 인지 여부 •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인지 여부 • 정부의 대외원조 정보를 접해본 경험 • 정부의 대외원조 정보를 접한 경로 • 대외원조 관련 정보의 충분성 • 대외원조 정보에 대한 관심 정도 • 대외원조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정보 • 선호하는 대외원조 정보 제공 매체 • 선호하는 대외원조 홍보 형태 • 선호하는 대외원조 홍보 형태 • 대외원조 관련 교육 경험 • 대외원조 관련 교육 경로 • 초·중·고생 대상 대외원조 관련 교육의 충분성 • 초·중·고생 대상 대외원조 관련 교육 강화에 대한 의견 • 초·중·고생 대상 대외원조 관련 교육 강화 필요 부분

IV. 응답자 특성표

구분		사례수	구성비(%)
전체		(1,000)	100.0
성별	남성	(496)	49.6
	여성	(504)	50.4
연령별	19-29세	(179)	17.9
	30대	(183)	18.3
	40대	(208)	20.8
	50대	(198)	19.8
	60대 이상	(232)	23.2
지역별	서울	(199)	19.9
	인천/경기	(296)	29.6
	부산/울산/경남	(156)	15.6
	대구/경북/강원	(131)	13.1
	대전/세종/충청	(103)	10.3
광주/전라/제주	(115)	11.5	
지역규모별	광역시	(453)	45.3
	중소도시	(466)	46.6
	군지역	(81)	8.1
직업별	화이트칼라	(236)	23.6
	블루칼라	(216)	21.6
	자영업	(197)	19.7
	전업주부	(200)	20.0
	학생	(89)	8.9
	농림어업	(9)	0.9
	무직/기타	(53)	5.3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	3.5
	중학교 졸업	(78)	7.8
	고등학교 졸업	(399)	39.9
	대학 재학/졸업	(460)	46.0
	대학원 재학 이상	(25)	2.5
	모름/무응답	(3)	0.3
소득별	200만원 미만	(86)	8.6
	200-300만원 미만	(188)	18.8
	300-400만원 미만	(273)	27.3
	400-500만원 미만	(221)	22.1
	500-600만원 미만	(147)	14.7
	600-700만원 미만	(44)	4.4
	700만원 이상	(39)	3.9
	모름/무응답	(2)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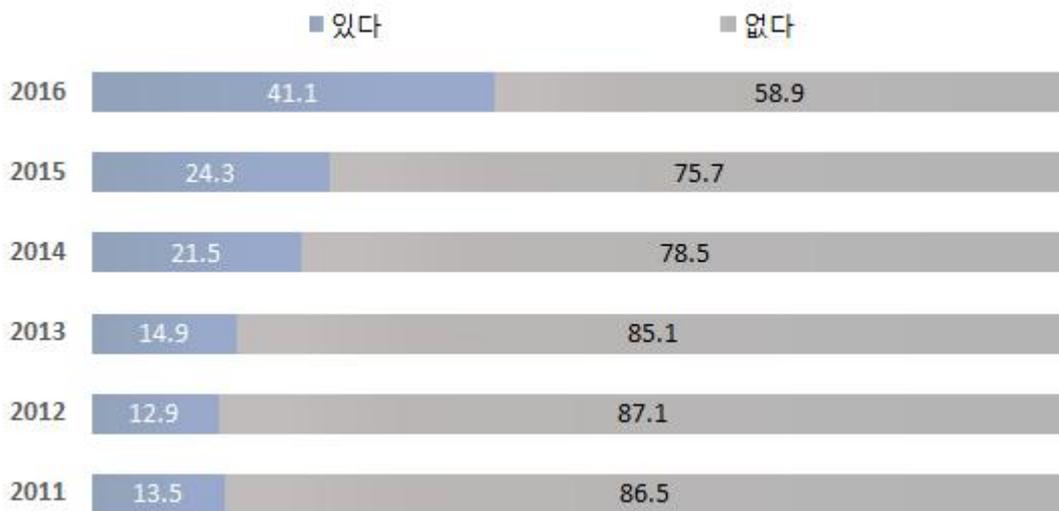
제2장 | 주요 결과 분석 및 시사점

I. 주요 조사 결과

1. 저개발국 방문 경험

- ❖ 원조를 받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를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41.1%가 '있다'고 답해, 10명 중 약 4명은 저개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 2015년 저개발국 방문 경험 비율보다 16.8%p가 늘어 크게 증가했으며, 2012년 이후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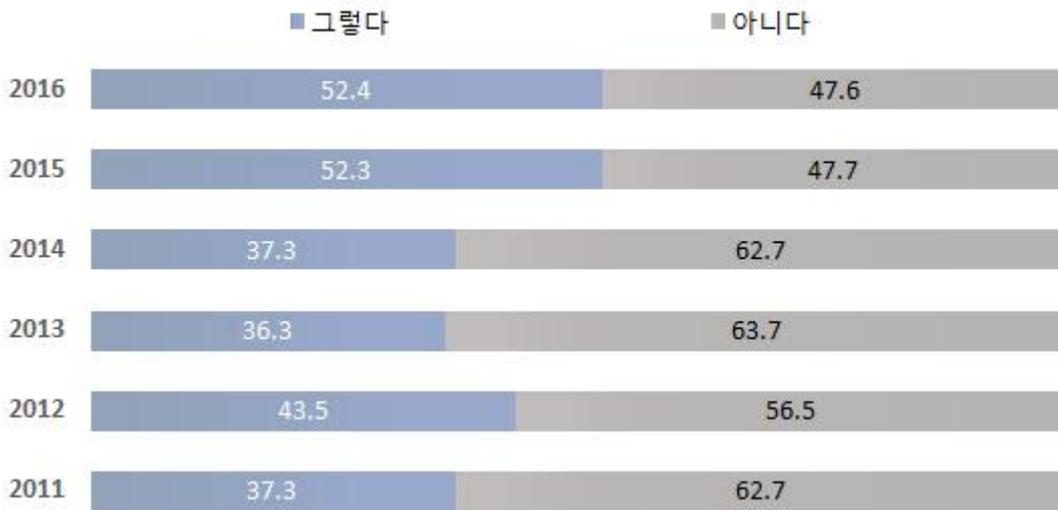
<그림 1> 저개발국 방문 경험



2.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인식

- ❖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52.4%가 긍정적으로 답해, 응답자의 과반수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 2015년에 약 15%p 가량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유사한 인식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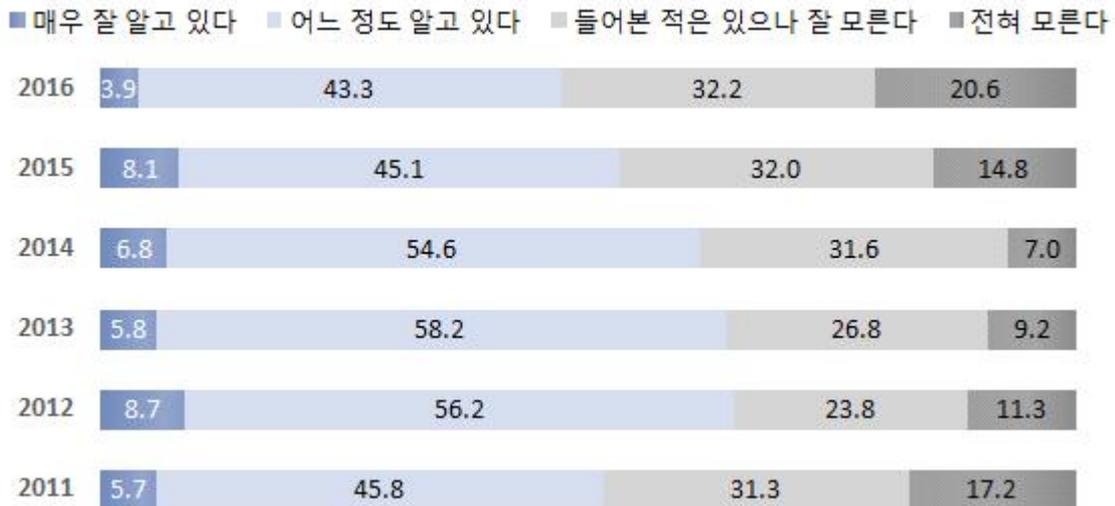
<그림 2>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인식



3. 대외원조 제공 인식

- ❖ 현재 한국 정부가 저개발국에 대외원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가 3.9%,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43.3%로 대외원조 시행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지율은 47.2%로 조사됨
- ❖ 대외원조 제공에 대한 인지율은 2015년 대비 6.0%p 하락한 수치로, 2012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 특히, 비인지자 중 '전혀 모른다'는 응답 비율은 20.6%로 2015년 대비 5.8%p 하락했으며, 2014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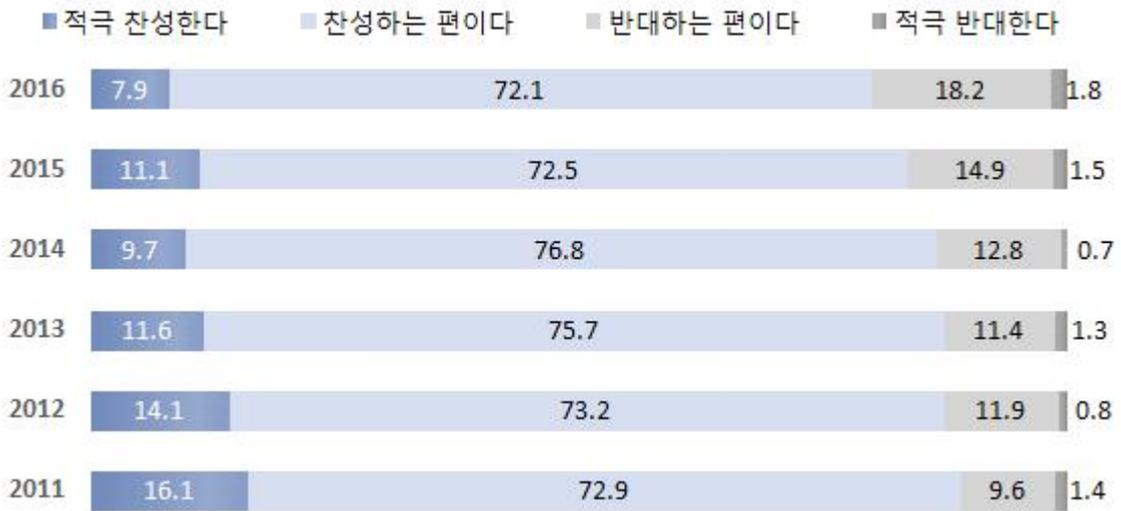
<그림 3> 대외원조 제공 인식



4. 정부의 대외원조 제공 지지

- ❖ 우리 정부의 저개발국 대외원조 제공에 대한 지지도는 80.0%('적극 찬성한다' 7.9%, '찬성하는 편이다' 72.1%)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정부의 대외원조 제공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 그러나 정부 대외원조 제공에 대한 찬성 응답 비율은 2011년 이후로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적극 찬성' 의견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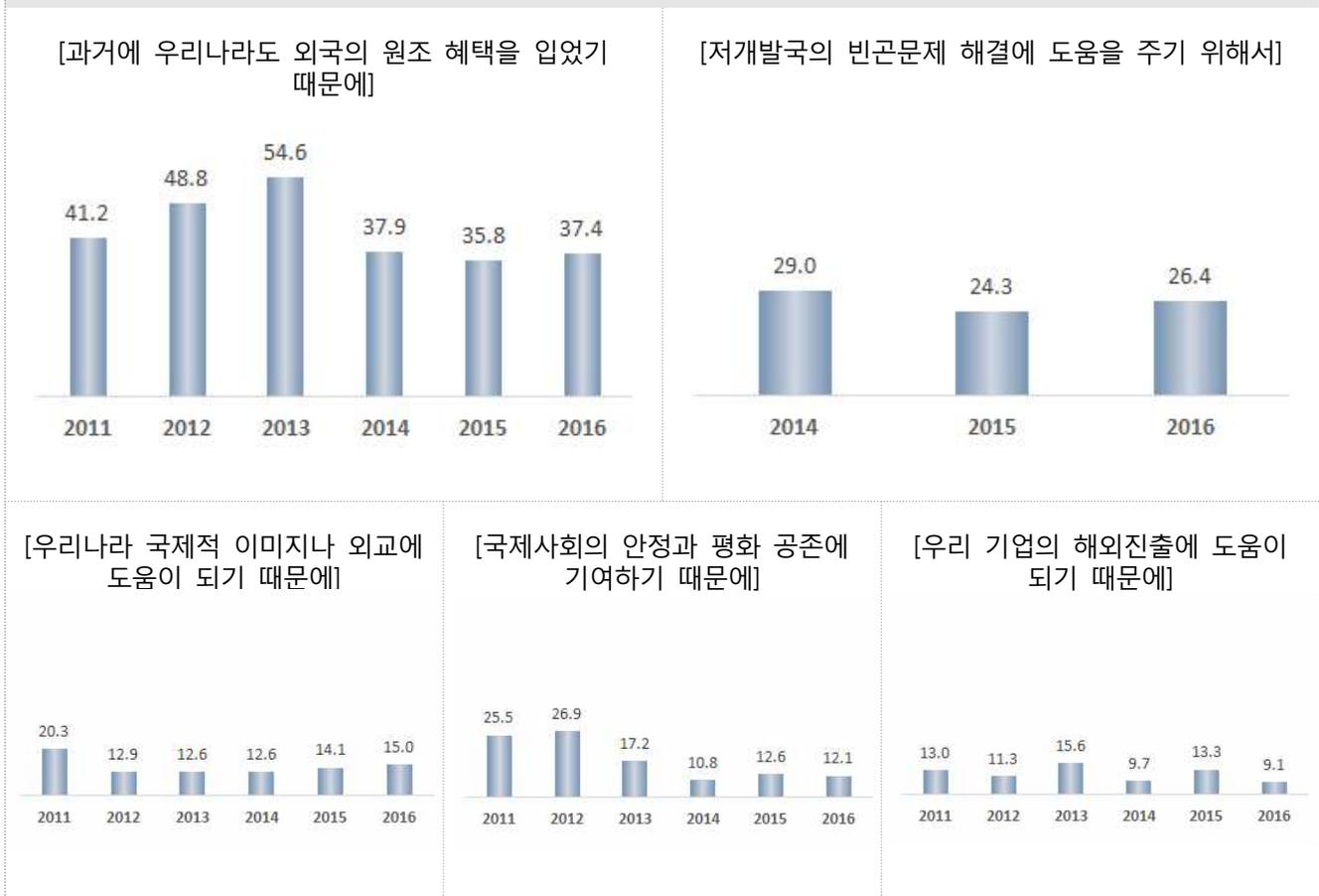
<그림 4> 정부의 대외원조 제공 지지



5. 대외원조 제공 찬성 이유

- ❖ 대외원조 제공에 찬성하는 이유로 '과거 우리나라도 외국의 원조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37.4%)라는 응답이 2011년부터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저개발국의 빈곤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26.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음
- ❖ 반면, '우리나라 국제적 이미지나 외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15.0%)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9.1%)는 지속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 공존에 기여하기 때문에'(12.1%)는 응답률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과거 경제적 빈곤을 경험한 당사국으로서 국제 평화나 외교적 이미지보다는 경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한 저개발국 문제 해결을 위해 대외원조에 찬성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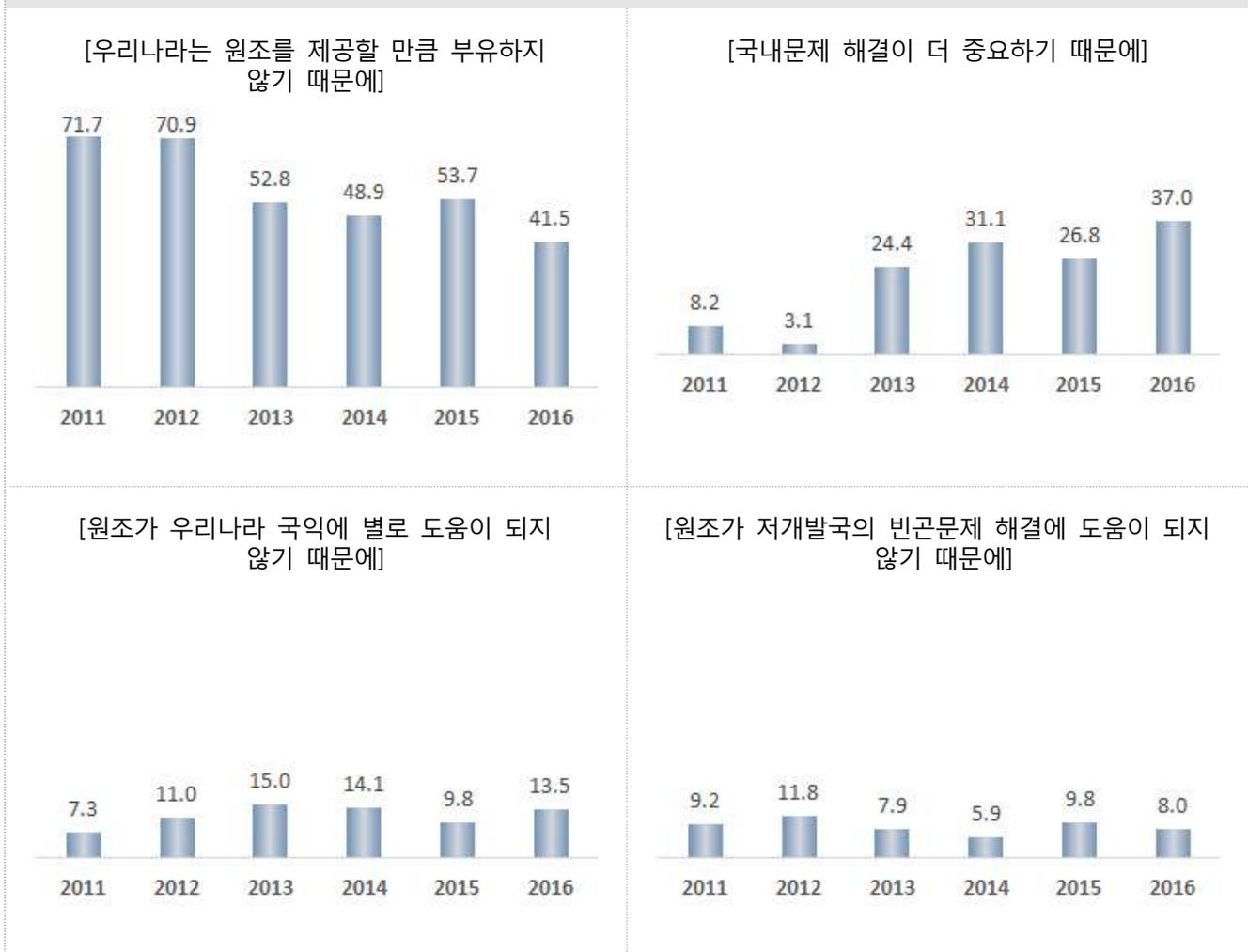
<그림 5> 대외원조 제공 찬성 이유



6. 대외원조 제공 반대 이유

- ❖ 한편, 대외원조 제공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원조를 제공할 만큼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41.5%로 과년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그러나 응답률은 2011년 이후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 반면, '국내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금까지 중 가장 높은 수치인 37.0%로 나타나, 대외원조보다 국내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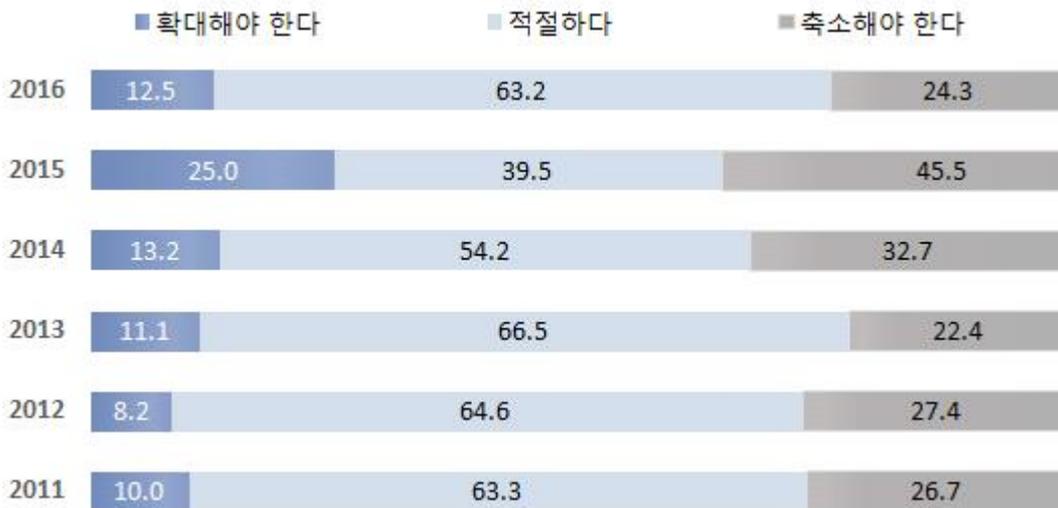
<그림 6> 대외원조 제공 반대 이유



7. 정부의 대외원조 규모 적정성

- ❖ 2015년 총 대외원조 금액(약 2조 1천억원)과 국민총소득 대비 원조 비중(0.14%)을 제시한 후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 63.2%, '확대해야 한다' 12.5%, '축소해야 한다' 24.3%로 조사됨
- ❖ 확대 의견은 2015년 대비 12.5%p 줄어들었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적절+확대' 의견이 75.7%로 2015년 대비 1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2013년 이후 원조규모 '축소' 의견이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2015년에는 '확대', '적절', '축소' 의견 중 '축소' 의견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올해에는 '축소' 의견이 대폭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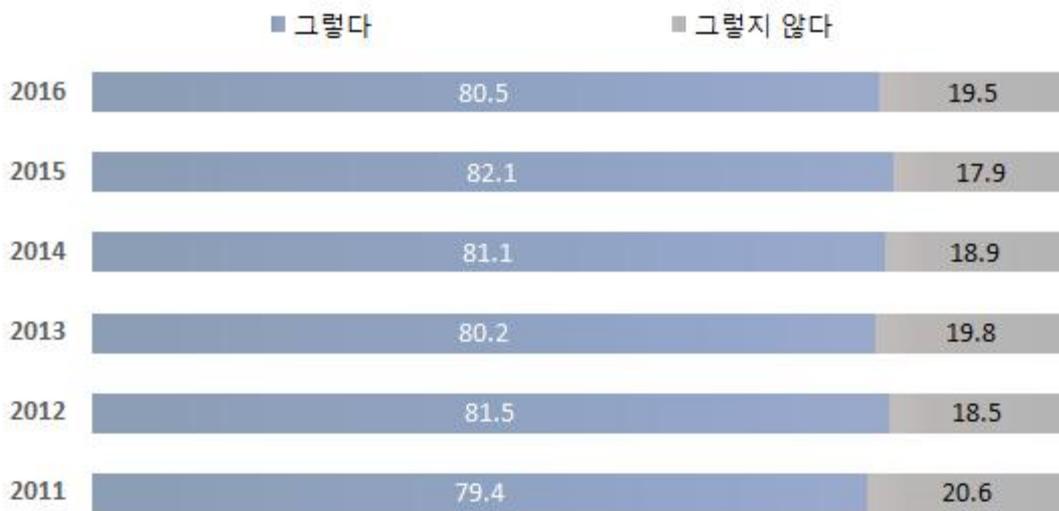
<그림 7> 정부의 대외원조 규모 적정성



8. 정부 대외원조의 실질적 효과

- ❖ 정부의 대외원조 효과에 대한 인식 파악을 위해 우리 정부의 원조가 저개발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질문한 결과, 80.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 ❖ 정부 대외원조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2011년부터 유사한 수치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부분 우리 정부의 대외원조가 실효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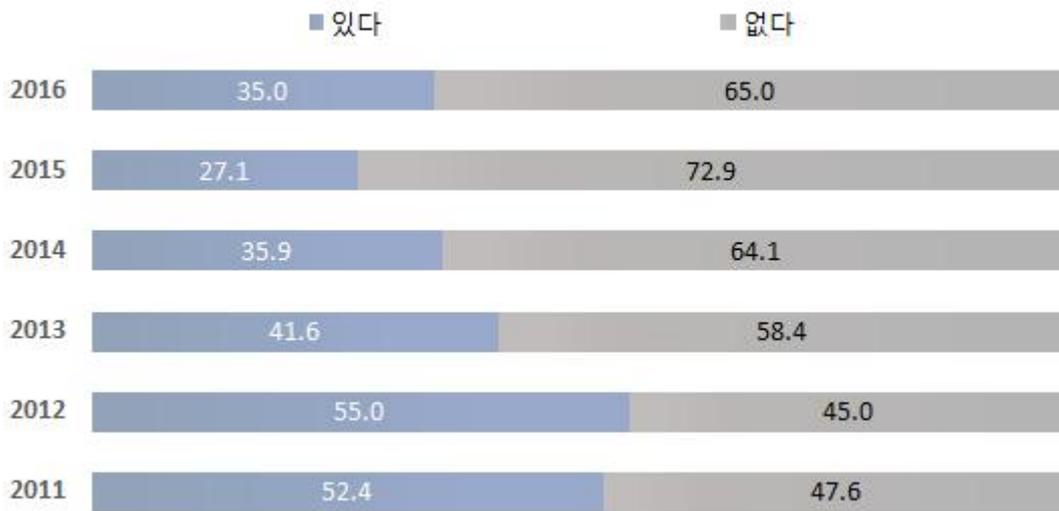
<그림 8> 정부 대외원조의 실질적 효과



9. 대외원조 정보를 접해본 경험 유무

- ❖ 대외원조와 관련된 정보 접근성 파악을 위하여 대외원조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35.0%가 정보 경험이 '있다'고 답해 2015년 대비 7.9%p 증가한 수치를 보였음
- ❖ 이는 2012년 이후 정보 접근성이 감소 추세에 있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나, 여전히 정부 대외원조 지지도(80.0%) 대비 낮은 수준으로, ODA 홍보에 지속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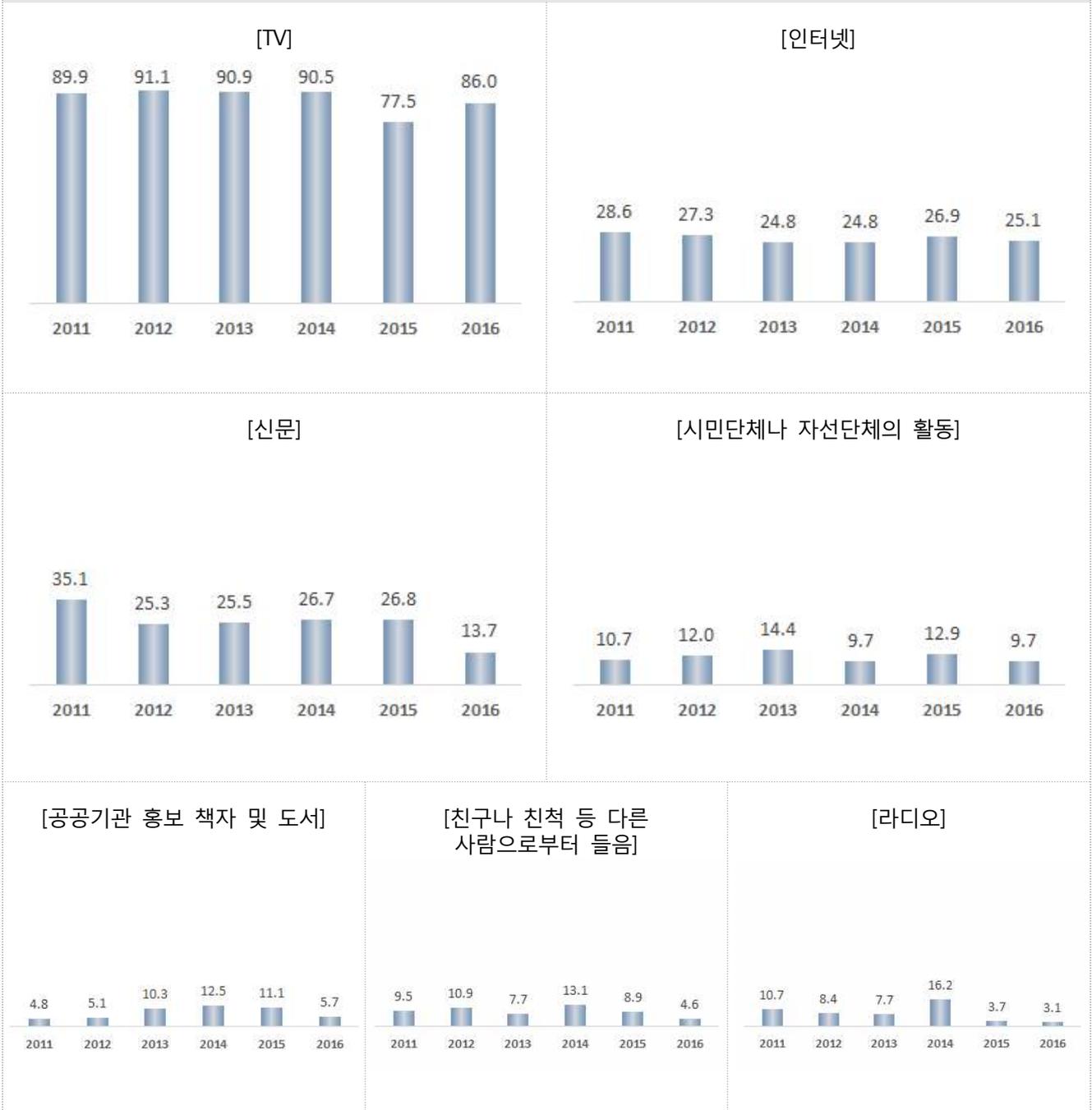
<그림 9> 대외원조 정보를 접해본 경험 유무



10. 대외원조 정보를 접한 경로

- ❖ 대외원조 정보를 접한 경로는 'TV'가 86.0%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 25.1%, '신문' 13.7% 등의 순으로 조사됨
- ❖ '신문'의 경우, 2015(26.8%)년 대비 13.1%p 하락함

<그림 10> 대외원조 정보를 접한 경로 (복수응답)



11. 대외원조 정보 제공 매체 선호도

- ❖ 향후 대외원조 관련 정보는 어떤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TV'가 8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도 42.4%를 차지했음. '신문'은 16.5%로 이전까지의 응답률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이벤트 및 행사'는 4.2%로 가장 낮아, 응답자 대부분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정보 습득 과정이 편리한, 접근성 높은 매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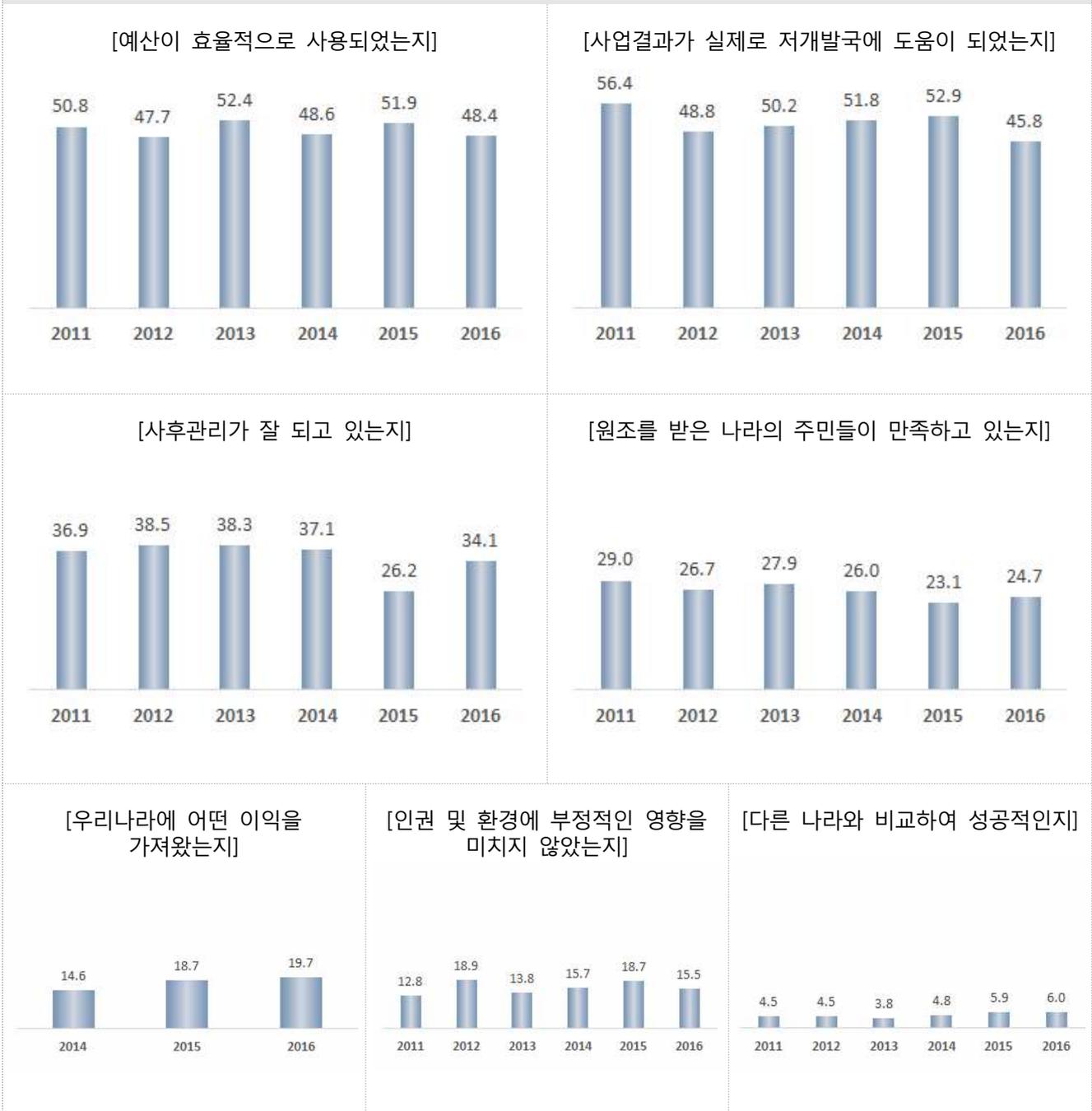
<그림 11> 대외원조 정보 제공 매체 선호도 (복수응답)



12. 가장 관심이 가는 대외원조 정보

- ❖ 우리나라의 대외원조와 관련하여 가장 관심이 가는 정보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가 48.4%, '사업결과가 실제로 저개발국에 도움이 되었는지'가 45.8%로 응답률이 높았음.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34.1%), '원조를 받은 나라의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지'(24.7%)도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남.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을 가져왔는지'(19.7%) 또한 2014년 이후로 증가하는 추세로, 국민들이 대외원조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12> 가장 관심이 가는 대외원조 정보 (복수응답)



II. 종합 분석 및 시사점

1. 정부 대외원조 제공에 대한 인식

- ◆ 정부의 저개발국 대외원조 제공에 대한 국민 인지율은 47.2%로 2012년 64.9%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혀 모른다'는 응답 비율(20.6%)은 2014년(7.0%)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임
- ◆ 특히, 20대(68.2%), 학생(69.7%) 계층의 경우,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제공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블루칼라(61.6%), 전업주부(60.5%) 계층도 국민의 평균 비인지율보다 10%p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 정부의 저개발국 대외원조 제공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80.0%로 인지율과 마찬가지로 2011년 89.0%를 기록한 이후 점진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 ▶ 현재 정부 대외원조 정책 홍보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국민 인지도 제고 및 정책 홍보 방안 마련이 요구됨. 한편, 20대, 블루칼라, 전업주부 계층에 대한 체계적 인지도 관리도 필요한 상황임
- ◆ 대외원조 제공 찬성 이유로는 '과거 우리나라도 외국의 원조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37.4%), '저개발국의 빈곤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26.4%)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과년 조사와 동일한 경향을 보임
- ◆ 대외원조 제공 반대 이유로는 '우리나라는 원조를 제공할 만큼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41.5%), '국내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37.0%)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 우리 국민은 국제 평화나 외교적 이미지보다는 과거 경제적 빈곤 및 수원 당사국으로서의 경험과 경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한 저개발국 문제 해결을 위해 대외원조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임
 - ▶ 대외원조 제공 찬성 이유 중 '과거 우리나라도 외국의 원조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은 반면, '저개발국의 빈곤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많은 것으로 분석됨. 즉, 대외원조 제공 지지는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고연령층과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저연령층이라는 세대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 이는 향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원 경험 세대의 인구 비율이 대외원조 제공에 대한 국민의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대외원조 정책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방안과 관리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대외원조 정책에 대한 의견

- ◆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규모에 대해서는 '적절하다' 63.2%, '확대해야 한다' 12.5%, '축소해야 한다' 24.3%로 조사됨
- ◆ 확대 의견은 2015년(25.0%) 대비 12.5%p 감소하였으나, 축소 의견 역시 2015년(45.5%) 대비 21.2%p 감소함. 이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그간의 경제 성장에 대한 인식이 상쇄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됨
 - ▶ 전체적으로는 '적절+확대' 의견이 75.7%로 2015년 대비 11.0%p 증가하였으나, 대외원조 인지 계층과 비인지 계층 간 대외원조 규모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음. 대외원조 인지자의 경우, '적절' 65.3%, '확대' 16.9%, '축소' 17.8%로 '적절+확대' 의견이 82.2%에 달하는 반면, 비인지자는 '적절' 61.4%, '확대' 8.5%, '축소' 30.1%로 '적절+확대' 의견이 69.9%로 인지자와 비인지자 간 약 10%p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 이는 대국민 교육 및 홍보에 있어서 정부의 대외원조 제공 사실을 모르고 있는 계층에 대한 정보 제공 자체가 주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 한편,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대외원조 정책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원조 정책 집행에서의 투명성 부족'(55.6%), '원조집행 기관 간 협력 및 소통 부족'(34.8%) 등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는 2015년과 동일한 결과임
- ◆ 특히, 대외원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경우, '원조정책 집행에서의 투명성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2.5%로 대외원조 찬성자들의 응답 비율(53.9%)보다 약 10%p 가까이 높음
- ◆ 학생 계층의 경우에도 '원조정책 집행에서의 투명성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4.0%로 평균 응답률(55.6%)보다 8.4%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이는 대외원조 제공에 대한 국민 지지도와 관련하여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기관 간 소통'이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정책 집행의 투명성'은 국민 지지도 제고에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함
 - ▶ 아울러, 학생 계층, 즉 20대 초중반의 젊은 세대의 불만에 대해 정책 홍보에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를 시사하는 대목임

3. 대외원조에 대한 정보 접근성

- ◆ 우리 국민들은 대외원조와 관련한 정보를 접해 본 경험에 대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5.0%로 2015년(27.1%) 대비 7.9%p 증가함
- ◆ 대외원조 제공 비인지자의 경우, 대외원조 관련 정보를 접해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0.3%로 인지자의 응답(47.9%)보다 약 30%p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됨
- ◆ 대외원조 반대자의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접해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77.5%로 찬성자의 응답(61.9%)보다 약 15%p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됨
- ◆ 한편,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20대(71.5%), 전업주부(72.0%), 학생(73.0%) 계층에서 평균 응답률(65.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2012년 이후 정보 접근성이 감소 추세에 있었다는 점에서 2016년 증가세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 대외원조 지지율(80.0%)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면에서 향후 대외원조 정책에 대한 지속적 교육 및 홍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특히, 대외원조 제공 인지 여부와 지지 여부에 따른 정보 접근성 차이는 대외원조 관련 정보의 접촉 여부가 국민 인지도 및 지지도 변화와 상관관계에 있음을 시사함
 - ▶ 또한 학생을 중심으로 한 20대의 젊은 세대, 블루칼라, 전업주부와 같은 계층이 대외원조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우리 국민이 대외원조 정보를 접한 경로는 'TV' 86.0%, '인터넷' 25.1%, '신문' 13.7% 등의 순으로 대외원조 정보 접촉 경험자들은 대부분 TV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매체 선호도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임
- ◆ 대외원조 정보 접촉 경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TV를 통한 접촉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인터넷을 통한 접촉 비율이 높아져 세대적 특성이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 이는 홍보매체 선택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함. 향후 대외원조 인식 제고 및 홍보에 있어서 세대 특성에 부합하는 홍보매체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이와 함께 홍보매체의 선택 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콘텐츠 구성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Ⅲ. 정책 제언

- ◆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특히 DAC 가입이후, 2011년부터 진행되어 온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국민의 인식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2011년부터 현재까지의 설문조사는 응답자가 동일하지 않아 패널데이터 분석과 같은 체계적인 시계열적 분석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6년간 ODA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ODA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인식조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본 조사의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 방향에 대해 크게 3가지를 논의하고자 함

대외 원조정책 집행에서의 투명성 확보와 기관 간 협력적 접근 필요

보다 체계적·구체적인 성과평가체계 시행하고,
국무조정실의 역할과 권한 강화해야

- ◆ 첫째, ODA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대외 원조정책 집행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기관 간 협력적 접근이 필요함. 즉, 국민들의 인식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추적해 분석해 볼 수 있음

- ① 저개발국을 돕기 위한 참여의사
- ② 대외원조의 찬반여부
- ③ 대외원조 규모의 적정성
- ④ 정부의 저개발국 지원효과를 저해하는 요인

- ▶ 상기한 4가지 조건을 순차적으로 추적해 분석해보면, '대외원조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부정적 이미지의 주요 원인이 '정책의 투명성 부족'과 '기관 간 소통의 부재'에 있음을 알 수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개발국을 돕기 위한 직·간접적 개인 참여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51.7%로 나타났으며, 이 중 '대외원조 자체를 반대'하는 인식을 가진 사람은 30.9%를 차지함. 즉, 개인적으로 저개발국 발전을 위한 참여의사도 없으며, 동시에 대외원조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대외원조 규모도 축소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72.5%). 그리고 이렇게 대외원조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원조정책 집행에서의 투명성부족'(61.2%)과 '원조집행 기관 간 협력 및 소통부족'(33.6%)을 한국 정부의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효과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이와 유사하게, 저개발국을 돕기 위한 직·간접적 개인 참여의사가 없는 사람들 중 대외원조를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69.1%로 나타남. 즉, 저개발국 지원에 대한 개인적 참여의사가 없는 사람들 중 과반수 이상이 대외원조 자체는 찬성하고 있음. 그리고 이들 중 72.5%가 현재의 대외원조 규모가 적절하다고 응답함. 그러나 '대외원조에도 찬성'하고 '대외원조 규모도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원조정책 집행에서의 투명성 부족'(53.3%)과 '원조집행 기관 간 협력 및 소통부족'(36.3%)을 한국 정부의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효과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들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한편, 대외원조의 직·간접 참여의사가 있는 사람들(48.3%) 중 현재의 대외원조 규모가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68.5%)조차도 한국 정부의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원조정책 집행에서의 투명성 부족'(56.2%)과 '원조집행 기관 간 협력 및 소통부족'(34.4%)을 지적하고 있음.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 실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 대외원조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정보공개를 통해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기관 간 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현재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1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1조(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성과평가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임
- ▶ 이와 함께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관의 권한 강화를 통한 각 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노력이 필요함. 이를 통하여 현재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조의 분절성에 대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임. 그러므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하여 국무조정실의 인력과 예산 보강을 통한 역할과 권한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긍정적 인식 제고 위한 타겟 홍보 반드시 필요

전략적인 홍보매체 선택과 계층 특성 고려한 콘텐츠 구성이 중요
정부 신뢰를 위한 거시 정책적 접근도 적극 고려

- ◆ 둘째, 대외원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타겟 홍보가 반드시 필요함. 다시 말해서 다양한 성향을 가진 국민의 특성들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시점임
 - ▶ 사람의 의도(intention)는 동기(motivation)에 영향을 미치고, 동기는 행동(behavior)에 영향을 줌. 여기서 인식이라고 하는 영역은 바로 사람의 의도와 동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음. 즉, 사람의 독특한 인식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ODA에 대해 이해하려는 의도와 동기는 사람의 특성마다 다름.
 - ▶ 따라서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의 전략에는 국민의 계층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타겟팅 전략이 필요한 것임. 즉, 인식 제고가 필요한 취약 계층 선정과 그에 적합한 고객 지향적 접근이 요구됨. 대외원조 제공 인지 여부와 국민 지지 간의 관계로 볼 때, 국민의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학생층을 포함한 20대와 같은 젊은 세대, 블루칼라, 전업주부 계층을 중심으로 한 홍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홍보매체의 선택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 이번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정보 접근성의 차이에 따른 대외원조 제공 인지율 및 지지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이와 함께 세대적 특성에 따른 정보 접촉 경로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음
 - ▶ 대외원조 제공 인지도가 떨어지는 젊은 세대의 경우, 전통적인 홍보매체로 기능해왔던 TV보다 최근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블로그, SNS 등 온라인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홍보매체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NAVER, DAUM 등 젊은 세대의 인 용 빈도가 많은 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 한 ODA 관련 정보 노출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홍보매체의 선택과 관련하여서도 매체 특성에 적합한 콘텐츠 구성을 고려해야 함

- ▶ 인터넷과 모바일의 경우, 자료의 구성 방식과 형태는 달라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로 PC를 통해 접속하는 블로그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화면 제약이 덜한 반면, 휴대폰 등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접속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의 경우는 텍스트 위주의 콘텐츠보다는 단시간에 간결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 자료가 관심도 제고에 효과적일 것임

◆ 이에 더하여, 국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요소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외원조 제공에 찬성(80.0%)은 하고 있지만 그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13.4%)은 그 이유로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50.5%)
- ▶ 이와 비슷하게, 개인적 차원에서 저개발국 지원 참여의사가 있는 사람들 중 기부 및 후원과 같은 간접적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35.4%)과 자원봉사 등 직접적 참여 의사가 있는 사람(12.9%) 등과 같이 공적 개발원조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밝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외원조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함. 이러한 대외원조의 지지자들조차도 원조규모의 축소 이유로 '우리 경제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이다'(50.5%)거나 '국내 복지재정 확대가 더욱 중요하다'(30.8%)라고 자신의 의도와 동기를 나타내고 있음. 즉, 한국의 경제상황과 복지재정 확대의 필요성 등과 같이 간접적인 외부 조건의 영향에 ODA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 따라서 외부효과에 의하여 ODA에 대한 국민인식이 낮아졌다면, 홍보 전략도 ODA라는 내용적 측면에 국한하기 보다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같은 거시적 접근을 병행하는 홍보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ODA 정보·지식 축적 및 전파 위한 아카이브 필요

정보 수요자의 접촉 경로 단순화·일원화 필요
미디어 및 이용자 특성 고려한 사진·영상 자료 중심의 아카이브화 필요

- ◆ 또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의 방식과 관련하여 관련 지식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전파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면에서 현재 운영 중인 'ODA 홈페이지'는 대외원조 관련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제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라고 판단 됨.
 - ▶ 현재 운영 중인 ODA 홈페이지를 대외원조 관련 지식·정보의 아카이브로써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관련 정보에 대한 수요자의 접촉 경로를 단순화·일원화하는 것은 정책 홍보의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될 것임. 예컨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사례와 같이 '선거 관련 정보 = 선관위 홈페이지'라는 이미지를 인식시키고,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원조 관련 정보의 접촉 경로를 단순화함으로써 정보 수요자를 포함한 일반국민이 보다 쉽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 아카이브화된 ODA 홈페이지 등에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단순 게재하기보다는, 단시간에 시각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이나 카드뉴스 등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와 함께 젊은 세대의 접속 비율이 높은 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 전개시켜 궁극적으로는 ODA 홈페이지로의 유입을 유도해 나가는 방안은 더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방법이 될 것임
 - ▶ 단순 자료 게재 형식을 벗어나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세대별 계층 속성과 연계된 홍보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임. 예컨대, 최근의 정책홍보 사례 중 웹툰 방식을 활용했던 보건복지부의 '핑거밴드 캠페인'이나 인포그래픽을 소재로 실시했던 관세청의 '수입가격 공개 제도'에 관한 캠페인 등은 참고할 만한 정책 홍보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중앙 부처 등 정책 집행 기관의 정책 홍보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임(4장 정책 홍보 사례 참조)
 - ▶ 아울러, 모바일 이용 보편화 추세와 같은 미디어 환경 변화와 미디어 및 이용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텍스트 자료보다는 사진·영상 자료를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아카이브화하는 것이 필요함

지속적 교육 통해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국제적 책임성' 연계 강조

원조 혜택 경험 없는 젊은 세대에 대한 교육 필수적
전략적 관리 위해 청소년 대상 조사 필요

- ◆ 셋째, 대외원조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선진국에 대한 자부심 고취와 국제적 책임이라는 연계성의 강조가 필요한 시점임
 - ▶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2011년 37.3%이었던 것이 2016년 52.4%로 2011년 대비 6년 사이에 약 15.1%p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저개발국 대외원조 제공에 대한 지지도'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2011년 89.0% → 2016년 80.0%). 물론, '찬성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은 6년간 거의 변화가 없으나, '적극 찬성한다'라는 적극적 지지층은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2011년 16.1% → 2016년 7.9%)
 - ▶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홍보 전략과 병행하여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 노력도 필요함. 즉, 교과과정을 통해 선진국가로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대외원조 제공에 대해 세대간 지지 및 지지 이유의 차이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교과과정을 통한 지속적 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 대외원조 제공을 찬성하는 이유로 '과거 한국이 받은 원조의 혜택에 대한 고마움'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남. 즉, 한국이 과거에 원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보상적 의미에서 대외원조 제공을 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 이러한 인식이 대외원조 지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대외원조의 지지에 대한 인식도 함께 하락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음. 이는 대외원조 지지 이유에 있어 세대적 특성이 상이한 것에서도 추측이 가능함. 따라서 홍보와 함께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만 할 것임
 - ▶ 따라서 2017년 조사 시에는 2014년 인식조사에서 실시한 것과 같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ODA 인식조사를 병행하여 성인과 별도로 청소년에 대한 인식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지표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 아울러, 교과과정에서 대외원조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예컨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교재 작성법'을 전파하거나,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ODA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임

- ◆ 끝으로,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의도와 동기에 바탕을 둔 사람들의 인식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선행조건임. 국민의 인식 정도와 정부정책 지지에 대한 직접적 연관성을 주장할 수는 없으나, 인식이 행동의 선행조건 역할을 하므로 중·장기적 전략을 토대로 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그러므로 선행 조사들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된 바와 같이 단기간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도출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단기 성과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지속적이고 장기적 노력을 통한 국민 인식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제3장 | 조사 결과 분석

1. 대외원조에 대한 기초인식
2. 대외원조의 중요성 및 원조동기 인식
3. 대외원조의 정책 및 예산규모 인식
4. 대외원조에 관한 정보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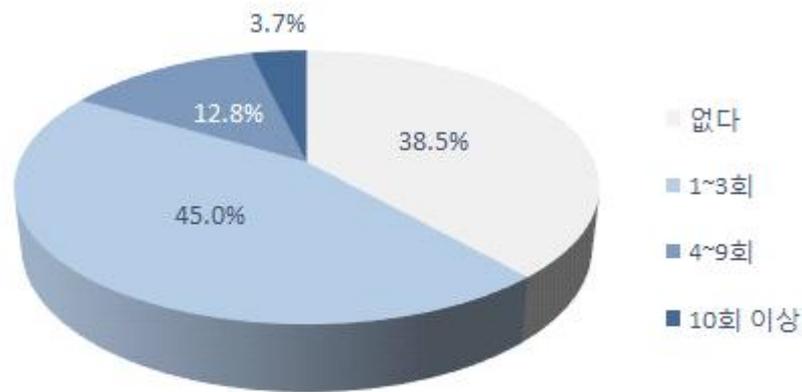
I. 대외원조에 대한 기초인식

1. 외국 방문 경험

- 지금까지의 외국 방문 경험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61.5%('1~3회' 45.0%, '4~9회' 12.8%, '10회 이상' 3.7%)로 '없다'(38.5%)보다 많았음
- 방문 횟수는 주로 '1~3회'(45.0%)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I-1> 외국 방문 경험

(n=1,000, 단위: %)



■ 특성별 분석

- 외국 방문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대구/경북/강원(52.7%), 대전/세종/충청(58.3%)에서, 학력별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65.7%), 중학교 졸업(56.4%)에서, 소득별로 200만원 미만(64.0%)에서 비교적 높았음
- '1~3회' 응답은 직업별로 학생(50.6%)에서, 소득별로 500-600만원 미만(51.0%), 600-700만원 미만(50.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1> 외국 방문 경험

구분		사례수	없다	1-3회	4-9회	10회 이상
전체		(1,000)	38.5	45.0	12.8	3.7
성별	남성	(496)	36.7	45.6	13.1	4.6
	여성	(504)	40.3	44.4	12.5	2.8
연령별	19-29세	(179)	45.3	45.8	6.1	2.8
	30대	(183)	29.0	48.6	17.5	4.9
	40대	(208)	36.1	47.6	14.4	1.9
	50대	(198)	37.9	45.5	13.6	3.0
	60대 이상	(232)	43.5	38.8	12.1	5.6
지역별	서울	(199)	29.6	48.2	15.1	7.0
	인천/경기	(296)	32.4	48.6	14.2	4.7
	부산/울산/경남	(156)	38.5	42.9	16.0	2.6
	대구/경북/강원	(131)	52.7	36.6	7.6	3.1
	대전/세종/충청	(103)	58.3	36.9	4.9	0.0
	광주/전라/제주	(115)	35.7	49.6	13.9	0.9
지역 규모별	광역시	(453)	36.6	45.9	13.7	3.8
	중소도시	(466)	39.1	45.1	12.4	3.4
	군지역	(81)	45.7	39.5	9.9	4.9
직업별	화이트칼라	(236)	25.8	49.6	19.1	5.5
	블루칼라	(216)	43.5	47.2	7.9	1.4
	자영업	(197)	37.6	45.7	13.2	3.6
	전업주부	(200)	44.5	39.0	14.0	2.5
	학생	(89)	40.4	50.6	5.6	3.4
	농림어업	(9)	77.8	22.2	0.0	0.0
	무직/기타	(53)	45.3	30.2	13.2	11.3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	65.7	28.6	2.9	2.9
	중학교 졸업	(78)	56.4	35.9	5.1	2.6
	고등학교 졸업	(399)	45.4	43.6	9.3	1.8
	대학 재학/졸업	(460)	29.8	49.1	16.5	4.6
	대학원 재학 이상	(25)	0.0	36.0	40.0	24.0
	모름/무응답	(3)	0.0	100.0	0.0	0.0
소득별	200만원 미만	(86)	64.0	27.9	5.8	2.3
	200-300만원 미만	(188)	47.3	39.4	11.7	1.6
	300-400만원 미만	(273)	37.4	48.0	11.7	2.9
	400-500만원 미만	(221)	38.0	49.3	10.9	1.8
	500-600만원 미만	(147)	25.2	51.0	17.0	6.8
	600-700만원 미만	(44)	22.7	50.0	20.5	6.8
	700만원 이상	(39)	17.9	35.9	28.2	17.9
	모름/무응답	(2)	50.0	5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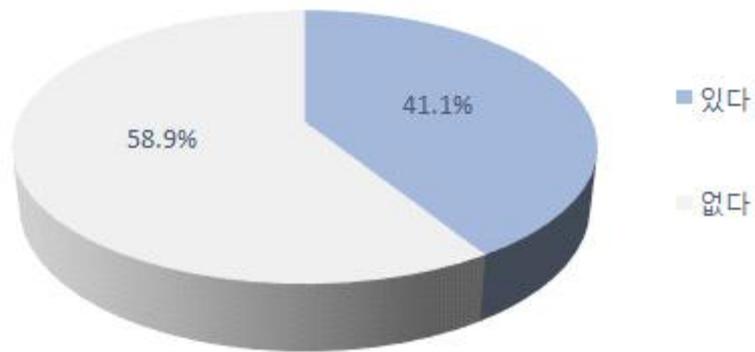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없다	1-3회	4-9회	10회 이상
전체		(1,000)	38.5	45.0	12.8	3.7
대외원조 찬반	찬성	(800)	35.9	45.8	14.1	4.3
	반대	(200)	49.0	42.0	7.5	1.5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524)	38.7	44.3	13.4	3.6
	선진국 아님	(476)	38.2	45.8	12.2	3.8
원조인지	인지	(472)	33.3	44.9	17.2	4.7
	비인지	(528)	43.2	45.1	8.9	2.8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253)	0.0	63.6	26.5	9.9
	경험없음	(362)	0.0	79.8	16.9	3.3
원조참여 의사	있음	(483)	32.9	45.8	16.6	4.8
	없음	(517)	43.7	44.3	9.3	2.7
외국방문 경험	없음	(385)	100.0	0.0	0.0	0.0
	1-3회	(450)	0.0	100.0	0.0	0.0
	4-9회	(128)	0.0	0.0	100.0	0.0
	10회 이상	(37)	0.0	0.0	0.0	100.0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46)	23.2	46.7	21.5	8.5
	경험없음	(754)	43.5	44.4	9.9	2.1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43)	31.5	37.8	21.7	9.1
	경험없음	(857)	39.7	46.2	11.3	2.8

2. 저개발국 방문 경험

-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을 정도로 가난한 저개발국에 방문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41.1%로 나타남

<그림 I-2> 저개발국 방문 경험

(Base : 외국 방문 경험층, n=615, 단위: %)



■ 특성별 분석

- 저개발국 방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서울(50.0%), 부산/울산/경남(50.0%), 소득별로 200만원 미만(51.6%), 금전적 기부경험 있음(50.3%), 비금전적 기부경험 있음(50.0%)에서 비교적 높았음
- '없다' 응답은 연령별로 19-29세(72.4%),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77.0%), 직업별로 학생(71.7%), 대외원조 반대(75.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2> 저개발국 방문 경험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615)	41.1	58.9
성별	남성	(314)	40.4	59.6
	여성	(301)	41.9	58.1
연령별	19-29세	(98)	27.6	72.4
	30대	(130)	36.2	63.8
	40대	(133)	47.4	52.6
	50대	(123)	43.1	56.9
	60대 이상	(131)	48.1	51.9
지역별	서울	(140)	50.0	50.0
	인천/경기	(200)	40.0	60.0
	부산/울산/경남	(96)	50.0	50.0
	대구/경북/강원	(62)	33.9	66.1
	대전/세종/충청	(43)	39.5	60.5
	광주/전라/제주	(74)	23.0	77.0
지역 규모별	광역시	(287)	46.0	54.0
	중소도시	(284)	37.7	62.3
	군지역	(44)	31.8	68.2
직업별	화이트칼라	(175)	43.4	56.6
	블루칼라	(122)	36.9	63.1
	자영업	(123)	43.9	56.1
	전업주부	(111)	42.3	57.7
	학생	(53)	28.3	71.7
	농림어업	(2)	50.0	50.0
	무직/기타	(29)	51.7	48.3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	50.0	50.0
	중학교 졸업	(34)	44.1	55.9
	고등학교 졸업	(218)	40.8	59.2
	대학 재학/졸업	(323)	40.6	59.4
	대학원 재학 이상	(25)	44.0	56.0
	모름/무응답	(3)	33.3	66.7
소득별	200만원 미만	(31)	51.6	48.4
	200-300만원 미만	(99)	36.4	63.6
	300-400만원 미만	(171)	39.8	60.2
	400-500만원 미만	(137)	36.5	63.5
	500-600만원 미만	(110)	49.1	50.9
	600-700만원 미만	(34)	41.2	58.8
	700만원 이상	(32)	43.8	56.3
	모름/무응답	(1)	10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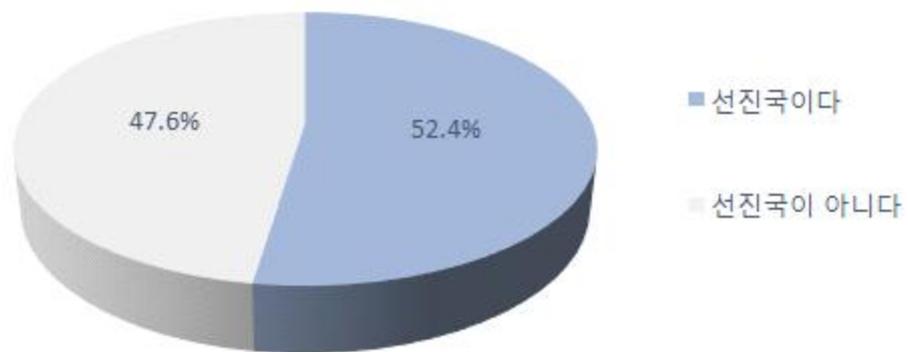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615)	41.1	58.9
대외원조 찬반	찬성	(513)	44.4	55.6
	반대	(102)	24.5	75.5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321)	45.8	54.2
	선진국 아님	(294)	36.1	63.9
원조인지	인지	(315)	47.0	53.0
	비인지	(300)	35.0	65.0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253)	100.0	0.0
	경험없음	(362)	0.0	100.0
원조참여 의사	있음	(324)	46.9	53.1
	없음	(291)	34.7	65.3
외국방문 경험	1-3회	(450)	35.8	64.2
	4-9회	(128)	52.3	47.7
	10회 이상	(37)	67.6	32.4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89)	50.3	49.7
	경험없음	(426)	37.1	62.9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98)	50.0	50.0
	경험없음	(517)	39.5	60.5

3.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인식

- 현재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52.4%로,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응답자(47.6%)보다 다소 많았음

<그림 I-3>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인식

(n=1,000, 단위: %)



■ 특성별 분석

-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연령별로 60대 이상(61.6%), 지역별로 대구/경북/강원(61.8%), 대전/세종/충청(78.6%), 지역규모별로 군지역(79.0%), 학력별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65.7), 중학교 졸업(61.5%), 소득별로 200만원 미만(61.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연령별로 30대(55.7%), 지역별로 서울(58.3%), 직업별로 화이트 칼라(54.7%), 소득별로 600-700만원 미만(59.1%)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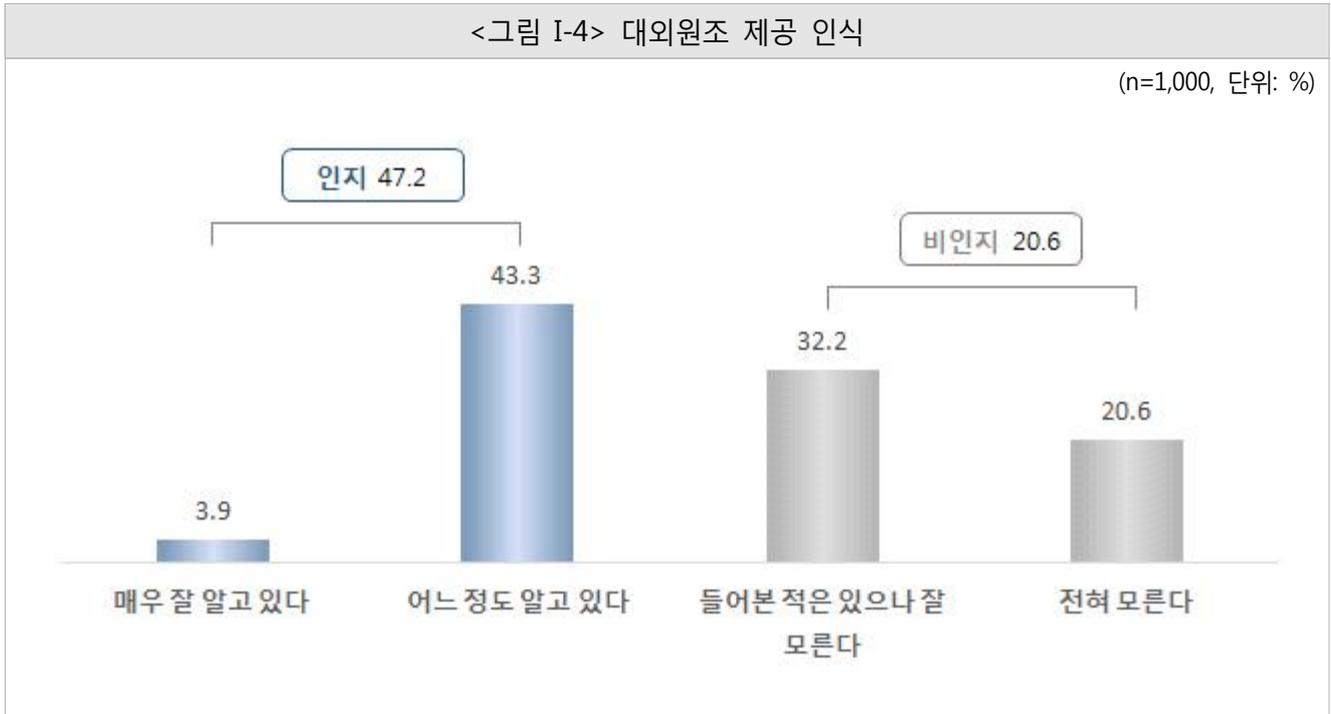
<표 I-3>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인식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1,000)	52.4	47.6
성별	남성	(496)	49.6	50.4
	여성	(504)	55.2	44.8
연령별	19-29세	(179)	53.6	46.4
	30대	(183)	44.3	55.7
	40대	(208)	50.0	50.0
	50대	(198)	50.5	49.5
	60대 이상	(232)	61.6	38.4
지역별	서울	(199)	41.7	58.3
	인천/경기	(296)	47.6	52.4
	부산/울산/경남	(156)	52.6	47.4
	대구/경북/강원	(131)	61.8	38.2
	대전/세종/충청	(103)	78.6	21.4
	광주/전라/제주	(115)	48.7	51.3
지역 규모별	광역시	(453)	51.4	48.6
	중소도시	(466)	48.7	51.3
	군지역	(81)	79.0	21.0
직업별	화이트칼라	(236)	45.3	54.7
	블루칼라	(216)	52.8	47.2
	자영업	(197)	53.8	46.2
	전업주부	(200)	55.5	44.5
	학생	(89)	55.1	44.9
	농림어업	(9)	88.9	11.1
	무직/기타	(53)	54.7	45.3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	65.7	34.3
	중학교 졸업	(78)	61.5	38.5
	고등학교 졸업	(399)	53.4	46.6
	대학 재학/졸업	(460)	48.9	51.1
	대학원 재학 이상	(25)	48.0	52.0
	모름/무응답	(3)	100.0	0.0
소득별	200만원 미만	(86)	61.6	38.4
	200-300만원 미만	(188)	50.0	50.0
	300-400만원 미만	(273)	50.9	49.1
	400-500만원 미만	(221)	55.7	44.3
	500-600만원 미만	(147)	51.7	48.3
	600-700만원 미만	(44)	40.9	59.1
	700만원 이상	(39)	51.3	48.7
	모름/무응답	(2)	50.0	50.0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1,000)	52.4	47.6
대외원조 찬반	찬성	(800)	53.5	46.5
	반대	(200)	48.0	52.0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524)	100.0	0.0
	선진국 아님	(476)	0.0	100.0
원조인지	인지	(472)	52.8	47.2
	비인지	(528)	52.1	47.9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253)	58.1	41.9
	경험없음	(362)	48.1	51.9
원조참여 의사	있음	(483)	51.3	48.7
	없음	(517)	53.4	46.6
외국방문 경험	없음	(385)	52.7	47.3
	1-3회	(450)	51.6	48.4
	4-9회	(128)	54.7	45.3
	10회 이상	(37)	51.4	48.6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46)	50.8	49.2
	경험없음	(754)	52.9	47.1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43)	51.7	48.3
	경험없음	(857)	52.5	47.5

4. 대외원조 제공 인식

- 현재 우리 정부가 저개발국에 대외원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47.2%('매우 잘 알고 있다' 3.9%,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3.3%)로 나타남



■ 특성별 분석

- 대외원조 제공 인지도는 지역규모별로 군지역(60.5%), 소득별로 700만원 이상(59.0%), 원조제공 인지(59.4%), 원조참여 의사 있음(60.0%), 외국방문 경험 4회 이상(4-9회 63.3%, 10회 이상 59.5%), 금전적 기부경험 있음(65.0%), 비금전적 기부경험 있음(62.2%)에서 비교적 높았음
- '모른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19-29세(68.2%),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68.0%), 광주/전라/제주(68.7%), 직업별로 학생(69.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4> 대외원조 제공 인식

구분		사례수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인지	비인지
전체		(1,000)	3.9	43.3	32.2	20.6	47.2	52.8
성별	남성	(496)	5.4	48.0	31.9	14.7	53.4	46.6
	여성	(504)	2.4	38.7	32.5	26.4	41.1	58.9
연령별	19-29세	(179)	2.8	29.1	40.2	27.9	31.8	68.2
	30대	(183)	1.6	48.1	30.6	19.7	49.7	50.3
	40대	(208)	5.8	47.1	31.7	15.4	52.9	47.1
	50대	(198)	3.5	51.5	31.3	13.6	55.1	44.9
	60대 이상	(232)	5.2	40.1	28.4	26.3	45.3	54.7
지역별	서울	(199)	5.0	46.7	30.2	18.1	51.8	48.2
	인천/경기	(296)	4.7	43.9	33.4	17.9	48.6	51.4
	부산/울산/경남	(156)	2.6	51.3	25.6	20.5	53.8	46.2
	대구/경북/강원	(131)	3.1	51.9	29.8	15.3	55.0	45.0
	대전/세종/충청	(103)	3.9	28.2	34.0	34.0	32.0	68.0
	광주/전라/제주	(115)	2.6	28.7	42.6	26.1	31.3	68.7
지역 규모별	광역시	(453)	3.8	47.5	31.3	17.4	51.2	48.8
	중소도시	(466)	3.0	38.0	33.9	25.1	41.0	59.0
	군지역	(81)	9.9	50.6	27.2	12.3	60.5	39.5
직업별	화이트칼라	(236)	5.9	51.7	30.5	11.9	57.6	42.4
	블루칼라	(216)	3.2	35.2	39.4	22.2	38.4	61.6
	자영업	(197)	4.6	52.8	26.4	16.2	57.4	42.6
	전업주부	(200)	1.0	38.5	31.5	29.0	39.5	60.5
	학생	(89)	1.1	29.2	38.2	31.5	30.3	69.7
	농림어업	(9)	22.2	55.6	22.2	0.0	77.8	22.2
	무직/기타	(53)	7.5	43.4	26.4	22.6	50.9	49.1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	2.9	40.0	20.0	37.1	42.9	57.1
	중학교 졸업	(78)	2.6	42.3	30.8	24.4	44.9	55.1
	고등학교 졸업	(399)	2.8	38.8	33.6	24.8	41.6	58.4
	대학 재학/졸업	(460)	4.6	48.0	32.0	15.4	52.6	47.4
	대학원 재학 이상	(25)	16.0	32.0	40.0	12.0	48.0	52.0
	모름/무응답	(3)	0.0	66.7	0.0	33.3	66.7	33.3
소득별	200만원 미만	(86)	3.5	32.6	25.6	38.4	36.0	64.0
	200-300만원 미만	(188)	2.7	41.0	33.5	22.9	43.6	56.4
	300-400만원 미만	(273)	3.7	40.3	36.3	19.8	44.0	56.0
	400-500만원 미만	(221)	5.0	46.6	29.0	19.5	51.6	48.4
	500-600만원 미만	(147)	3.4	52.4	32.0	12.2	55.8	44.2
	600-700만원 미만	(44)	6.8	38.6	40.9	13.6	45.5	54.5
	700만원 이상	(39)	5.1	53.8	23.1	17.9	59.0	41.0
	모름/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구분		사례수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인지	비인지
전체		(1,000)	3.9	43.3	32.2	20.6	47.2	52.8
대외원조 찬반	찬성	(800)	4.3	47.8	29.9	18.1	52.0	48.0
	반대	(200)	2.5	25.5	41.5	30.5	28.0	72.0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524)	4.0	43.5	30.9	21.6	47.5	52.5
	선진국 아님	(476)	3.8	43.1	33.6	19.5	46.8	53.2
원조인지	인지	(472)	8.3	91.7	0.0	0.0	100.0	0.0
	비인지	(528)	0.0	0.0	61.0	39.0	0.0	100.0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253)	6.7	51.8	30.4	11.1	58.5	41.5
	경험없음	(362)	2.2	43.9	34.8	19.1	46.1	53.9
원조참여 의사	있음	(483)	5.6	54.5	28.2	11.8	60.0	40.0
	없음	(517)	2.3	32.9	36.0	28.8	35.2	64.8
외국방문 경험	없음	(385)	3.6	37.1	30.9	28.3	40.8	59.2
	1-3회	(450)	2.4	44.7	34.7	18.2	47.1	52.9
	4-9회	(128)	7.8	55.5	28.1	8.6	63.3	36.7
	10회 이상	(37)	10.8	48.6	29.7	10.8	59.5	40.5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46)	7.7	57.3	26.4	8.5	65.0	35.0
	경험없음	(754)	2.7	38.7	34.1	24.5	41.4	58.6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43)	7.7	54.5	25.9	11.9	62.2	37.8
	경험없음	(857)	3.3	41.4	33.3	22.1	44.7	55.3

5. 저개발국 주민 지원활동 인식

-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기업)이 저개발국 주민을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47.9%(‘매우 잘 알고 있다’ 2.8%,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5.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함



■ 특성별 분석

- 우리나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의 저개발국 주민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지역별로 서울(63.8%), 소득별로 700만원 이상(76.9%), 원조제공 인지(83.7%), 저개발국 방문경험 있음(62.1%), 원조 참여 의사 있음(63.4%), 외국 방문경험 4회 이상(4-9회 66.4%, 10회 이상 64.9%), 금전적 기부 경험 있음(67.9%), 비금전적 기부경험 있음(62.2%)에서 비교적 높았음
- 비인지 비율은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75.7%), 광주/전라/제주(68.7%), 학력별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71.4%), 소득별로 200만원 미만(65.1%), 대외원조 반대(74.0%), 원조제공 비인지(84.1%), 원조참여 의사 없음(66.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5> 저개발국 주민 지원활동 인식

구분		사례수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인지	비인지
전체		(1,000)	2.8	45.1	34.3	17.8	47.9	52.1
성별	남성	(496)	3.8	50.0	33.1	13.1	53.8	46.2
	여성	(504)	1.8	40.3	35.5	22.4	42.1	57.9
연령별	19-29세	(179)	0.6	40.2	38.5	20.7	40.8	59.2
	30대	(183)	1.6	49.2	32.8	16.4	50.8	49.2
	40대	(208)	2.9	49.5	34.6	13.0	52.4	47.6
	50대	(198)	4.5	51.5	27.8	16.2	56.1	43.9
	60대 이상	(232)	3.9	36.2	37.5	22.4	40.1	59.9
지역별	서울	(199)	4.0	59.8	22.6	13.6	63.8	36.2
	인천/경기	(296)	4.1	47.0	35.5	13.5	51.0	49.0
	부산/울산/경남	(156)	1.9	44.2	33.3	20.5	46.2	53.8
	대구/경북/강원	(131)	1.5	50.4	33.6	14.5	51.9	48.1
	대전/세종/충청	(103)	1.0	23.3	40.8	35.0	24.3	75.7
	광주/전라/제주	(115)	1.7	29.6	47.8	20.9	31.3	68.7
지역 규모별	광역시	(453)	3.1	50.3	30.7	15.9	53.4	46.6
	중소도시	(466)	2.4	39.5	36.7	21.5	41.8	58.2
	군지역	(81)	3.7	48.1	40.7	7.4	51.9	48.1
직업별	화이트칼라	(236)	4.2	53.8	29.2	12.7	58.1	41.9
	블루칼라	(216)	1.9	37.0	44.0	17.1	38.9	61.1
	자영업	(197)	3.6	54.8	25.4	16.2	58.4	41.6
	전업주부	(200)	0.5	38.5	33.5	27.5	39.0	61.0
	학생	(89)	2.2	37.1	42.7	18.0	39.3	60.7
	농림어업	(9)	11.1	55.6	33.3	0.0	66.7	33.3
	무직/기타	(53)	5.7	39.6	39.6	15.1	45.3	54.7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	0.0	28.6	37.1	34.3	28.6	71.4
	중학교 졸업	(78)	2.6	37.2	39.7	20.5	39.7	60.3
	고등학교 졸업	(399)	1.3	39.3	36.1	23.3	40.6	59.4
	대학 재학/졸업	(460)	3.9	52.4	32.0	11.7	56.3	43.7
	대학원 재학 이상	(25)	12.0	48.0	32.0	8.0	60.0	40.0
	모름/무응답	(3)	0.0	66.7	0.0	33.3	66.7	33.3
소득별	200만원 미만	(86)	3.5	31.4	36.0	29.1	34.9	65.1
	200-300만원 미만	(188)	0.5	43.6	35.6	20.2	44.1	55.9
	300-400만원 미만	(273)	1.8	41.4	39.2	17.6	43.2	56.8
	400-500만원 미만	(221)	4.1	47.1	31.2	17.6	51.1	48.9
	500-600만원 미만	(147)	3.4	51.0	32.7	12.9	54.4	45.6
	600-700만원 미만	(44)	4.5	50.0	31.8	13.6	54.5	45.5
	700만원 이상	(39)	7.7	69.2	17.9	5.1	76.9	23.1
	모름/무응답	(2)	0.0	50.0	0.0	50.0	50.0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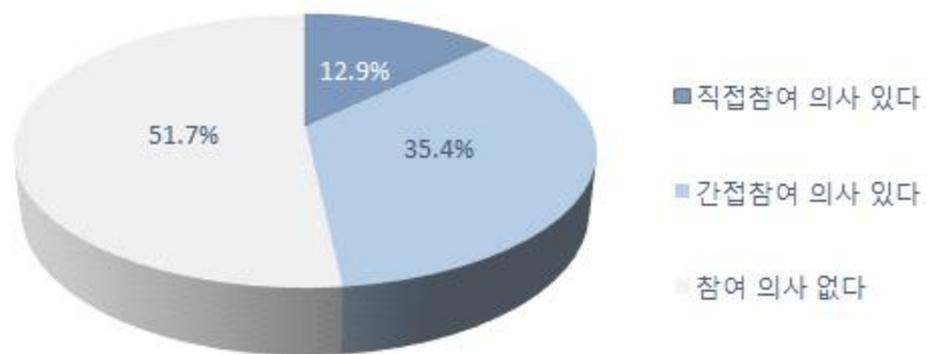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인지	비인지
전체		(1,000)	2.8	45.1	34.3	17.8	47.9	52.1
대외원조 찬반	찬성	(800)	3.4	50.0	31.9	14.8	53.4	46.6
	반대	(200)	0.5	25.5	44.0	30.0	26.0	74.0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524)	3.1	43.3	33.8	19.8	46.4	53.6
	선진국 아님	(476)	2.5	47.1	34.9	15.5	49.6	50.4
원조인지	인지	(472)	5.5	78.2	13.3	3.0	83.7	16.3
	비인지	(528)	0.4	15.5	53.0	31.1	15.9	84.1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253)	5.5	56.5	29.2	8.7	62.1	37.9
	경험없음	(362)	1.7	47.0	37.0	14.4	48.6	51.4
원조참여 의사	있음	(483)	4.6	58.8	27.3	9.3	63.4	36.6
	없음	(517)	1.2	32.3	40.8	25.7	33.5	66.5
외국방문 경험	없음	(385)	2.1	35.8	35.1	27.0	37.9	62.1
	1-3회	(450)	1.8	48.0	36.2	14.0	49.8	50.2
	4-9회	(128)	6.3	60.2	27.3	6.3	66.4	33.6
	10회 이상	(37)	10.8	54.1	27.0	8.1	64.9	35.1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46)	5.7	62.2	25.2	6.9	67.9	32.1
	경험없음	(754)	1.9	39.5	37.3	21.4	41.4	58.6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43)	4.2	58.0	26.6	11.2	62.2	37.8
	경험없음	(857)	2.6	42.9	35.6	18.9	45.5	54.5

6. 저개발국 지원 참여의사

-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개발국 경제·사회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48.3%('직접참여 의사 있다' 12.9%, '간접참여 의사 있다' 35.4%)로 나타남

<그림 I-6> 저개발국 지원 참여의사

(n=1,000, 단위: %)



■ 특성별 분석

- 저개발국 지원 활동에 대한 직접참여 의사는 소득별로 600-700만원 미만(29.5%), 외국 방문 경험 10회 이상(29.7%), 금전적 기부경험 있음(23.2%), 비금전적 기부경험 있음(28.0%)에서, 간접참여 의사는 지역별로 서울(45.7%), 소득별로 700만원 이상(48.7%), 외국 방문경험 4-9회(47.7%), 금전적 기부경험 있음(48.0%)에서 비교적 높았음
- '참여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60대 이상(66.8%),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67.8%), 학력별로 중학교 졸업(75.6%), 소득별로 200만원 미만(74.4%), 대외원조 반대(80.0%)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 I-6> 저개발국 지원 참여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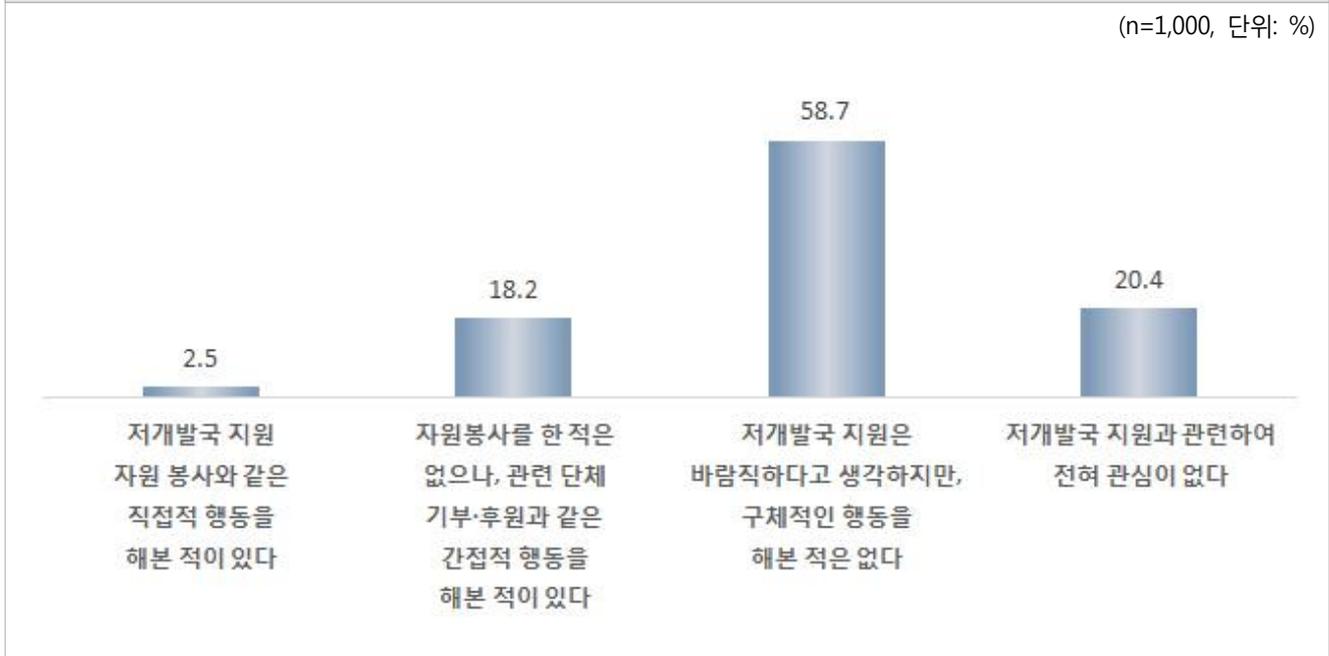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자원봉사와 같은 직접적 참여의사가 있다	기부 및 후원과 같은 간접적 참여의사가 있다	참여 의사가 없다
전체		(1,000)	12.9	35.4	51.7
성별	남성	(496)	12.7	34.3	53.0
	여성	(504)	13.1	36.5	50.4
연령별	19-29세	(179)	20.7	35.8	43.6
	30대	(183)	9.8	38.3	51.9
	40대	(208)	11.1	41.3	47.6
	50대	(198)	14.1	40.4	45.5
	60대 이상	(232)	9.9	23.3	66.8
지역별	서울	(199)	12.6	45.7	41.7
	인천/경기	(296)	19.9	31.8	48.3
	부산/울산/경남	(156)	6.4	42.9	50.6
	대구/경북/강원	(131)	12.2	32.1	55.7
	대전/세종/충청	(103)	8.7	32.0	59.2
	광주/전라/제주	(115)	8.7	23.5	67.8
지역 규모별	광역시	(453)	11.0	39.7	49.2
	중소도시	(466)	14.8	31.5	53.6
	군지역	(81)	12.3	33.3	54.3
직업별	화이트칼라	(236)	18.6	41.5	39.8
	블루칼라	(216)	9.3	34.3	56.5
	자영업	(197)	14.2	36.0	49.7
	전업주부	(200)	7.0	32.0	61.0
	학생	(89)	18.0	39.3	42.7
	농림어업	(9)	0.0	44.4	55.6
	무직/기타	(53)	13.2	15.1	71.7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	5.7	37.1	57.1
	중학교 졸업	(78)	5.1	19.2	75.6
	고등학교 졸업	(399)	10.5	30.8	58.6
	대학 재학/졸업	(460)	15.9	41.7	42.4
	대학원 재학 이상	(25)	24.0	44.0	32.0
	모름/무응답	(3)	66.7	0.0	33.3
소득별	200만원 미만	(86)	8.1	17.4	74.4
	200-300만원 미만	(188)	11.7	33.5	54.8
	300-400만원 미만	(273)	9.9	29.3	60.8
	400-500만원 미만	(221)	12.2	43.9	43.9
	500-600만원 미만	(147)	17.0	42.9	40.1
	600-700만원 미만	(44)	29.5	34.1	36.4
	700만원 이상	(39)	20.5	48.7	30.8
	모름/무응답	(2)	0.0	100.0	0.0

구분		사례수	자원봉사와 같은 직접적 참여의사가 있다	기부 및 후원과 같은 간접적 참여의사가 있다	참여 의사가 없다
전체		(1,000)	12.9	35.4	51.7
대외원조 찬반	찬성	(800)	14.9	40.5	44.6
	반대	(200)	5.0	15.0	80.0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524)	12.8	34.5	52.7
	선진국 아님	(476)	13.0	36.3	50.6
원조인지	인지	(472)	16.7	44.7	38.6
	비인지	(528)	9.5	27.1	63.4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253)	18.2	41.9	39.9
	경험없음	(362)	11.3	36.2	52.5
원조참여 의사	있음	(483)	26.7	73.3	0.0
	없음	(517)	0.0	0.0	100.0
외국방문 경험	없음	(385)	10.9	30.4	58.7
	1-3회	(450)	12.7	36.4	50.9
	4-9회	(128)	14.8	47.7	37.5
	10회 이상	(37)	29.7	32.4	37.8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46)	23.2	48.0	28.9
	경험없음	(754)	9.5	31.3	59.2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43)	28.0	42.7	29.4
	경험없음	(857)	10.4	34.2	55.4

7. 저개발국 지원과 관련한 행동 및 의견

- 저개발국을 돕기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저개발국 지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을 해본 적은 없다'(58.7%)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저개발국 지원과 관련하여 전혀 관심이 없다'(20.4%), '자원봉사를 한 적은 없으나, 관련 단체 기부·후원과 같은 간접적 행동을 해본 적이 있다'(18.2%) 등의 순이었음

<그림 I-7> 저개발국 지원과 관련한 행동 및 의견



■ 특성별 분석

- '저개발국 지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 행동을 해본 적은 없다' 응답은 연령별로 50대(66.2%), 지역별로 인천/경기(65.2%), 소득별로 700만원 이상(71.8%), 원조참여 의사 있음(65.8%)에서 다소 높았음
- 저개발국 지원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행동한 경험은 외국 방문경험 10회 이상(각 10.8%, 37.8%)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7> 저개발국 지원과 관련한 행동 및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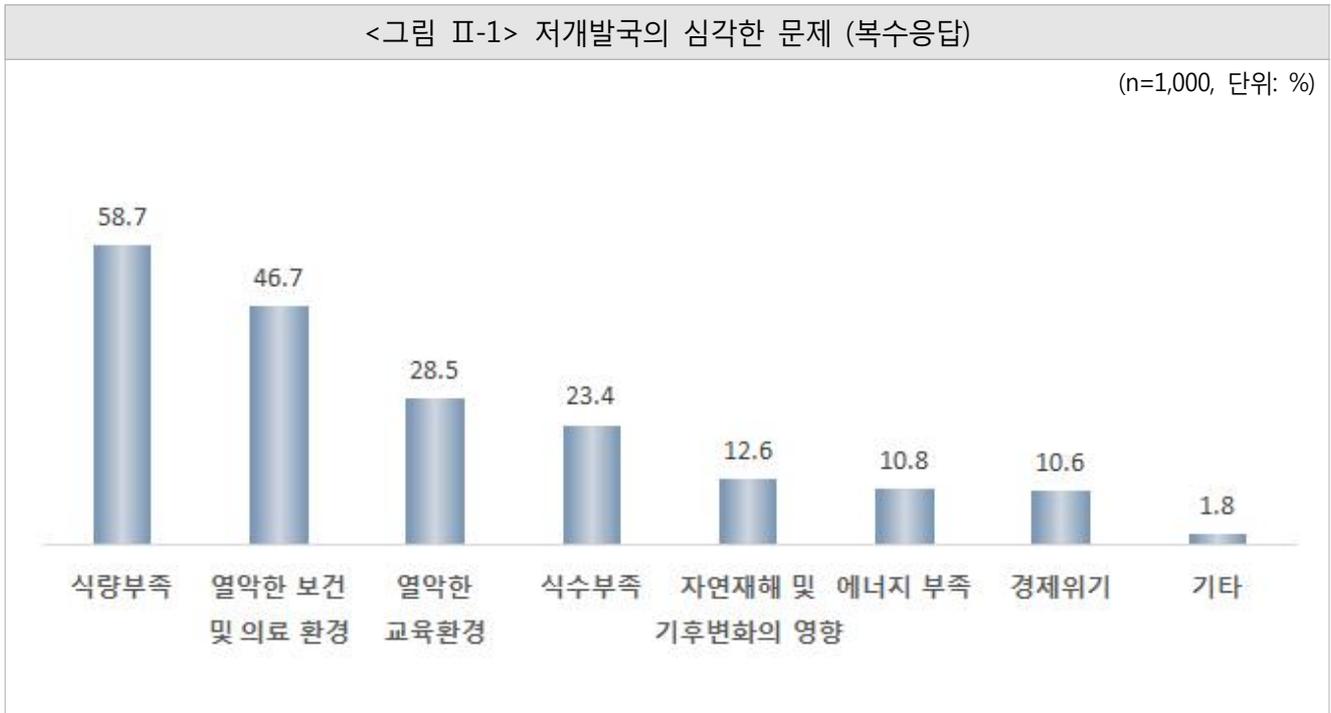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저개발국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직접적 행동을 해본 적이 있다	기부나 후원과 같은 간접적 행동을 해본 적이 있다	저개발국 지원은 바람직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을 해본 적은 없다	저개발국 지원과 관련하여 전혀 관심이 없다	기타	
전체	(1,000)	2.5	18.2	58.7	20.4	0.2	
성별	남성	(496)	2.8	18.8	58.1	20.4	0.0
	여성	(504)	2.2	17.7	59.3	20.4	0.4
연령별	19-29세	(179)	2.8	20.7	58.7	17.9	0.0
	30대	(183)	3.3	18.0	54.6	23.0	1.1
	40대	(208)	2.4	17.8	59.6	20.2	0.0
	50대	(198)	2.0	18.2	66.2	13.6	0.0
	60대 이상	(232)	2.2	16.8	54.7	26.3	0.0
지역별	서울	(199)	3.5	22.1	59.3	15.1	0.0
	인천/경기	(296)	2.7	14.9	65.2	16.9	0.3
	부산/울산/경남	(156)	0.0	14.1	57.7	28.2	0.0
	대구/경북/강원	(131)	3.1	17.6	62.6	16.8	0.0
	대전/세종/충청	(103)	1.9	21.4	56.3	20.4	0.0
	광주/전라/제주	(115)	3.5	23.5	40.0	32.2	0.9
지역 규모별	광역시	(453)	2.4	19.6	57.0	21.0	0.0
	중소도시	(466)	3.0	17.6	60.5	18.5	0.4
	군지역	(81)	0.0	13.6	58.0	28.4	0.0
직업별	화이트칼라	(236)	4.2	19.9	58.1	17.4	0.4
	블루칼라	(216)	1.9	14.4	62.0	21.8	0.0
	자영업	(197)	2.5	17.3	61.9	17.8	0.5
	전업주부	(200)	2.0	18.5	55.0	24.5	0.0
	학생	(89)	2.2	25.8	56.2	15.7	0.0
	농림어업	(9)	0.0	0.0	77.8	22.2	0.0
	무직/기타	(53)	0.0	18.9	50.9	30.2	0.0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	0.0	14.3	57.1	28.6	0.0
	중학교 졸업	(78)	1.3	10.3	61.5	26.9	0.0
	고등학교 졸업	(399)	1.8	15.8	58.9	23.3	0.3
	대학 재학/졸업	(460)	2.6	22.2	58.0	17.0	0.2
	대학원 재학 이상	(25)	20.0	16.0	56.0	8.0	0.0
	모름/무응답	(3)	0.0	0.0	100.0	0.0	0.0
소득별	200만원 미만	(86)	1.2	14.0	48.8	36.0	0.0
	200-300만원 미만	(188)	1.6	17.6	60.1	20.2	0.5
	300-400만원 미만	(273)	1.8	21.6	55.3	21.2	0.0
	400-500만원 미만	(221)	1.8	19.0	59.3	19.9	0.0
	500-600만원 미만	(147)	6.1	15.0	63.3	15.0	0.7
	600-700만원 미만	(44)	4.5	18.2	61.4	15.9	0.0
	700만원 이상	(39)	2.6	15.4	71.8	10.3	0.0
	모름/무응답	(2)	0.0	0.0	100.0	0.0	0.0

구분	사례수	저개발국 지원봉사 직접적 행동을 해본 적이 있다	기부나 후원과 같은 간접적 행동을 해본 적이 있다	저개발국 지원은 바람직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을 해본 적은 없다	저개발국 지원과 관련하여 전혀 관심이 없다	기타	
전체	(1,000)	2.5	18.2	58.7	20.4	0.2	
대외원조 찬반	찬성	(800)	2.4	20.0	62.6	15.0	0.0
	반대	(200)	3.0	11.0	43.0	42.0	1.0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524)	2.9	17.9	57.4	21.8	0.0
	선진국 아님	(476)	2.1	18.5	60.1	18.9	0.4
원조인지	인지	(472)	3.4	23.5	60.0	12.9	0.2
	비인지	(528)	1.7	13.4	57.6	27.1	0.2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253)	5.9	25.3	55.3	13.4	0.0
	경험없음	(362)	1.4	22.4	58.0	18.0	0.3
원조참여 의사	있음	(483)	3.9	27.1	65.8	3.1	0.0
	없음	(517)	1.2	9.9	52.0	36.6	0.4
외국방문 경험	없음	(385)	1.3	9.6	61.6	27.3	0.3
	1-3회	(450)	1.8	20.9	58.4	18.9	0.0
	4-9회	(128)	6.3	28.9	54.7	9.4	0.8
	10회 이상	(37)	10.8	37.8	45.9	5.4	0.0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46)	5.3	38.2	48.8	7.3	0.4
	경험없음	(754)	1.6	11.7	61.9	24.7	0.1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43)	6.3	30.8	48.3	14.7	0.0
	경험없음	(857)	1.9	16.1	60.4	21.4	0.2

II. 대외원조의 중요성 및 원조동기 인식

1. 저개발국의 심각한 문제

- 현재 저개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식량부족' 응답이 58.7%로 가장 많았으며, '열악한 보건 및 의료 환경'(46.7%) 응답률도 높았음
- 다음으로 '열악한 교육환경'(28.5%), '식수부족'(23.4%) 등이 뒤를 이음



■ 특성별 분석

- '식량부족'이 현재 저개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60대 이상(65.1%), 학력별로 중학교 졸업 이하(초등학교 졸업 이하 68.6%, 중학교 졸업 67.9%), 소득별로 200만원 미만(70.9%)에서 다소 높았음
- 열악한 보건 및 의료환경은 지역별로 인천/경기(55.7%), 직업별로 학생(55.1%), 소득별로 700만원 이상(61.5%), 외국 방문경험 10회 이상(56.8%)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I-1> 저개발국의 심각한 문제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식량부족	열악한 보건 및 의료환경	열악한 교육환경	식수부족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에너지 부족	경제위기	기타
전체		(1,000)	58.7	46.7	28.5	23.4	12.6	10.8	10.6	1.8
성별	남성	(496)	56.9	47.8	27.6	23.2	12.1	12.1	11.1	1.6
	여성	(504)	60.5	45.6	29.4	23.6	13.1	9.5	10.1	2.0
연령별	19-29세	(179)	54.2	47.5	34.6	21.8	16.2	7.8	8.9	3.4
	30대	(183)	53.6	47.0	29.0	24.6	13.7	12.0	12.6	0.5
	40대	(208)	58.2	44.7	26.9	21.6	13.0	13.9	13.5	1.4
	50대	(198)	60.6	48.0	27.8	21.2	11.1	10.1	10.6	3.0
	60대 이상	(232)	65.1	46.6	25.4	27.2	9.9	9.9	7.8	0.9
지역별	서울	(199)	62.8	44.2	28.6	27.6	6.0	10.1	11.6	3.5
	인천/경기	(296)	55.1	55.7	20.9	25.0	10.8	7.1	9.1	3.0
	부산/울산/경남	(156)	64.1	41.0	30.8	26.9	20.5	7.7	6.4	0.6
	대구/경북/강원	(131)	61.1	43.5	32.1	22.9	5.3	18.3	11.5	0.0
	대전/세종/충청	(103)	61.2	54.4	23.3	11.7	18.4	8.7	18.4	1.0
	광주/전라/제주	(115)	48.7	32.2	45.2	18.3	20.9	19.1	10.4	0.0
지역 규모별	광역시	(453)	58.7	44.8	29.4	23.6	13.7	11.3	9.9	1.8
	중소도시	(466)	59.0	51.3	26.0	23.6	12.4	8.6	10.7	1.5
	군지역	(81)	56.8	30.9	38.3	21.0	7.4	21.0	13.6	3.7
직업별	화이트칼라	(236)	52.1	49.2	28.8	19.1	14.0	12.3	12.7	2.5
	블루칼라	(216)	58.3	40.3	30.1	26.9	14.4	13.0	10.6	0.5
	자영업	(197)	60.9	48.7	25.9	23.4	8.1	11.2	12.2	2.5
	전업주부	(200)	62.5	49.5	28.0	24.0	15.0	6.5	8.5	1.0
	학생	(89)	49.4	55.1	37.1	21.3	11.2	10.1	9.0	1.1
	농림어업	(9)	77.8	22.2	33.3	22.2	22.2	22.2	0.0	0.0
	무직/기타	(53)	79.2	34.0	17.0	30.2	7.5	9.4	7.5	5.7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	68.6	40.0	17.1	37.1	17.1	11.4	5.7	0.0
	중학교 졸업	(78)	67.9	42.3	26.9	25.6	7.7	9.0	12.8	1.3
	고등학교 졸업	(399)	62.7	45.4	28.1	25.8	10.3	11.3	9.5	1.0
	대학 재학/졸업	(460)	53.7	48.9	29.6	19.3	15.2	10.9	11.7	2.6
	대학원 재학 이상	(25)	44.0	52.0	40.0	28.0	12.0	4.0	8.0	4.0
	모름/무응답	(3)	66.7	33.3	0.0	66.7	0.0	33.3	0.0	0.0
소득별	200만원 미만	(86)	70.9	44.2	18.6	30.2	8.1	11.6	8.1	3.5
	200-300만원 미만	(188)	55.9	50.0	27.1	20.2	12.2	11.7	11.7	4.3
	300-400만원 미만	(273)	56.8	42.9	33.7	24.2	12.5	7.3	12.8	1.5
	400-500만원 미만	(221)	59.3	43.0	28.1	25.3	14.0	12.2	12.2	0.0
	500-600만원 미만	(147)	61.9	52.4	27.2	20.4	11.6	12.9	6.8	0.7
	600-700만원 미만	(44)	47.7	47.7	29.5	20.5	18.2	20.5	4.5	2.3
	700만원 이상	(39)	56.4	61.5	28.2	20.5	15.4	2.6	7.7	2.6
	모름/무응답	(2)	50.0	50.0	0.0	50.0	0.0	0.0	0.0	0.0

구분		사례수	식량부족	열악한 보건 및 의료환경	열악한 교육환경	식수부족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에너지 부족	경제위기	기타
전체		(1,000)	58.7	46.7	28.5	23.4	12.6	10.8	10.6	1.8
대외원조 찬반	찬성	(800)	58.1	47.3	29.1	23.4	11.8	10.8	11.0	2.0
	반대	(200)	61.0	44.5	26.0	23.5	16.0	11.0	9.0	1.0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524)	59.9	44.7	31.5	23.5	11.8	10.3	10.5	1.3
	선진국 아님	(476)	57.4	48.9	25.2	23.3	13.4	11.3	10.7	2.3
원조인지	인지	(472)	57.4	49.6	27.3	23.7	10.8	11.7	9.5	2.1
	비인지	(528)	59.8	44.1	29.5	23.1	14.2	10.0	11.6	1.5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253)	47.8	53.8	32.8	18.6	11.1	13.8	9.5	3.2
	경험없음	(362)	60.2	46.1	29.3	25.7	12.4	9.4	9.7	1.4
원조참여 의사	있음	(483)	55.1	50.1	27.1	23.0	13.3	12.2	9.7	2.1
	없음	(517)	62.1	43.5	29.8	23.8	12.0	9.5	11.4	1.5
외국방문 경험	없음	(385)	64.4	42.6	24.9	24.4	13.8	10.1	12.2	1.3
	1-3회	(450)	57.6	47.1	29.8	24.2	11.8	10.7	10.2	1.6
	4-9회	(128)	47.7	54.7	35.2	16.4	14.8	12.5	8.6	2.3
	10회 이상	(37)	51.4	56.8	27.0	27.0	2.7	13.5	5.4	8.1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46)	53.7	54.1	30.5	19.9	10.6	10.6	11.0	4.1
	경험없음	(754)	60.3	44.3	27.9	24.5	13.3	10.9	10.5	1.1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43)	56.6	49.0	32.9	17.5	7.0	15.4	12.6	3.5
	경험없음	(857)	59.0	46.3	27.8	24.4	13.5	10.0	10.3	1.5

2. 국제사회의 저개발국 지원 중요성

- 국제사회가 저개발국의 빈곤층을 돕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이(84.4% : '매우 중요하다' 15.9%, '중요한 편이다' 68.5%)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2> 국제사회의 저개발국 지원 중요성

(n=1,000, 단위: %)



■ 특성별 분석

- 국제사회가 저개발국의 빈곤층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지역별로 서울(91.5%), 소득이 높을수록(700만원 이상 92.3%), 대외원조 찬성(93.3%), 외국 방문경험이 많을수록(10회 이상 91.9%), 금전적 기부경험 있음(93.9%)에서 다소 높았음
-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25.0%), 광주/전라/제주(25.2%), 학력별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31.4%), 대외원조 반대(51.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I-2> 국제사회의 저개발국 지원 중요성

구분		사례수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전체		(1,000)	15.9	68.5	14.0	1.6	84.4	15.6
성별	남성	(496)	17.1	67.5	14.1	1.2	84.7	15.3
	여성	(504)	14.7	69.4	13.9	2.0	84.1	15.9
연령별	19-29세	(179)	13.4	72.1	14.0	0.6	85.5	14.5
	30대	(183)	13.1	71.0	14.8	1.1	84.2	15.8
	40대	(208)	18.3	66.8	13.0	1.9	85.1	14.9
	50대	(198)	18.7	67.7	11.1	2.5	86.4	13.6
	60대 이상	(232)	15.5	65.9	16.8	1.7	81.5	18.5
지역별	서울	(199)	24.6	66.8	8.5	0.0	91.5	8.5
	인천/경기	(296)	25.0	63.9	10.8	0.3	88.9	11.1
	부산/울산/경남	(156)	5.8	69.2	23.1	1.9	75.0	25.0
	대구/경북/강원	(131)	10.7	76.3	9.9	3.1	87.0	13.0
	대전/세종/충청	(103)	6.8	72.8	19.4	1.0	79.6	20.4
	광주/전라/제주	(115)	5.2	69.6	19.1	6.1	74.8	25.2
지역 규모별	광역시	(453)	14.6	70.4	14.1	0.9	85.0	15.0
	중소도시	(466)	17.2	67.8	12.7	2.4	85.0	15.0
	군지역	(81)	16.0	61.7	21.0	1.2	77.8	22.2
직업별	화이트칼라	(236)	18.2	71.6	9.7	0.4	89.8	10.2
	블루칼라	(216)	13.4	64.4	19.9	2.3	77.8	22.2
	자영업	(197)	18.3	65.0	14.2	2.5	83.2	16.8
	전업주부	(200)	12.0	73.0	12.5	2.5	85.0	15.0
	학생	(89)	16.9	74.2	9.0	0.0	91.0	9.0
	농림어업	(9)	11.1	66.7	22.2	0.0	77.8	22.2
	무직/기타	(53)	20.8	58.5	20.8	0.0	79.2	20.8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	11.4	57.1	28.6	2.9	68.6	31.4
	중학교 졸업	(78)	10.3	65.4	20.5	3.8	75.6	24.4
	고등학교 졸업	(399)	14.3	67.9	16.5	1.3	82.2	17.8
	대학 재학/졸업	(460)	15.9	72.6	10.2	1.3	88.5	11.5
	대학원 재학 이상	(25)	60.0	36.0	4.0	0.0	96.0	4.0
	모름/무응답	(3)	66.7	0.0	0.0	33.3	66.7	33.3
소득별	200만원 미만	(86)	12.8	64.0	23.3	0.0	76.7	23.3
	200-300만원 미만	(188)	15.4	66.0	17.0	1.6	81.4	18.6
	300-400만원 미만	(273)	13.6	68.1	14.3	4.0	81.7	18.3
	400-500만원 미만	(221)	14.5	72.9	12.2	0.5	87.3	12.7
	500-600만원 미만	(147)	18.4	70.7	10.2	0.7	89.1	10.9
	600-700만원 미만	(44)	31.8	59.1	9.1	0.0	90.9	9.1
	700만원 이상	(39)	23.1	69.2	7.7	0.0	92.3	7.7
	모름/무응답	(2)	0.0	100.0	0.0	0.0	100.0	0.0

구분		사례수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전체		(1,000)	15.9	68.5	14.0	1.6	84.4	15.6
대외원조 찬반	찬성	(800)	19.5	73.8	6.6	0.1	93.3	6.8
	반대	(200)	1.5	47.5	43.5	7.5	49.0	51.0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524)	16.2	68.5	13.7	1.5	84.7	15.3
	선진국 아님	(476)	15.5	68.5	14.3	1.7	84.0	16.0
원조인지	인지	(472)	22.2	67.4	9.3	1.1	89.6	10.4
	비인지	(528)	10.2	69.5	18.2	2.1	79.7	20.3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253)	25.7	63.6	9.9	0.8	89.3	10.7
	경험없음	(362)	15.5	69.9	13.0	1.7	85.4	14.6
원조참여 의사	있음	(483)	24.8	66.5	7.2	1.4	91.3	8.7
	없음	(517)	7.5	70.4	20.3	1.7	77.9	22.1
외국방문 경험	없음	(385)	9.9	70.4	17.7	2.1	80.3	19.7
	1-3회	(450)	16.4	69.6	12.4	1.6	86.0	14.0
	4-9회	(128)	27.3	61.7	10.2	0.8	89.1	10.9
	10회 이상	(37)	32.4	59.5	8.1	0.0	91.9	8.1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46)	31.3	62.6	5.7	0.4	93.9	6.1
	경험없음	(754)	10.9	70.4	16.7	2.0	81.3	18.7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43)	30.8	57.3	11.2	0.7	88.1	11.9
	경험없음	(857)	13.4	70.4	14.5	1.8	83.8	16.2

3. 선진국의 저개발국 원조 이유

-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이 저개발국에 다양한 원조를 제공하는 주된 이유는 '국제적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해'라는 응답이 54.3%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도의적 책임 때문에'(41.7%), '저개발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2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성별 분석

- 선진국들이 저개발국에 원조를 하는 이유로 '국제적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서울(65.3%), 소득별로 700만원 이상(66.7%), 외국 방문경험 10회 이상(62.2%), 금전적 기부경험 있음(66.3%)에서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임
-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도의적 책임 때문에'는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55.7%), 학력별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51.4%), 외국 방문경험 4-9회(52.3%)에서 다소 높았음

<표 II-3> 선진국의 저개발국 원조 이유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국제적 평화와 안정유지 위해	국제사회 일원으로 도의적 책임 때문에	저개발국 경제·사회 발전 위해	수출확대 등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저개발국 과의 외교관계 강화를 위해	저개발 민주화 발전 위해	저개발국 지원 요청에 응하기 위해	기타	
전체	(1,000)	54.3	41.7	28.4	24.7	22.9	15.4	8.3	0.4	
성별	남성	(496)	50.0	42.3	26.6	27.8	25.0	15.5	8.1	0.6
	여성	(504)	58.5	41.1	30.2	21.6	20.8	15.3	8.5	0.2
연령별	19-29세	(179)	55.9	37.4	22.3	26.8	24.0	17.9	11.2	0.6
	30대	(183)	54.6	44.3	28.4	25.7	24.0	12.6	7.1	0.0
	40대	(208)	52.9	39.4	31.3	24.0	27.9	15.4	5.8	0.5
	50대	(198)	58.1	41.9	30.3	22.2	21.2	15.2	7.6	0.0
	60대 이상	(232)	50.9	44.8	28.9	25.0	18.1	15.9	9.9	0.9
지역별	서울	(199)	65.3	36.2	35.7	21.1	16.6	11.6	9.0	1.5
	인천/경기	(296)	60.5	39.2	26.0	30.1	22.6	8.8	5.1	0.0
	부산/울산/경남	(156)	55.8	44.9	21.2	21.8	25.6	14.7	13.5	0.6
	대구/경북/강원	(131)	52.7	45.0	29.8	20.6	19.1	22.9	7.6	0.0
	대전/세종/충청	(103)	22.3	35.0	35.9	31.1	36.9	26.2	11.7	0.0
	광주/전라/제주	(115)	47.8	55.7	23.5	20.0	22.6	21.7	6.1	0.0
지역 규모별	광역시	(453)	58.3	40.0	31.1	22.5	18.3	15.5	8.6	0.9
	중소도시	(466)	53.9	44.8	26.6	26.4	24.2	13.9	6.4	0.0
	군지역	(81)	34.6	33.3	23.5	27.2	40.7	23.5	17.3	0.0
직업별	화이트칼라	(236)	53.8	43.6	23.3	28.8	20.3	17.8	6.8	0.4
	블루칼라	(216)	55.6	40.3	19.4	25.9	28.2	14.8	11.1	0.9
	자영업	(197)	54.3	40.6	38.6	22.8	20.3	12.2	7.6	0.5
	전업주부	(200)	55.5	44.5	34.5	18.5	21.5	14.5	8.0	0.0
	학생	(89)	55.1	38.2	28.1	24.7	25.8	18.0	6.7	0.0
	농림어업	(9)	33.3	44.4	33.3	22.2	33.3	11.1	11.1	0.0
	무직/기타	(53)	49.1	37.7	26.4	32.1	20.8	18.9	9.4	0.0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	42.9	51.4	28.6	20.0	17.1	25.7	11.4	0.0
	중학교 졸업	(78)	43.6	39.7	30.8	25.6	23.1	20.5	11.5	1.3
	고등학교 졸업	(399)	53.9	38.1	28.3	25.1	27.3	15.5	7.8	0.5
	대학 재학/졸업	(460)	57.2	43.9	27.8	25.0	19.8	14.3	7.4	0.2
	대학원 재학 이상	(25)	60.0	48.0	28.0	20.0	16.0	4.0	20.0	0.0
	모름/무응답	(3)	33.3	66.7	66.7	0.0	33.3	0.0	0.0	0.0
소득별	200만원 미만	(86)	45.3	43.0	34.9	14.0	19.8	24.4	15.1	0.0
	200-300만원 미만	(188)	55.3	35.6	27.7	28.2	22.3	14.4	11.2	1.6
	300-400만원 미만	(273)	53.1	42.5	27.1	25.3	26.0	16.1	7.0	0.4
	400-500만원 미만	(221)	53.4	41.6	33.0	25.8	21.3	14.5	6.8	0.0
	500-600만원 미만	(147)	61.2	44.9	26.5	19.7	23.8	12.2	7.5	0.0
	600-700만원 미만	(44)	43.2	47.7	25.0	34.1	22.7	11.4	4.5	0.0
	700만원 이상	(39)	66.7	46.2	12.8	30.8	15.4	17.9	5.1	0.0
	모름/무응답	(2)	100.0	0.0	0.0	0.0	50.0	0.0	0.0	0.0

구분		사례수	국제적 평화와 안정유지 위해	국제사회 일원으로 도이적 책임 때문에	저개발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수출확대 등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저개발국 과의 외교관계 강화를 위해	저개발 민주화 발전 위해	저개발국 지원 요청에 응하기 위해	기타
전체		(1,000)	54.3	41.7	28.4	24.7	22.9	15.4	8.3	0.4
대외원조 찬반	찬성	(800)	58.0	42.6	28.4	22.8	20.4	15.3	7.8	0.5
	반대	(200)	39.5	38.0	28.5	32.5	33.0	16.0	10.5	0.0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524)	52.9	44.5	27.9	21.4	24.4	16.6	7.6	0.6
	선진국 아님	(476)	55.9	38.7	29.0	28.4	21.2	14.1	9.0	0.2
원조인지	인지	(472)	57.2	42.2	29.7	22.0	21.8	15.0	7.2	0.4
	비인지	(528)	51.7	41.3	27.3	27.1	23.9	15.7	9.3	0.4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253)	59.3	44.3	30.4	21.3	17.0	14.2	7.1	0.8
	경험없음	(362)	55.0	42.3	29.3	21.8	24.9	16.3	6.9	0.0
원조참여 의사	있음	(483)	58.2	46.6	27.7	22.8	17.8	15.3	7.0	0.8
	없음	(517)	50.7	37.1	29.0	26.5	27.7	15.5	9.5	0.0
외국방문 경험	없음	(385)	50.4	39.5	26.2	29.6	24.9	15.3	10.4	0.5
	1-3회	(450)	56.2	40.0	28.9	23.6	23.3	16.4	7.1	0.4
	4-9회	(128)	57.0	52.3	33.6	15.6	17.2	14.1	5.5	0.0
	10회 이상	(37)	62.2	48.6	27.0	18.9	16.2	8.1	10.8	0.0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46)	66.3	41.1	24.8	27.2	18.3	11.8	5.3	0.4
	경험없음	(754)	50.4	41.9	29.6	23.9	24.4	16.6	9.3	0.4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43)	59.4	41.3	25.9	23.1	23.8	16.1	6.3	0.0
	경험없음	(857)	53.4	41.8	28.8	25.0	22.8	15.3	8.6	0.5

4. 한국의 수원 경험 인식

- 우리나라가 1950년대 이후 수십 년간 국제사회의 대외원조를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64.0%('매우 잘 알고 있다' 18.1%,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5.9%)로, 과반으로 나타남



■ 특성별 분석

- 과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대외원조를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서울(79.4%), 소득별로 600만원 이상(600-700만원 미만 79.5%, 700만원 이상 87.2%), 원조제공 인지(86.9%), 외국 방문경험 10회 이상(89.2%), 금전적 기부경험 있음(82.9%)에서 비교적 많았음
- '모른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66.0%), 광주/전라/제주(58.3%), 대외원조 반대(59.5%), 원조제공 비인지(56.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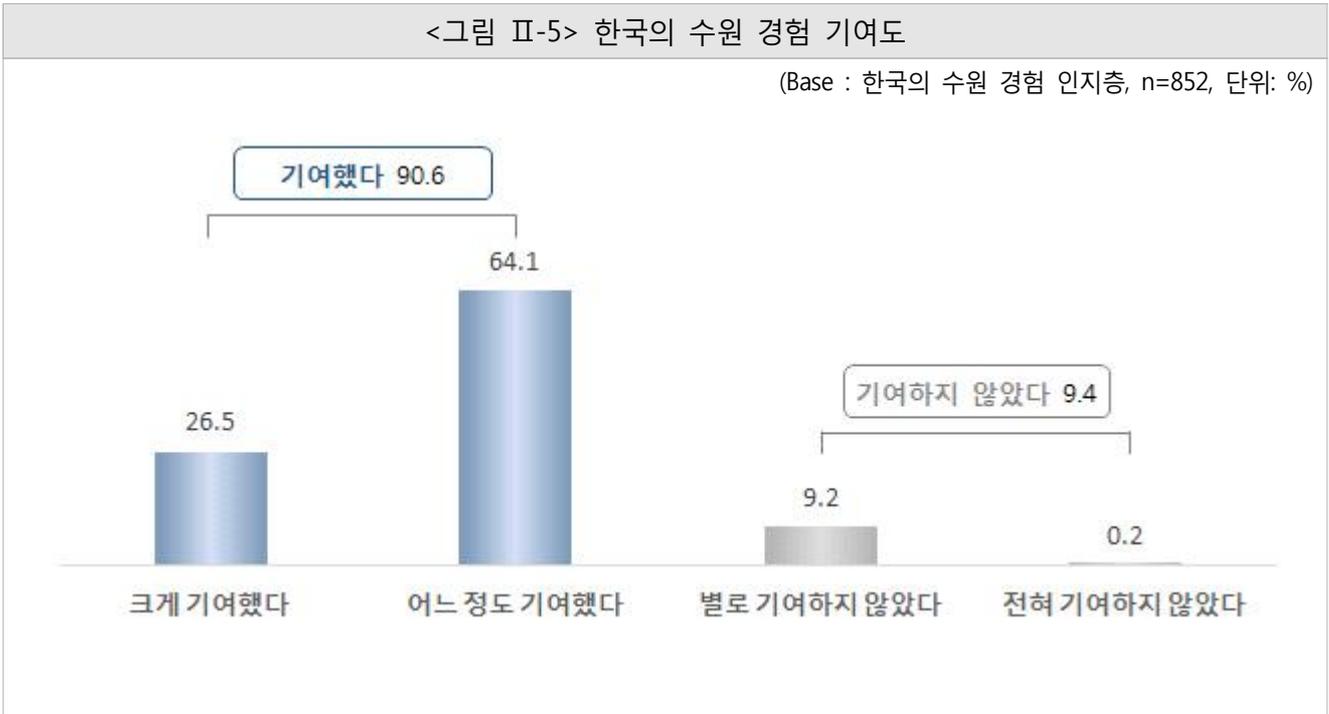
<표 II-4> 한국의 수원 경험 인식

구분		사례수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인지	비인지
전체		(1,000)	18.1	45.9	21.2	14.8	64.0	36.0
성별	남성	(496)	20.6	47.6	20.8	11.1	68.1	31.9
	여성	(504)	15.7	44.2	21.6	18.5	59.9	40.1
연령별	19-29세	(179)	7.8	38.5	31.3	22.3	46.4	53.6
	30대	(183)	10.9	51.9	24.6	12.6	62.8	37.2
	40대	(208)	15.4	51.9	21.6	11.1	67.3	32.7
	50대	(198)	21.7	51.0	16.7	10.6	72.7	27.3
	60대 이상	(232)	31.0	37.1	14.2	17.7	68.1	31.9
지역별	서울	(199)	28.1	51.3	10.6	10.1	79.4	20.6
	인천/경기	(296)	25.0	47.0	20.6	7.4	72.0	28.0
	부산/울산/경남	(156)	14.7	42.3	25.0	17.9	57.1	42.9
	대구/경북/강원	(131)	13.7	60.3	12.2	13.7	74.0	26.0
	대전/세종/충청	(103)	5.8	28.2	26.2	39.8	34.0	66.0
	광주/전라/제주	(115)	3.5	38.3	41.7	16.5	41.7	58.3
지역 규모별	광역시	(453)	20.1	53.9	16.6	9.5	74.0	26.0
	중소도시	(466)	16.3	37.8	25.1	20.8	54.1	45.9
	군지역	(81)	17.3	48.1	24.7	9.9	65.4	34.6
직업별	화이트칼라	(236)	16.9	54.2	18.6	10.2	71.2	28.8
	블루칼라	(216)	13.0	41.2	32.9	13.0	54.2	45.8
	자영업	(197)	26.4	51.3	12.2	10.2	77.7	22.3
	전업주부	(200)	17.5	39.0	20.5	23.0	56.5	43.5
	학생	(89)	9.0	40.4	32.6	18.0	49.4	50.6
	농림어업	(9)	11.1	77.8	11.1	0.0	88.9	11.1
	무직/기타	(53)	32.1	37.7	3.8	26.4	69.8	30.2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	20.0	42.9	11.4	25.7	62.9	37.1
	중학교 졸업	(78)	28.2	33.3	14.1	24.4	61.5	38.5
	고등학교 졸업	(399)	16.3	43.9	23.3	16.5	60.2	39.8
	대학 재학/졸업	(460)	16.7	49.6	22.2	11.5	66.3	33.7
	대학원 재학 이상	(25)	36.0	56.0	8.0	0.0	92.0	8.0
	모름/무응답	(3)	33.3	33.3	0.0	33.3	66.7	33.3
소득별	200만원 미만	(86)	17.4	39.5	11.6	31.4	57.0	43.0
	200-300만원 미만	(188)	22.3	37.2	18.6	21.8	59.6	40.4
	300-400만원 미만	(273)	13.9	44.0	27.8	14.3	57.9	42.1
	400-500만원 미만	(221)	17.6	48.4	20.8	13.1	66.1	33.9
	500-600만원 미만	(147)	21.8	49.7	22.4	6.1	71.4	28.6
	600-700만원 미만	(44)	20.5	59.1	18.2	2.3	79.5	20.5
	700만원 이상	(39)	15.4	71.8	7.7	5.1	87.2	12.8
	모름/무응답	(2)	0.0	50.0	50.0	0.0	50.0	50.0

구분		사례수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인지	비인지
전체		(1,000)	18.1	45.9	21.2	14.8	64.0	36.0
대외원조 찬반	찬성	(800)	21.3	48.6	19.3	10.9	69.9	30.1
	반대	(200)	5.5	35.0	29.0	30.5	40.5	59.5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524)	19.3	45.4	19.8	15.5	64.7	35.3
	선진국 아님	(476)	16.8	46.4	22.7	14.1	63.2	36.8
원조인지	인지	(472)	27.8	59.1	11.0	2.1	86.9	13.1
	비인지	(528)	9.5	34.1	30.3	26.1	43.6	56.4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253)	29.6	45.5	18.6	6.3	75.1	24.9
	경험없음	(362)	16.3	51.4	21.5	10.8	67.7	32.3
원조참여 의사	있음	(483)	25.3	46.8	18.2	9.7	72.0	28.0
	없음	(517)	11.4	45.1	24.0	19.5	56.5	43.5
외국방문 경험	없음	(385)	12.2	41.0	22.6	24.2	53.2	46.8
	1-3회	(450)	17.8	49.3	22.9	10.0	67.1	32.9
	4-9회	(128)	28.1	50.0	14.8	7.0	78.1	21.9
	10회 이상	(37)	48.6	40.5	8.1	2.7	89.2	10.8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46)	33.7	49.2	13.4	3.7	82.9	17.1
	경험없음	(754)	13.0	44.8	23.7	18.4	57.8	42.2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43)	29.4	45.5	20.3	4.9	74.8	25.2
	경험없음	(857)	16.2	46.0	21.4	16.5	62.2	37.8

5. 한국의 수원 경험 기여도

- 과거 국제사회의 원조가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90.6%('크게 기여했다' 26.5%, '어느 정도 기여했다' 64.1%)로, 대부분의 응답자는 우리나라의 수원 경험 기여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성별 분석

- 과거 국제사회의 원조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지역별로 대구/경북/강원(95.6%), 학력별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96.2%), 소득별로 600-700만원 미만(95.3%), 원조제공 인지(94.8%), 외국 방문경험 4-9회(95.0%)에서 다소 많았음
- 반면 '기여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18.8%)과 광주/전라/제주(17.7%), 대외원조 반대(24.5%)에서 비교적 많았음

<표 II-5> 한국의 수원 경험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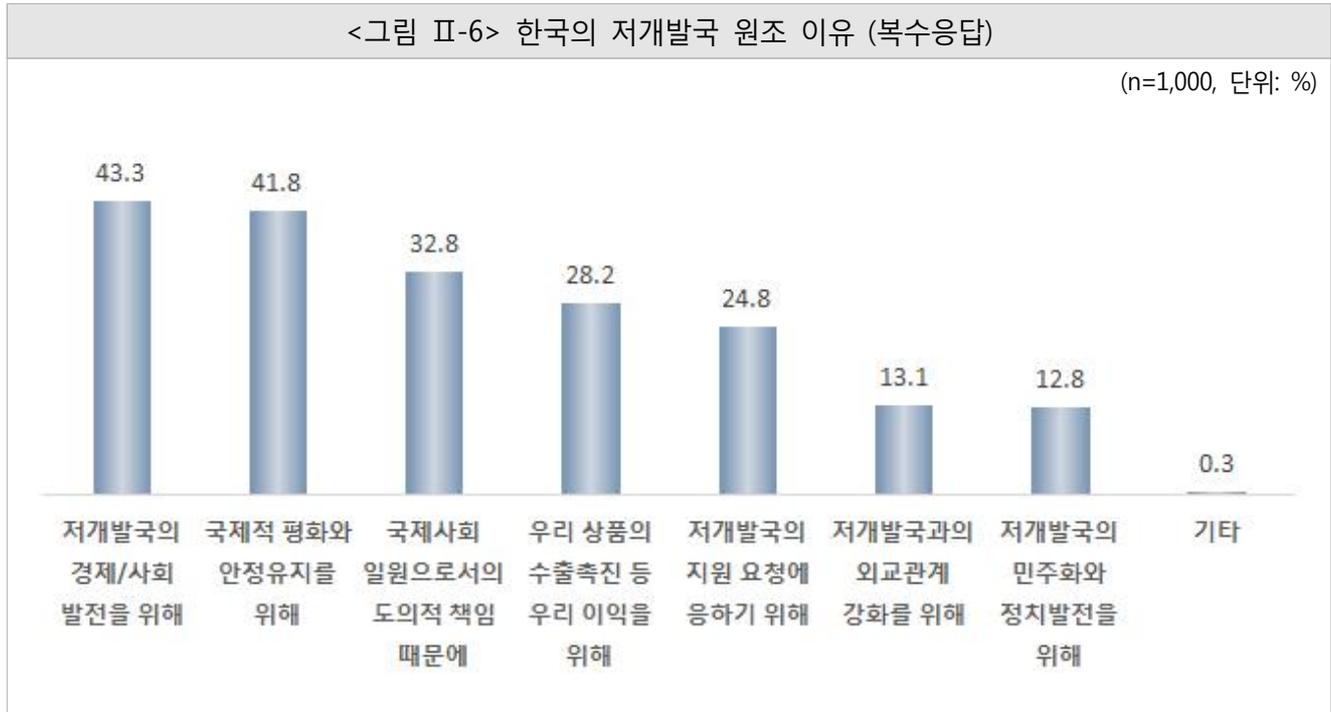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크게 기여했다	어느 정도 기여했다	별로 기여하지 않았다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기여했다	기여하지 않았다
전체		(852)	26.5	64.1	9.2	0.2	90.6	9.4
성별	남성	(441)	27.9	61.7	10.2	0.2	89.6	10.4
	여성	(411)	25.1	66.7	8.0	0.2	91.7	8.3
연령별	19-29세	(139)	21.6	66.9	10.8	0.7	88.5	11.5
	30대	(160)	20.0	71.3	8.8	0.0	91.3	8.8
	40대	(185)	23.8	65.4	10.8	0.0	89.2	10.8
	50대	(177)	28.8	62.1	8.5	0.6	91.0	9.0
	60대 이상	(191)	36.1	56.5	7.3	0.0	92.7	7.3
지역별	서울	(179)	34.6	59.2	5.6	0.6	93.9	6.1
	인천/경기	(274)	28.8	65.0	6.2	0.0	93.8	6.2
	부산/울산/경남	(128)	21.1	60.2	18.8	0.0	81.3	18.8
	대구/경북/강원	(113)	19.5	76.1	3.5	0.9	95.6	4.4
	대전/세종/충청	(62)	22.6	67.7	9.7	0.0	90.3	9.7
	광주/전라/제주	(96)	22.9	59.4	17.7	0.0	82.3	17.7
지역 규모별	광역시	(410)	27.6	62.7	9.5	0.2	90.2	9.8
	중소도시	(369)	25.5	65.6	8.9	0.0	91.1	8.9
	군지역	(73)	26.0	64.4	8.2	1.4	90.4	9.6
직업별	화이트칼라	(212)	26.9	66.0	6.6	0.5	92.9	7.1
	블루칼라	(188)	21.8	63.8	13.8	0.5	85.6	14.4
	자영업	(177)	31.1	60.5	8.5	0.0	91.5	8.5
	전업주부	(154)	29.2	62.3	8.4	0.0	91.6	8.4
	학생	(73)	20.5	68.5	11.0	0.0	89.0	11.0
	농림어업	(9)	22.2	77.8	0.0	0.0	100.0	0.0
	무직/기타	(39)	28.2	66.7	5.1	0.0	94.9	5.1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26)	30.8	65.4	3.8	0.0	96.2	3.8
	중학교 졸업	(59)	28.8	62.7	8.5	0.0	91.5	8.5
	고등학교 졸업	(333)	25.5	62.5	11.7	0.3	88.0	12.0
	대학 재학/졸업	(407)	25.6	66.1	8.1	0.2	91.6	8.4
	대학원 재학 이상	(25)	44.0	56.0	0.0	0.0	100.0	0.0
	모름/무응답	(2)	50.0	50.0	0.0	0.0	100.0	0.0
소득별	200만원 미만	(59)	20.3	66.1	13.6	0.0	86.4	13.6
	200-300만원 미만	(147)	25.9	66.0	8.2	0.0	91.8	8.2
	300-400만원 미만	(234)	22.6	63.2	13.7	0.4	85.9	14.1
	400-500만원 미만	(192)	29.7	64.1	5.7	0.5	93.8	6.3
	500-600만원 미만	(138)	26.8	65.9	7.2	0.0	92.8	7.2
	600-700만원 미만	(43)	30.2	65.1	4.7	0.0	95.3	4.7
	700만원 이상	(37)	43.2	48.6	8.1	0.0	91.9	8.1
	모름/무응답	(2)	0.0	100.0	0.0	0.0	100.0	0.0

구분		사례수	크게 기여했다	어느 정도 기여했다	별로 기여하지 않았다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기여했다	기여하지 않았다
전체		(852)	26.5	64.1	9.2	0.2	90.6	9.4
대외원조 찬반	찬성	(713)	29.7	63.8	6.2	0.3	93.5	6.5
	반대	(139)	10.1	65.5	24.5	0.0	75.5	24.5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443)	30.0	63.7	5.9	0.5	93.7	6.3
	선진국 아님	(409)	22.7	64.5	12.7	0.0	87.3	12.7
원조인지	인지	(462)	30.3	64.5	5.2	0.0	94.8	5.2
	비인지	(390)	22.1	63.6	13.8	0.5	85.6	14.4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237)	33.8	59.1	7.2	0.0	92.8	7.2
	경험없음	(323)	23.5	66.6	9.3	0.6	90.1	9.9
원조참여 의사	있음	(436)	32.8	60.8	6.2	0.2	93.6	6.4
	없음	(416)	20.0	67.5	12.3	0.2	87.5	12.5
외국방문 경험	없음	(292)	24.0	65.4	10.6	0.0	89.4	10.6
	1-3회	(405)	26.2	63.2	10.1	0.5	89.4	10.6
	4-9회	(119)	26.9	68.1	5.0	0.0	95.0	5.0
	10회 이상	(36)	50.0	50.0	0.0	0.0	100.0	0.0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37)	37.1	57.8	4.6	0.4	94.9	5.1
	경험없음	(615)	22.4	66.5	10.9	0.2	88.9	11.1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36)	31.6	60.3	7.4	0.7	91.9	8.1
	경험없음	(716)	25.6	64.8	9.5	0.1	90.4	9.6

6. 한국의 저개발국 원조 이유

- 우리 정부가 저개발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주된 이유로는 '저개발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43.3%)와 '국제적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해'(41.8%)라는 의견이 많았음
- 다음으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도의적 책임 때문에'(32.8%) 등의 순이었음

<그림 Ⅱ-6> 한국의 저개발국 원조 이유 (복수응답)



■ 특성별 분석

- '저개발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우리정부가 저개발국에 원조를 제공한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서울(55.3%), 금전적 기부경험 있음(55.7%)에서 비교적 높았음
- 반면 대전/세종/충청(39.8%), 대외원조 반대(38.5%)에서는 '우리상품 수출촉진 등 우리 이익을 위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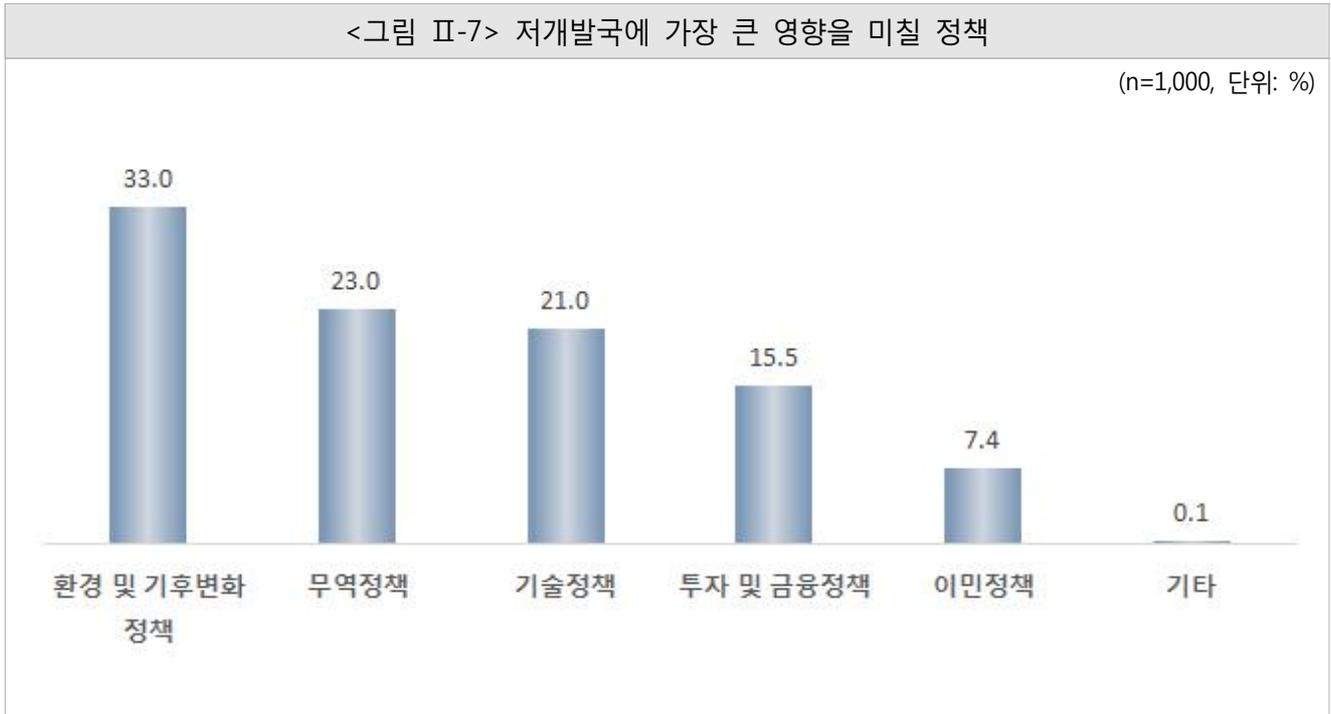
<표 II-6> 한국의 저개발국 원조 이유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저개발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국제적 평화와 안정유지 위해	국제사회 일원으로 도의적 책임 때문에	우리상품 수출 증진을 위해	저개발국 지원 요청에 응하기 위해	저개발국 과의 외교관계 강화를 위해	저개발 민중 민주화 발전을 위해	기타	
전체	(1,000)	43.3	41.8	32.8	28.2	24.8	13.1	12.8	0.3	
성별	남성	(496)	42.5	38.5	33.5	31.7	25.2	13.1	12.7	0.4
	여성	(504)	44.0	45.0	32.1	24.8	24.4	13.1	12.9	0.2
연령별	19-29세	(179)	37.4	43.0	30.2	33.5	25.1	15.6	11.7	0.0
	30대	(183)	42.1	42.1	33.9	27.3	21.3	18.6	10.9	0.5
	40대	(208)	45.7	39.4	33.2	26.4	26.9	9.6	16.3	0.5
	50대	(198)	46.0	41.4	34.8	29.8	22.7	10.1	12.1	0.0
	60대 이상	(232)	44.4	43.1	31.9	25.0	27.2	12.5	12.5	0.4
지역별	서울	(199)	55.3	43.2	38.7	22.6	14.6	14.6	8.5	1.0
	인천/경기	(296)	48.0	38.5	32.4	30.1	19.6	16.2	7.8	0.3
	부산/울산/경남	(156)	32.1	48.1	35.3	24.4	28.2	16.7	14.7	0.0
	대구/경북/강원	(131)	46.6	45.0	26.0	23.7	32.1	6.9	18.3	0.0
	대전/세종/충청	(103)	26.2	30.1	31.1	39.8	30.1	10.7	30.1	0.0
	광주/전라/제주	(115)	37.4	46.1	29.6	33.0	38.3	7.0	8.7	0.0
지역 규모별	광역시	(453)	47.7	42.8	36.4	24.3	22.7	11.5	11.3	0.4
	중소도시	(466)	41.4	41.8	29.6	30.5	25.8	14.4	13.3	0.2
	군지역	(81)	29.6	35.8	30.9	37.0	30.9	14.8	18.5	0.0
직업별	화이트칼라	(236)	43.2	40.7	34.7	33.9	20.8	12.7	10.6	0.4
	블루칼라	(216)	33.8	45.4	33.3	25.0	30.1	15.3	13.9	0.9
	자영업	(197)	50.3	40.1	30.5	27.9	22.3	11.2	14.7	0.0
	전업주부	(200)	45.0	43.0	32.5	22.0	28.5	12.0	13.5	0.0
	학생	(89)	42.7	40.4	30.3	31.5	25.8	18.0	6.7	0.0
	농림어업	(9)	33.3	44.4	33.3	33.3	22.2	22.2	11.1	0.0
	무직/기타	(53)	52.8	35.8	35.8	34.0	15.1	7.5	18.9	0.0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	42.9	48.6	34.3	22.9	25.7	8.6	14.3	0.0
	중학교 졸업	(78)	39.7	35.9	29.5	30.8	32.1	15.4	16.7	0.0
	고등학교 졸업	(399)	43.6	40.4	30.3	26.6	25.1	14.8	15.3	0.5
	대학 재학/졸업	(460)	43.9	43.9	34.8	29.8	23.9	10.9	10.0	0.2
	대학원 재학 이상	(25)	32.0	40.0	44.0	28.0	16.0	24.0	8.0	0.0
	모름/무응답	(3)	100.0	0.0	33.3	0.0	0.0	33.3	33.3	0.0
소득별	200만원 미만	(86)	45.3	47.7	34.9	19.8	23.3	11.6	17.4	0.0
	200-300만원 미만	(188)	46.8	40.4	26.1	26.6	29.3	13.3	12.8	1.1
	300-400만원 미만	(273)	42.5	39.6	30.0	28.9	30.8	12.5	14.7	0.0
	400-500만원 미만	(221)	45.7	42.1	29.9	29.9	22.2	12.2	13.6	0.0
	500-600만원 미만	(147)	39.5	44.9	44.2	27.9	15.0	17.0	8.8	0.7
	600-700만원 미만	(44)	40.9	31.8	47.7	36.4	20.5	9.1	6.8	0.0
	700만원 이상	(39)	33.3	48.7	38.5	30.8	23.1	12.8	7.7	0.0
	모름/무응답	(2)	0.0	50.0	0.0	50.0	0.0	50.0	0.0	0.0

구분		사례수	저개발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국제적 평화와 안정유지 위해	국제사회 일원으로 도의적 책임 때문에	우상품 수출 등 우리를 위해	저개발국 지원 요청에 응하기 위해	저개발국 과의 외교관계 강화를 위해	저개발 민중 정치 발전을 위해	기타
전체		(1,000)	43.3	41.8	32.8	28.2	24.8	13.1	12.8	0.3
대외원조 찬반	찬성	(800)	46.3	43.9	34.0	25.6	22.3	12.4	12.1	0.3
	반대	(200)	31.5	33.5	28.0	38.5	35.0	16.0	15.5	0.5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524)	43.9	42.7	30.7	24.8	26.9	12.4	15.1	0.2
	선진국 아님	(476)	42.6	40.8	35.1	31.9	22.5	13.9	10.3	0.4
원조인지	인지	(472)	47.9	43.0	32.8	26.7	22.7	13.3	10.4	0.0
	비인지	(528)	39.2	40.7	32.8	29.5	26.7	12.9	15.0	0.6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253)	47.8	44.7	38.3	25.3	17.8	11.1	10.7	0.0
	경험없음	(362)	40.3	40.6	33.7	30.4	26.2	14.1	12.7	0.0
원조참여 의사	있음	(483)	48.2	44.1	34.4	26.3	19.0	13.5	11.2	0.4
	없음	(517)	38.7	39.7	31.3	30.0	30.2	12.8	14.3	0.2
외국방문 경험	없음	(385)	43.1	41.0	28.3	28.1	28.1	13.5	14.3	0.8
	1-3회	(450)	44.7	41.3	31.8	28.4	23.8	13.1	13.6	0.0
	4-9회	(128)	39.1	46.9	45.3	28.1	19.5	11.7	7.8	0.0
	10회 이상	(37)	43.2	37.8	48.6	27.0	21.6	13.5	5.4	0.0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46)	55.7	43.5	36.6	26.4	18.7	10.2	5.7	0.0
	경험없음	(754)	39.3	41.2	31.6	28.8	26.8	14.1	15.1	0.4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43)	50.3	44.8	32.2	31.5	20.3	9.1	9.1	0.0
	경험없음	(857)	42.1	41.3	32.9	27.7	25.6	13.8	13.4	0.4

7. 저개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정책

- 원조정책 외에, 우리 정부 정책 중 저개발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정책으로는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33.0%) 응답률이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 '무역정책'(23.0%), '기술정책'(2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성별 분석

- 원조정책 외에 우리 정부 정책 중 저개발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정책으로,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은 지역별로 대구/경북/강원(46.6%)와 광주/전라/제주(53.9%), 학력별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54.3%), 소득별로 200만원 미만(44.2%)에서 응답률이 다소 높았음
- '무역정책'은 지역별로 인천/경기(32.4%), 소득별로 600-700만원 미만(38.6%)에서 '기술정책'은 지역별로 서울(30.2%)에서 비교적 높았음

<표 II-7> 저개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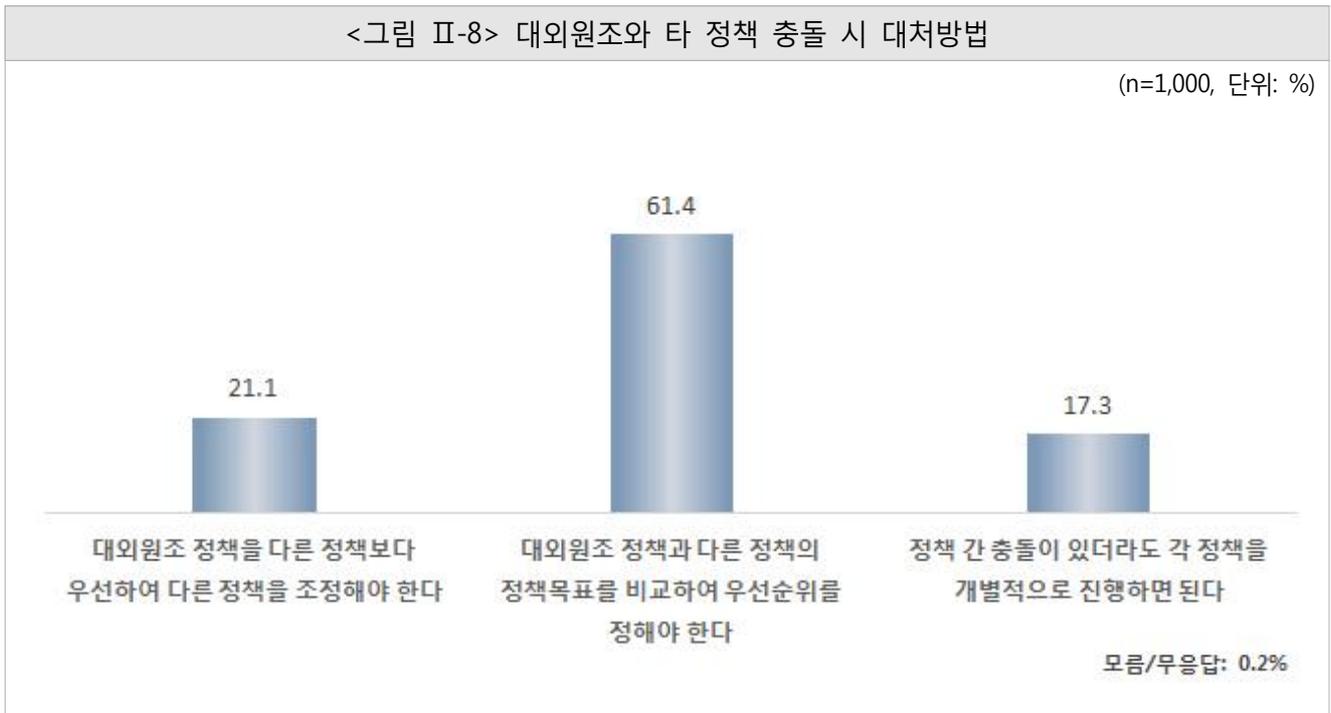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	무역정책	기술정책	투자 및 금융정책	이민정책	기타
전체		(1,000)	33.0	23.0	21.0	15.5	7.4	0.1
성별	남성	(496)	32.5	24.6	21.0	14.3	7.5	0.2
	여성	(504)	33.5	21.4	21.0	16.7	7.3	0.0
연령별	19-29세	(179)	27.9	24.6	20.1	19.0	8.4	0.0
	30대	(183)	32.8	22.4	21.9	18.0	4.9	0.0
	40대	(208)	31.3	24.5	19.7	16.3	8.2	0.0
	50대	(198)	30.3	25.8	20.2	15.2	8.1	0.5
	60대 이상	(232)	40.9	18.5	22.8	10.3	7.3	0.0
지역별	서울	(199)	25.6	18.6	30.2	17.6	7.5	0.5
	인천/경기	(296)	20.6	32.4	22.3	16.2	8.4	0.0
	부산/울산/경남	(156)	35.9	21.2	18.6	19.2	5.1	0.0
	대구/경북/강원	(131)	46.6	17.6	13.7	16.0	6.1	0.0
	대전/세종/충청	(103)	37.9	21.4	22.3	9.7	8.7	0.0
	광주/전라/제주	(115)	53.9	16.5	12.2	9.6	7.8	0.0
지역 규모별	광역시	(453)	30.2	21.6	25.6	17.0	5.3	0.2
	중소도시	(466)	33.9	23.8	18.2	15.5	8.6	0.0
	군지역	(81)	43.2	25.9	11.1	7.4	12.3	0.0
직업별	화이트칼라	(236)	31.4	23.7	21.2	16.5	6.8	0.4
	블루칼라	(216)	28.7	25.9	19.9	17.6	7.9	0.0
	자영업	(197)	40.6	18.8	21.8	13.2	5.6	0.0
	전업주부	(200)	33.0	22.0	23.0	15.5	6.5	0.0
	학생	(89)	27.0	24.7	21.3	19.1	7.9	0.0
	농림어업	(9)	66.7	0.0	0.0	0.0	33.3	0.0
	무직/기타	(53)	34.0	28.3	17.0	7.5	13.2	0.0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	54.3	17.1	17.1	5.7	5.7	0.0
	중학교 졸업	(78)	37.2	23.1	21.8	11.5	6.4	0.0
	고등학교 졸업	(399)	29.8	21.8	21.1	17.3	10.0	0.0
	대학 재학/졸업	(460)	34.3	23.9	20.4	15.7	5.7	0.0
	대학원 재학 이상	(25)	16.0	36.0	28.0	12.0	4.0	4.0
	모름/무응답	(3)	33.3	0.0	66.7	0.0	0.0	0.0
소득별	200만원 미만	(86)	44.2	14.0	22.1	11.6	8.1	0.0
	200-300만원 미만	(188)	34.0	21.3	21.3	18.1	5.3	0.0
	300-400만원 미만	(273)	29.3	22.3	20.5	18.3	9.5	0.0
	400-500만원 미만	(221)	32.1	23.5	24.0	13.1	7.2	0.0
	500-600만원 미만	(147)	38.8	25.2	17.0	11.6	7.5	0.0
	600-700만원 미만	(44)	22.7	38.6	18.2	13.6	6.8	0.0
	700만원 이상	(39)	25.6	25.6	23.1	20.5	2.6	2.6
	모름/무응답	(2)	0.0	50.0	0.0	50.0	0.0	0.0

구분		사례수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	무역정책	기술정책	투자 및 금융정책	이민정책	기타
전체		(1,000)	33.0	23.0	21.0	15.5	7.4	0.1
대외원조 찬반	찬성	(800)	34.6	21.6	20.4	15.6	7.6	0.1
	반대	(200)	26.5	28.5	23.5	15.0	6.5	0.0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524)	34.0	21.0	21.8	15.8	7.3	0.2
	선진국 아님	(476)	31.9	25.2	20.2	15.1	7.6	0.0
원조인지	인지	(472)	34.3	22.7	21.2	14.6	7.0	.2
	비인지	(528)	31.8	23.3	20.8	16.3	7.8	0.0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253)	31.2	19.8	25.7	17.0	5.9	0.4
	경험없음	(362)	31.8	25.1	22.9	11.9	8.3	0.0
원조참여 의사	있음	(483)	31.3	23.2	22.6	16.1	6.6	0.2
	없음	(517)	34.6	22.8	19.5	14.9	8.1	0.0
외국방문 경험	없음	(385)	35.3	23.1	16.1	17.9	7.5	0.0
	1-3회	(450)	29.3	22.9	23.8	15.8	8.2	0.0
	4-9회	(128)	39.1	22.7	27.3	6.3	4.7	0.0
	10회 이상	(37)	32.4	24.3	16.2	18.9	5.4	2.7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46)	37.8	20.7	19.1	16.7	5.3	0.4
	경험없음	(754)	31.4	23.7	21.6	15.1	8.1	0.0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43)	43.4	21.0	17.5	11.9	6.3	0.0
	경험없음	(857)	31.3	23.3	21.6	16.1	7.6	0.1

8. 대외원조와 타 정책 충돌 시 대처방법

- 원조정책 외 정책들이 대외원조 정책과 달리 저개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대외원조 정책과 다른 정책의 정책목표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61.4%)는 의견이 과반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대외원조 정책을 다른 정책보다 우선하여 다른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21.1%), '정책 간 충돌이 있더라도 각 정책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 된다'(17.3%)의 순이었음

<그림 II-8> 대외원조와 타 정책 충돌 시 대처방법



■ 특성별 분석

- 대외원조 외 정책이 저개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대외원조 정책과 다른 정책의 목표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소득별로 700만원 이상(69.2%)에서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비금전적 기부경험 있음(30.1%)에서는 '대외원조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소득별로 600-700만원 미만(27.3%)에서는 '각 정책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 된다는 의견이 다소 높았음

<표 II-8> 대외원조와 타 정책 충돌 시 대처방법

구분	사례수	대외원조 정책을 우선하여 다른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대외원조 정책과 다른 정책의 목표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정책 간 충돌이 있더라도 각 정책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기타	
전체	(1,000)	21.1	61.4	17.3	0.2	
성별	남성	(496)	20.2	61.9	17.9	0.0
	여성	(504)	22.0	60.9	16.7	0.4
연령별	19-29세	(179)	24.6	58.1	17.3	0.0
	30대	(183)	19.7	62.8	17.5	0.0
	40대	(208)	21.2	63.0	15.9	0.0
	50대	(198)	19.2	63.1	17.2	0.5
	60대 이상	(232)	21.1	59.9	18.5	0.4
지역별	서울	(199)	16.6	65.8	17.1	0.5
	인천/경기	(296)	20.3	64.5	15.2	0.0
	부산/울산/경남	(156)	26.3	51.3	22.4	0.0
	대구/경북/강원	(131)	23.7	59.5	16.8	0.0
	대전/세종/충청	(103)	15.5	65.0	19.4	0.0
	광주/전라/제주	(115)	26.1	58.3	14.8	0.9
지역 규모별	광역시	(453)	21.4	59.4	19.0	0.2
	중소도시	(466)	20.6	64.4	14.8	0.2
	군지역	(81)	22.2	55.6	22.2	0.0
직업별	화이트칼라	(236)	23.7	58.1	18.2	0.0
	블루칼라	(216)	20.4	62.0	17.1	0.5
	자영업	(197)	20.8	62.4	16.8	0.0
	전업주부	(200)	18.0	64.5	17.5	0.0
	학생	(89)	21.3	61.8	16.9	0.0
	농림어업	(9)	11.1	66.7	11.1	11.1
	무직/기타	(53)	26.4	56.6	17.0	0.0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	14.3	65.7	17.1	2.9
	중학교 졸업	(78)	20.5	61.5	17.9	0.0
	고등학교 졸업	(399)	18.5	64.4	17.0	0.0
	대학 재학/졸업	(460)	24.1	57.6	18.0	0.2
	대학원 재학 이상	(25)	20.0	72.0	8.0	0.0
	모름/무응답	(3)	0.0	100.0	0.0	0.0
소득별	200만원 미만	(86)	16.3	59.3	23.3	1.2
	200-300만원 미만	(188)	24.5	63.3	12.2	0.0
	300-400만원 미만	(273)	19.0	60.8	20.1	0.0
	400-500만원 미만	(221)	22.2	62.0	15.4	0.5
	500-600만원 미만	(147)	21.8	63.3	15.0	0.0
	600-700만원 미만	(44)	25.0	47.7	27.3	0.0
	700만원 이상	(39)	15.4	69.2	15.4	0.0
	모름/무응답	(2)	50.0	0.0	50.0	0.0

구분	사례수	대외원조 정책을 우선하여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대외원조 정책과 다른 목표들을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정책 간 충돌이 있더라도 각 정책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기타	
전체	(1,000)	21.1	61.4	17.3	0.2	
대외원조 찬반	찬성	(800)	22.5	60.9	16.5	0.1
	반대	(200)	15.5	63.5	20.5	0.5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524)	21.9	61.3	16.8	0.0
	선진국 아님	(476)	20.2	61.6	17.9	0.4
원조인지	인지	(472)	20.1	62.3	17.6	0.0
	비인지	(528)	22.0	60.6	17.0	0.4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253)	22.1	60.9	16.6	0.4
	경험없음	(362)	24.3	60.5	15.2	0.0
원조참여 의사	있음	(483)	20.7	64.0	15.1	0.2
	없음	(517)	21.5	59.0	19.3	0.2
외국방문 경험	없음	(385)	17.4	62.6	19.7	0.3
	1-3회	(450)	23.6	59.3	16.9	0.2
	4-9회	(128)	21.9	64.1	14.1	0.0
	10회 이상	(37)	27.0	64.9	8.1	0.0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46)	26.4	56.1	17.5	0.0
	경험없음	(754)	19.4	63.1	17.2	0.3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43)	30.1	56.6	13.3	0.0
	경험없음	(857)	19.6	62.2	18.0	0.2

Ⅲ. 대외원조의 정책 선호도 및 예산규모에 대한 인식

1. 정부의 대외원조 제공 찬반

- 우리 정부가 저개발국에 대외원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찬성(80.0% : '적극 찬성한다' 7.9%, '찬성하는 편이다' 72.1%)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성별 분석

- 우리 정부가 저개발국에 대외원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찬성'은 지역별로 서울(90.5%) 대구/경북/강원(91.6%), 저개발국 방문경험 있음(90.1%), 원조참여 의사 있음(91.7%), 외국 방문경험이 많을수록(10회 이상 91.9%), 금전적 기부경험 있음(94.3%)에서 다소 높게 나타남
- 반면, 대외원조 제공에 대한 '반대' 의견은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31.1%), 광주/전라/제주(30.4%), 소득별로 200만원 미만(36.0%), 원조참여 의사 없음(30.9%)에서 비교적 높았음

<표 Ⅲ-1> 정부의 대외원조 제공 찬반

구분		사례수	적극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적극 반대한다	찬성	반대
전체		(1,000)	7.9	72.1	18.2	1.8	80.0	20.0
성별	남성	(496)	10.5	71.2	16.9	1.4	81.7	18.3
	여성	(504)	5.4	73.0	19.4	2.2	78.4	21.6
연령별	19-29세	(179)	4.5	75.4	19.6	0.6	79.9	20.1
	30대	(183)	6.0	71.6	20.8	1.6	77.6	22.4
	40대	(208)	8.7	73.1	16.8	1.4	81.7	18.3
	50대	(198)	8.6	76.8	12.6	2.0	85.4	14.6
	60대 이상	(232)	10.8	65.1	21.1	3.0	75.9	24.1
지역별	서울	(199)	11.6	78.9	9.5	0.0	90.5	9.5
	인천/경기	(296)	12.8	64.2	22.6	0.3	77.0	23.0
	부산/울산/경남	(156)	2.6	75.0	19.9	2.6	77.6	22.4
	대구/경북/강원	(131)	3.8	87.8	6.1	2.3	91.6	8.4
	대전/세종/충청	(103)	4.9	64.1	30.1	1.0	68.9	31.1
	광주/전라/제주	(115)	3.5	66.1	22.6	7.8	69.6	30.4
지역 규모별	광역시	(453)	7.7	77.3	14.3	0.7	85.0	15.0
	중소도시	(466)	7.7	68.0	21.2	3.0	75.8	24.2
	군지역	(81)	9.9	66.7	22.2	1.2	76.5	23.5
직업별	화이트칼라	(236)	9.7	76.3	13.6	0.4	86.0	14.0
	블루칼라	(216)	6.5	69.0	22.7	1.9	75.5	24.5
	자영업	(197)	10.2	70.6	16.2	3.0	80.7	19.3
	전업주부	(200)	6.5	70.0	21.0	2.5	76.5	23.5
	학생	(89)	4.5	79.8	15.7	0.0	84.3	15.7
	농림어업	(9)	0.0	77.8	22.2	0.0	77.8	22.2
	무직/기타	(53)	9.4	66.0	20.8	3.8	75.5	24.5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	5.7	65.7	17.1	11.4	71.4	28.6
	중학교 졸업	(78)	9.0	62.8	25.6	2.6	71.8	28.2
	고등학교 졸업	(399)	5.8	70.4	22.1	1.8	76.2	23.8
	대학 재학/졸업	(460)	9.1	75.7	14.3	0.9	84.8	15.2
	대학원 재학 이상	(25)	12.0	80.0	8.0	0.0	92.0	8.0
	모름/무응답	(3)	66.7	0.0	0.0	33.3	66.7	33.3
소득별	200만원 미만	(86)	7.0	57.0	33.7	2.3	64.0	36.0
	200-300만원 미만	(188)	8.0	67.0	22.3	2.7	75.0	25.0
	300-400만원 미만	(273)	6.2	72.9	17.6	3.3	79.1	20.9
	400-500만원 미만	(221)	6.3	79.2	14.0	0.5	85.5	14.5
	500-600만원 미만	(147)	10.9	74.1	14.3	0.7	85.0	15.0
	600-700만원 미만	(44)	15.9	68.2	15.9	0.0	84.1	15.9
	700만원 이상	(39)	7.7	82.1	10.3	0.0	89.7	10.3
	모름/무응답	(2)	50.0	50.0	0.0	0.0	10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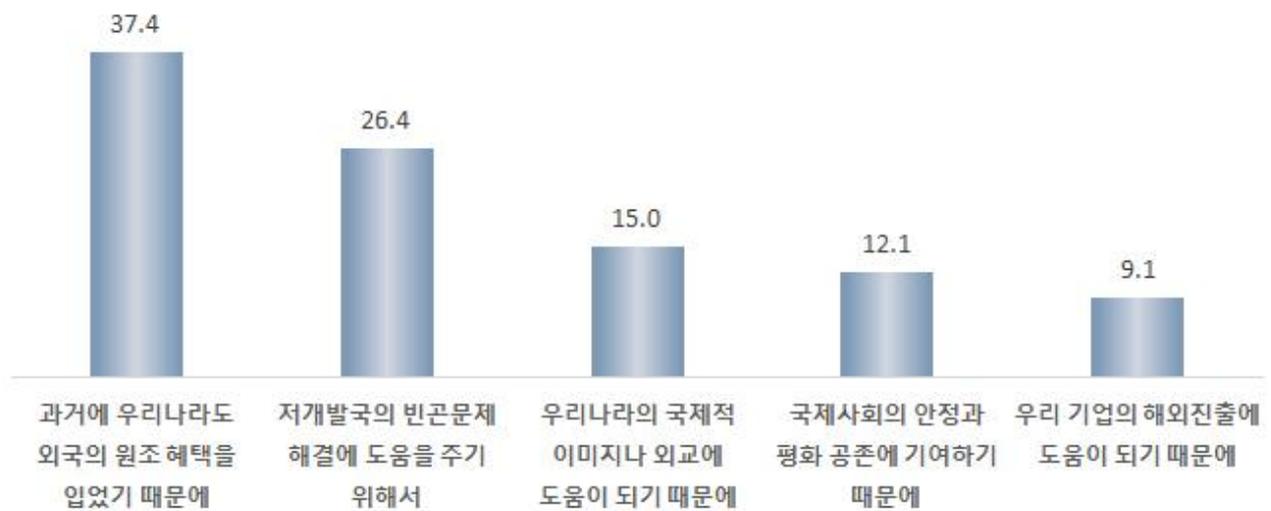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적극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적극 반대한다	찬성	반대
전체		(1,000)	7.9	72.1	18.2	1.8	80.0	20.0
대외원조 찬반	찬성	(800)	9.9	90.1	0.0	0.0	100.0	0.0
	반대	(200)	0.0	0.0	91.0	9.0	0.0	100.0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524)	8.6	73.1	17.0	1.3	81.7	18.3
	선진국 아님	(476)	7.1	71.0	19.5	2.3	78.2	21.8
원조인지	인지	(472)	12.9	75.2	10.6	1.3	88.1	11.9
	비인지	(528)	3.4	69.3	25.0	2.3	72.7	27.3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253)	15.0	75.1	9.1	0.8	90.1	9.9
	경험없음	(362)	6.6	72.1	19.1	2.2	78.7	21.3
원조참여 의사	있음	(483)	13.3	78.5	6.8	1.4	91.7	8.3
	없음	(517)	2.9	66.2	28.8	2.1	69.1	30.9
외국방문 경험	없음	(385)	4.4	70.1	23.4	2.1	74.5	25.5
	1-3회	(450)	9.1	72.2	16.9	1.8	81.3	18.7
	4-9회	(128)	12.5	75.8	10.2	1.6	88.3	11.7
	10회 이상	(37)	13.5	78.4	8.1	0.0	91.9	8.1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46)	17.5	76.8	4.9	0.8	94.3	5.7
	경험없음	(754)	4.8	70.6	22.5	2.1	75.3	24.7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43)	18.2	69.9	10.5	1.4	88.1	11.9
	경험없음	(857)	6.2	72.5	19.5	1.9	78.6	21.4

1-1. 대외원조 제공 찬성 이유

- 우리 정부의 대외원조 제공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과거 우리나라도 외국의 원조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가 37.4%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저개발국의 빈곤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26.4%),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나 외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1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Ⅲ-1-1> 대외원조 제공 찬성 이유

(Base : 대외원조 찬성층, n=800, 단위: %)



■ 특성별 분석

- '과거에 우리나라도 외국의 원조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대외원조 제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60대 이상 44.3%), 소득별로 200만원 미만(49.1%)과 700만원 이상(48.6%), 외국 방문경험 10회 이상(61.8%)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음
- 한편, 연령별로 19-29세(35.0%), 직업별로 학생(37.3%)에서는 '저개발국의 빈곤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29.6%)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나 외교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다소 높았음

<표 Ⅲ-1-1> 대외원조 제공 찬성 이유

구분		사례수	과거에 우리나라도 원조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저개발국의 빈곤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나 외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과 공존에 기여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체		(800)	37.4	26.4	15.0	12.1	9.1
성별	남성	(405)	36.5	24.7	17.5	11.9	9.4
	여성	(395)	38.2	28.1	12.4	12.4	8.9
연령별	19-29세	(143)	29.4	35.0	16.8	9.8	9.1
	30대	(142)	32.4	28.9	17.6	11.3	9.9
	40대	(170)	37.6	27.1	12.9	13.5	8.8
	50대	(169)	40.8	17.8	17.8	14.8	8.9
	60대 이상	(176)	44.3	25.0	10.8	10.8	9.1
지역별	서울	(180)	43.3	27.2	12.8	11.7	5.0
	인천/경기	(228)	42.1	25.4	10.5	14.5	7.5
	부산/울산/경남	(121)	28.1	31.4	19.0	8.3	13.2
	대구/경북/강원	(120)	36.7	28.3	17.5	10.0	7.5
	대전/세종/충청	(71)	19.7	23.9	29.6	11.3	15.5
	광주/전라/제주	(80)	41.3	18.8	10.0	16.3	13.8
지역 규모별	광역시	(385)	36.9	29.1	13.8	11.4	8.8
	중소도시	(353)	36.8	24.9	15.9	12.7	9.6
	군지역	(62)	43.5	17.7	17.7	12.9	8.1
직업별	화이트칼라	(203)	36.0	26.6	17.2	9.9	10.3
	블루칼라	(163)	37.4	23.3	17.8	12.9	8.6
	자영업	(159)	37.7	26.4	14.5	13.8	7.5
	전업주부	(153)	39.9	26.8	10.5	12.4	10.5
	학생	(75)	28.0	37.3	17.3	12.0	5.3
	농림어업	(7)	14.3	14.3	14.3	28.6	28.6
	무직/기타	(40)	55.0	17.5	7.5	10.0	10.0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25)	56.0	20.0	24.0	0.0	0.0
	중학교 졸업	(56)	44.6	26.8	5.4	8.9	14.3
	고등학교 졸업	(304)	37.8	24.3	15.8	13.2	8.9
	대학 재학/졸업	(390)	34.6	27.4	15.6	12.8	9.5
	대학원 재학 이상	(23)	39.1	39.1	8.7	8.7	4.3
	모름/무응답	(2)	50.0	50.0	0.0	0.0	0.0
소득별	200만원 미만	(55)	49.1	25.5	10.9	9.1	5.5
	200-300만원 미만	(141)	33.3	32.6	15.6	12.8	5.7
	300-400만원 미만	(216)	39.4	21.8	13.0	14.8	11.1
	400-500만원 미만	(189)	31.7	26.5	18.5	11.6	11.6
	500-600만원 미만	(125)	37.6	28.0	16.0	9.6	8.8
	600-700만원 미만	(37)	43.2	32.4	13.5	5.4	5.4
	700만원 이상	(35)	48.6	17.1	11.4	14.3	8.6
	모름/무응답	(2)	0.0	50.0	0.0	5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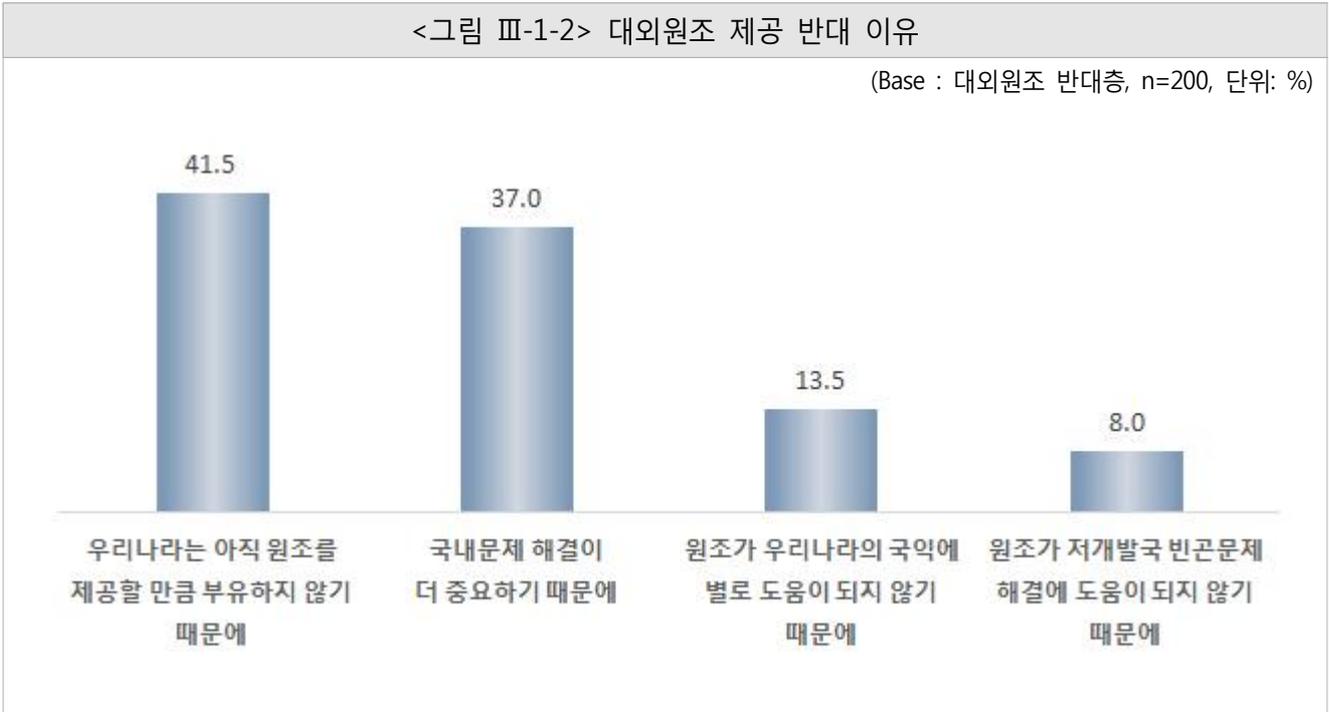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과거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외국의 혜택을 원조 입었기 때문에	저개발국의 빈곤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나 외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 공존에 기여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체		(800)	37.4	26.4	15.0	12.1	9.1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428)	38.8	26.2	13.3	13.1	8.6
	선진국 아님	(372)	35.8	26.6	16.9	11.0	9.7
원조인지	인지	(416)	39.4	27.2	14.9	10.3	8.2
	비인지	(384)	35.2	25.5	15.1	14.1	10.2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228)	44.7	24.6	10.5	12.3	7.9
	경험없음	(285)	36.8	24.2	15.8	12.6	10.5
원조참여 의사	있음	(443)	36.8	29.1	14.2	12.2	7.7
	없음	(357)	38.1	23.0	16.0	12.0	10.9
외국방문 경험	없음	(287)	32.1	30.0	17.8	11.5	8.7
	1-3회	(366)	38.8	24.3	14.8	13.1	9.0
	4-9회	(113)	38.9	26.5	11.5	12.4	10.6
	10회 이상	(34)	61.8	17.6	5.9	5.9	8.8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32)	42.7	28.0	10.3	13.4	5.6
	경험없음	(568)	35.2	25.7	16.9	11.6	10.6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26)	36.5	30.2	11.1	11.1	11.1
	경험없음	(674)	37.5	25.7	15.7	12.3	8.8

1-2. 대외원조 제공 반대 이유

- 우리 정부의 대외원조 제공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우리나라는 아직 원조를 제공할 만큼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41.5%)와, '국내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37.0%)가 높은 비율로 나타남
- 다음으로 '원조가 우리나라의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13.5%), '원조가 저개발국 빈곤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8.0%)의 순이었음

<그림 III-1-2> 대외원조 제공 반대 이유

(Base : 대외원조 반대층, n=200, 단위: %)



■ 특성별 분석

- '우리나라는 아직 원조를 제공할 만큼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저개발국 대외원조 제공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62.9%), 직업별로 전업주부(51.1%)에서 비교적 높았음
- '국내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외원조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지역별로 인천/경기(44.1%), 직업별로 블루칼라(45.3%)에서 다소 높았음

<표 Ⅲ-1-2> 대외원조 제공 반대 이유

구분	사례수	우리나라는 아직 원조를 제공할 만큼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원조가 우리나라의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조가 저개발국의 빈곤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200)	41.5	37.0	13.5	8.0	
성별	남성	(91)	38.5	37.4	16.5	7.7
	여성	(109)	44.0	36.7	11.0	8.3
연령별	19-29세	(36)	44.4	30.6	19.4	5.6
	30대	(41)	43.9	41.5	7.3	7.3
	40대	(38)	36.8	36.8	21.1	5.3
	50대	(29)	37.9	41.4	10.3	10.3
	60대 이상	(56)	42.9	35.7	10.7	10.7
지역별	서울	(19)	57.9	42.1	0.0	0.0
	인천/경기	(68)	32.4	44.1	16.2	7.4
	부산/울산/경남	(35)	34.3	34.3	20.0	11.4
	대구/경북/강원	(11)	45.5	36.4	0.0	18.2
	대전/세종/충청	(32)	34.4	40.6	21.9	3.1
	광주/전라/제주	(35)	62.9	20.0	5.7	11.4
지역 규모별	광역시	(68)	48.5	36.8	8.8	5.9
	중소도시	(113)	39.8	38.1	15.0	7.1
	군지역	(19)	26.3	31.6	21.1	21.1
직업별	화이트칼라	(33)	33.3	42.4	15.2	9.1
	블루칼라	(53)	34.0	45.3	15.1	5.7
	자영업	(38)	47.4	36.8	5.3	10.5
	전업주부	(47)	51.1	27.7	12.8	8.5
	학생	(14)	42.9	21.4	28.6	7.1
	농림어업	(2)	0.0	50.0	50.0	0.0
	무직/기타	(13)	46.2	38.5	7.7	7.7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10)	50.0	30.0	10.0	10.0
	중학교 졸업	(22)	27.3	59.1	4.5	9.1
	고등학교 졸업	(95)	41.1	36.8	15.8	6.3
	대학 재학/졸업	(70)	47.1	30.0	14.3	8.6
	대학원 재학 이상	(2)	0.0	100.0	0.0	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소득별	200만원 미만	(31)	41.9	35.5	12.9	9.7
	200-300만원 미만	(47)	46.8	34.0	12.8	6.4
	300-400만원 미만	(57)	40.4	33.3	17.5	8.8
	400-500만원 미만	(32)	40.6	37.5	15.6	6.3
	500-600만원 미만	(22)	40.9	45.5	4.5	9.1
	600-700만원 미만	(7)	28.6	42.9	14.3	14.3
	700만원 이상	(4)	25.0	75.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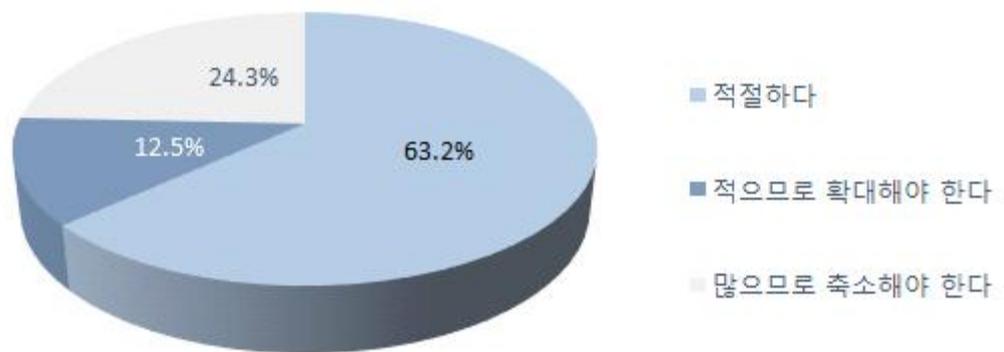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우리나라는 아직 원조를 제공할 만큼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원조가 우리나라의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조가 저개발국의 빈곤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200)	41.5	37.0	13.5	8.0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96)	41.7	33.3	16.7	8.3
	선진국 아님	(104)	41.3	40.4	10.6	7.7
원조인지	인지	(56)	30.4	44.6	17.9	7.1
	비인지	(144)	45.8	34.0	11.8	8.3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25)	36.0	36.0	12.0	16.0
	경험없음	(77)	41.6	36.4	13.0	9.1
원조참여 의사	있음	(40)	47.5	30.0	15.0	7.5
	없음	(160)	40.0	38.8	13.1	8.1
외국방문 경험	없음	(98)	42.9	37.8	14.3	5.1
	1-3회	(84)	41.7	35.7	11.9	10.7
	4-9회	(15)	33.3	33.3	20.0	13.3
	10회 이상	(3)	33.3	66.7	0.0	0.0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4)	42.9	50.0	0.0	7.1
	경험없음	(186)	41.4	36.0	14.5	8.1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7)	41.2	47.1	5.9	5.9
	경험없음	(183)	41.5	36.1	14.2	8.2

2. 정부의 대외원조 규모 적정성

-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규모(2015년 기준 약 2조 1천억원)에 대해 반수 이상의 응답자(63.2%)가 '적절하다'고 답함
- '적으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12.5%, '많으므로 축소해야 한다'는 24.3%였음

<그림 Ⅲ-2> 정부의 대외원조 규모 적정성

(n=1,000, 단위: %)



■ 특성별 분석

-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규모가 '적절하다'는 의견은 지역별로 대구/경북/강원(77.1%), 고소득층(600-700만원 미만 68.2%, 700만원 이상 69.2%), 대외원조 찬성(71.6%)에서 다소 높은 비율로 나타남
- 한편, '적으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역별로 서울(22.6%), 소득별로 700만원 이상(20.5%), 저개발국 방문경험 있음(21.7%), 금전적 기부경험 있음(24.4%)에서, '많으므로 축소해야 한다'는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37.9%)에서, 학력이 낮을수록(초등학교 졸업 이하 34.3%), 원조참여 의사 없음(35.4%)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Ⅲ-2> 정부의 대외원조 규모 적정성

구분		사례수	적절하다	적으므로 확대해야 한다	많으므로 축소해야 한다
전체		(1,000)	63.2	12.5	24.3
성별	남성	(496)	60.5	16.5	23.0
	여성	(504)	65.9	8.5	25.6
연령별	19-29세	(179)	64.2	11.7	24.0
	30대	(183)	60.1	13.7	26.2
	40대	(208)	65.4	13.0	21.6
	50대	(198)	63.6	12.1	24.2
	60대 이상	(232)	62.5	12.1	25.4
지역별	서울	(199)	57.8	22.6	19.6
	인천/경기	(296)	60.8	13.2	26.0
	부산/울산/경남	(156)	60.9	10.9	28.2
	대구/경북/강원	(131)	77.1	10.7	12.2
	대전/세종/충청	(103)	61.2	1.0	37.9
	광주/전라/제주	(115)	67.8	7.8	24.3
지역 규모별	광역시	(453)	62.0	16.3	21.6
	중소도시	(466)	65.5	8.6	26.0
	군지역	(81)	56.8	13.6	29.6
직업별	화이트칼라	(236)	62.7	17.4	19.9
	블루칼라	(216)	62.5	10.6	26.9
	자영업	(197)	64.0	13.7	22.3
	전업주부	(200)	63.5	7.0	29.5
	학생	(89)	66.3	13.5	20.2
	농림어업	(9)	88.9	0.0	11.1
	무직/기타	(53)	54.7	15.1	30.2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	62.9	2.9	34.3
	중학교 졸업	(78)	62.8	5.1	32.1
	고등학교 졸업	(399)	60.4	10.8	28.8
	대학 재학/졸업	(460)	67.2	14.1	18.7
	대학원 재학 이상	(25)	44.0	40.0	16.0
	모름/무응답	(3)	0.0	66.7	33.3
소득별	200만원 미만	(86)	65.1	5.8	29.1
	200-300만원 미만	(188)	57.4	11.7	30.9
	300-400만원 미만	(273)	60.4	14.7	24.9
	400-500만원 미만	(221)	65.6	9.5	24.9
	500-600만원 미만	(147)	67.3	14.3	18.4
	600-700만원 미만	(44)	68.2	18.2	13.6
	700만원 이상	(39)	69.2	20.5	10.3
	모름/무응답	(2)	10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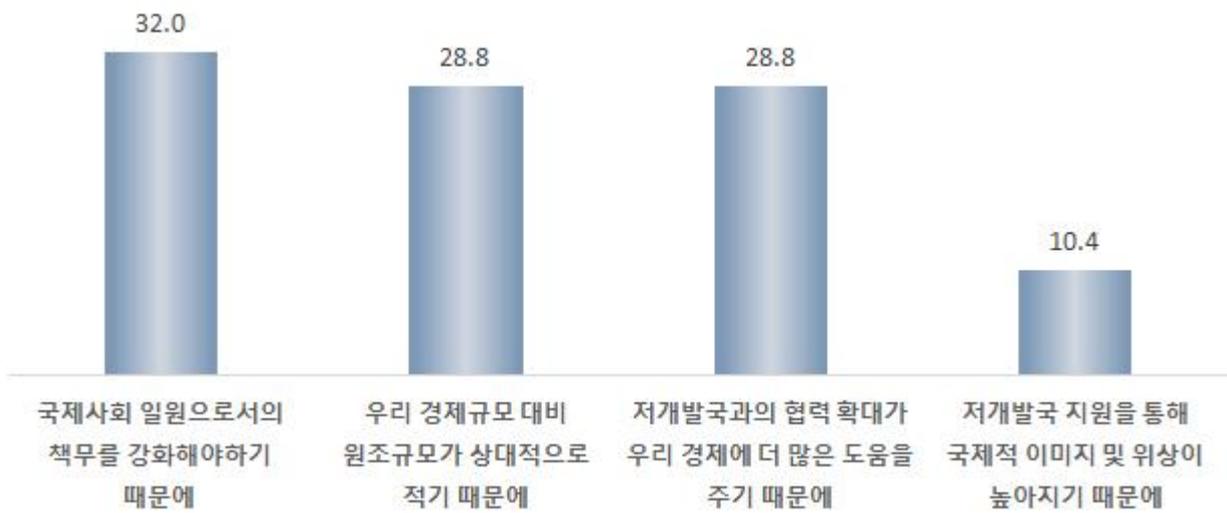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적절하다	적으므로 확대해야 한다	많으므로 축소해야 한다
전체		(1,000)	63.2	12.5	24.3
대외원조 찬반	찬성	(800)	71.6	15.0	13.4
	반대	(200)	29.5	2.5	68.0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524)	64.3	11.6	24.0
	선진국 아님	(476)	62.0	13.4	24.6
원조인지	인지	(472)	65.3	16.9	17.8
	비인지	(528)	61.4	8.5	30.1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253)	62.5	21.7	15.8
	경험없음	(362)	62.2	12.2	25.7
원조참여 의사	있음	(483)	68.5	19.0	12.4
	없음	(517)	58.2	6.4	35.4
외국방문 경험	없음	(385)	64.7	6.8	28.6
	1-3회	(450)	62.4	15.1	22.4
	4-9회	(128)	61.7	18.8	19.5
	10회 이상	(37)	62.2	18.9	18.9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46)	61.8	24.4	13.8
	경험없음	(754)	63.7	8.6	27.7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43)	63.6	18.2	18.2
	경험없음	(857)	63.1	11.6	25.3

2-1. 대외원조 규모 확대 필요 이유

- 대외원조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강화해야하기 때문에'(32.0%), '우리 경제규모 대비 원조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28.8%), '저개발국과의 협력 확대가 우리 경제에 더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28.8%)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남
- '저개발국 지원을 통해 국제적 이미지 및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응답은 10.4%였음

<그림 III-2-1> 대외원조 규모 확대 필요 이유

(Base : 대외원조 확대 필요 응답층, n=125, 단위: %)



■ 특성별 분석

-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무를 강화해야하기 때문에' 대외원조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별로 여성(41.9%), 직업별로 화이트칼라(41.5%)에서 비교적 많았음
- 한편, '우리 경제 규모 대비 원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는 한국 선진국이라 생각(37.7%), 저개발국 방문경험 있음(41.8%)에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임

<표 Ⅲ-2-1> 대외원조 규모 확대 필요 이유

구분	사례수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강화해야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규모 원조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저개발국과의 협력 확대가 우리 경제에 더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개발국 지원을 통해 국제적 이미지 및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	(125)	32.0	28.8	28.8	10.4	
성별	남성	(82)	26.8	29.3	34.1	9.8
	여성	(43)	41.9	27.9	18.6	11.6
연령별	19-29세	(21)	38.1	33.3	19.0	9.5
	30대	(25)	36.0	28.0	28.0	8.0
	40대	(27)	44.4	29.6	14.8	11.1
	50대	(24)	16.7	25.0	50.0	8.3
	60대 이상	(28)	25.0	28.6	32.1	14.3
지역별	서울	(45)	20.0	33.3	35.6	11.1
	인천/경기	(39)	30.8	30.8	25.6	12.8
	부산/울산/경남	(17)	41.2	29.4	23.5	5.9
	대구/경북/강원	(14)	42.9	28.6	21.4	7.1
	대전/세종/충청	(1)	0.0	0.0	100.0	0.0
	광주/전라/제주	(9)	66.7	0.0	22.2	11.1
지역 규모별	광역시	(74)	28.4	32.4	28.4	10.8
	중소도시	(40)	35.0	25.0	32.5	7.5
	군지역	(11)	45.5	18.2	18.2	18.2
직업별	화이트칼라	(41)	41.5	22.0	26.8	9.8
	블루칼라	(23)	30.4	30.4	30.4	8.7
	자영업	(27)	22.2	29.6	33.3	14.8
	전업주부	(14)	35.7	28.6	21.4	14.3
	학생	(12)	33.3	41.7	16.7	8.3
	무직/기타	(8)	12.5	37.5	50.0	0.0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1)	100.0	0.0	0.0	0.0
	중학교 졸업	(4)	0.0	75.0	25.0	0.0
	고등학교 졸업	(43)	27.9	27.9	30.2	14.0
	대학 재학/졸업	(65)	36.9	24.6	27.7	10.8
	대학원 재학 이상	(10)	30.0	50.0	20.0	0.0
	모름/무응답	(2)	0.0	0.0	100.0	0.0
소득별	200만원 미만	(5)	40.0	40.0	0.0	20.0
	200-300만원 미만	(22)	27.3	31.8	31.8	9.1
	300-400만원 미만	(40)	35.0	17.5	32.5	15.0
	400-500만원 미만	(21)	19.0	38.1	33.3	9.5
	500-600만원 미만	(21)	23.8	38.1	28.6	9.5
	600-700만원 미만	(8)	50.0	37.5	12.5	0.0
	700만원 이상	(8)	62.5	12.5	25.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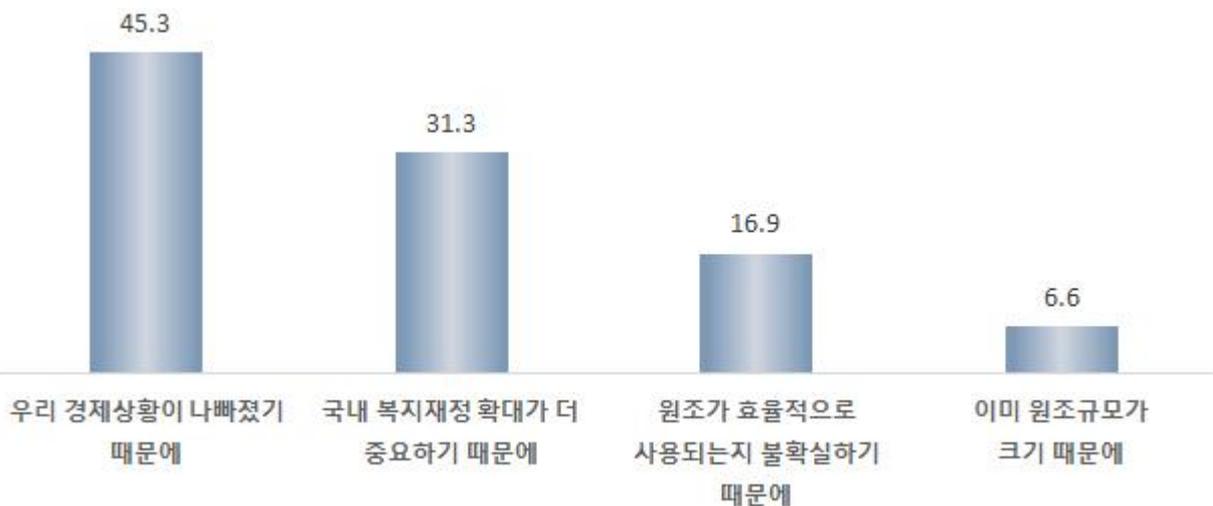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강화해야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규모 대비 원조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저개발국과의 협력 확대가 우리 경제에 더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개발국 지원을 통해 국제적 이미지 및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	(125)	32.0	28.8	28.8	10.4	
대외원조 찬반	찬성	(120)	32.5	30.0	29.2	8.3
	반대	(5)	20.0	0.0	20.0	60.0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61)	31.1	37.7	21.3	9.8
	선진국 아님	(64)	32.8	20.3	35.9	10.9
원조인지	인지	(80)	27.5	35.0	28.8	8.8
	비인지	(45)	40.0	17.8	28.9	13.3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55)	21.8	41.8	30.9	5.5
	경험없음	(44)	38.6	20.5	27.3	13.6
원조참여 의사	있음	(92)	29.3	29.3	32.6	8.7
	없음	(33)	39.4	27.3	18.2	15.2
외국방문 경험	없음	(26)	42.3	15.4	26.9	15.4
	1-3회	(68)	26.5	30.9	29.4	13.2
	4-9회	(24)	45.8	33.3	20.8	0.0
	10회 이상	(7)	0.0	42.9	57.1	0.0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60)	33.3	31.7	28.3	6.7
	경험없음	(65)	30.8	26.2	29.2	13.8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6)	30.8	26.9	30.8	11.5
	경험없음	(99)	32.3	29.3	28.3	10.1

2-2. 대외원조 규모 축소 필요 이유

- 대외원조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우리 경제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에'(45.3%)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다음으로 '국내 복지재정 확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31.3%), '원조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16.9%), '이미 원조규모가 크기 때문에'(6.6%)의 순이었음

<그림 Ⅲ-2-2> 대외원조 규모 축소 필요 이유

(Base : 대외원조 축소 필요 응답층, n=243, 단위: %)



■ 특성별 분석

- '우리 경제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대외원조 규모 축소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서울(66.7%), 직업별로 전업주부(54.2%), 소득별로 400-500만원 미만(56.4%)에서 비교적 많았음
- 한편, 지역별로 인천/경기(32.5%), 지역규모별로 중소도시(25.6%), 직업별로 블루칼라(22.4%), 한국 선진국 아니라고 생각(22.2%)에서는 '원조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Ⅲ-2-2> 대외원조 규모 축소 필요 이유

구분	사례수	우리 경제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국내 복지재정 확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원조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원조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체	(243)	45.3	31.3	16.9	6.6	
성별	남성	(114)	43.0	31.6	17.5	7.9
	여성	(129)	47.3	31.0	16.3	5.4
연령별	19-29세	(43)	46.5	18.6	23.3	11.6
	30대	(48)	41.7	35.4	18.8	4.2
	40대	(45)	44.4	33.3	17.8	4.4
	50대	(48)	47.9	29.2	16.7	6.3
	60대 이상	(59)	45.8	37.3	10.2	6.8
지역별	서울	(39)	66.7	33.3	0.0	0.0
	인천/경기	(77)	31.2	32.5	32.5	3.9
	부산/울산/경남	(44)	31.8	34.1	25.0	9.1
	대구/경북/강원	(16)	87.5	6.3	0.0	6.3
	대전/세종/충청	(39)	46.2	38.5	10.3	5.1
	광주/전라/제주	(28)	50.0	25.0	3.6	21.4
지역 규모별	광역시	(98)	49.0	32.7	8.2	10.2
	중소도시	(121)	40.5	30.6	25.6	3.3
	군지역	(24)	54.2	29.2	8.3	8.3
직업별	화이트칼라	(47)	44.7	34.0	6.4	14.9
	블루칼라	(58)	39.7	34.5	22.4	3.4
	자영업	(44)	45.5	36.4	15.9	2.3
	전업주부	(59)	54.2	27.1	13.6	5.1
	학생	(18)	55.6	16.7	27.8	0.0
	농림어업	(1)	0.0	100.0	0.0	0.0
	무직/기타	(16)	25.0	25.0	31.3	18.8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	75.0	25.0	0.0	0.0
	중학교 졸업	(25)	36.0	40.0	24.0	0.0
	고등학교 졸업	(115)	45.2	27.0	20.0	7.8
	대학 재학/졸업	(86)	43.0	34.9	14.0	8.1
	대학원 재학 이상	(4)	50.0	50.0	0.0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소득별	200만원 미만	(25)	52.0	36.0	12.0	0.0
	200-300만원 미만	(58)	41.4	36.2	15.5	6.9
	300-400만원 미만	(68)	42.6	26.5	19.1	11.8
	400-500만원 미만	(55)	56.4	27.3	12.7	3.6
	500-600만원 미만	(27)	33.3	37.0	22.2	7.4
	600-700만원 미만	(6)	50.0	33.3	16.7	0.0
	700만원 이상	(4)	25.0	25.0	50.0	0.0

구분		사례수	우리 경제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국내 복지재정 확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원조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원조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체		(243)	45.3	31.3	16.9	6.6
대외원조 찬반	찬성	(107)	50.5	30.8	12.1	6.5
	반대	(136)	41.2	31.6	20.6	6.6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126)	51.6	29.4	11.9	7.1
	선진국 아님	(117)	38.5	33.3	22.2	6.0
원조인지	인지	(84)	42.9	33.3	15.5	8.3
	비인지	(159)	46.5	30.2	17.6	5.7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40)	47.5	32.5	15.0	5.0
	경험없음	(93)	41.9	31.2	18.3	8.6
원조참여 의사	있음	(60)	48.3	28.3	16.7	6.7
	없음	(183)	44.3	32.2	16.9	6.6
외국방문 경험	없음	(110)	47.3	30.9	16.4	5.5
	1-3회	(101)	44.6	30.7	16.8	7.9
	4-9회	(25)	40.0	32.0	20.0	8.0
	10회 이상	(7)	42.9	42.9	14.3	0.0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34)	47.1	32.4	17.6	2.9
	경험없음	(209)	45.0	31.1	16.7	7.2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6)	53.8	34.6	7.7	3.8
	경험없음	(217)	44.2	30.9	18.0	6.9

IV. 정부의 대외원조 효과 및 정책 개선 과제

1. 정부 대외원조의 실질적 효과

- 우리 정부가 저개발국에 제공하는 원조가 저개발국 경제발전과 빈곤퇴치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80.5% : '매우 그렇다' 11.6%, '그런 편이다' 68.9%)가 '그렇다'고 답함



■ 특성별 분석

- '우리 정부의 원조가 저개발국 경제발전과 빈곤퇴치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지역별로 서울(88.4%), 대구/경북/강원(90.1%), 소득별로 600-700만원 미만(88.6%), 대외원조 찬성(89.8%), 저개발국 방문경험 있음(89.3%), 금전적 기부경험 있음(89.0%)에서 다소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36.9%), 대외원조 반대(56.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1> 대외원조의 실질적 효과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1,000)	11.6	68.9	17.3	2.2	80.5	19.5
성별	남성	(496)	11.7	69.4	16.1	2.8	81.0	19.0
	여성	(504)	11.5	68.5	18.5	1.6	80.0	20.0
연령별	19-29세	(179)	11.2	68.7	20.1	0.0	79.9	20.1
	30대	(183)	7.7	69.4	19.7	3.3	77.0	23.0
	40대	(208)	12.5	67.3	17.8	2.4	79.8	20.2
	50대	(198)	12.6	69.7	15.2	2.5	82.3	17.7
	60대 이상	(232)	13.4	69.4	14.7	2.6	82.8	17.2
지역별	서울	(199)	14.1	74.4	10.6	1.0	88.4	11.6
	인천/경기	(296)	13.2	64.5	21.3	1.0	77.7	22.3
	부산/울산/경남	(156)	10.9	67.9	19.9	1.3	78.8	21.2
	대구/경북/강원	(131)	4.6	85.5	6.1	3.8	90.1	9.9
	대전/세종/충청	(103)	11.7	51.5	36.9	0.0	63.1	36.9
	광주/전라/제주	(115)	12.2	68.7	10.4	8.7	80.9	19.1
지역 규모별	광역시	(453)	10.4	71.7	16.3	1.5	82.1	17.9
	중소도시	(466)	13.3	65.7	18.2	2.8	79.0	21.0
	군지역	(81)	8.6	71.6	17.3	2.5	80.2	19.8
직업별	화이트칼라	(236)	11.9	71.2	15.7	1.3	83.1	16.9
	블루칼라	(216)	11.6	68.1	18.5	1.9	79.6	20.4
	자영업	(197)	9.6	72.1	13.7	4.6	81.7	18.3
	전업주부	(200)	12.5	65.5	20.0	2.0	78.0	22.0
	학생	(89)	10.1	71.9	18.0	0.0	82.0	18.0
	농림어업	(9)	33.3	55.6	11.1	0.0	88.9	11.1
	무직/기타	(53)	13.2	60.4	22.6	3.8	73.6	26.4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	11.4	71.4	8.6	8.6	82.9	17.1
	중학교 졸업	(78)	10.3	65.4	20.5	3.8	75.6	24.4
	고등학교 졸업	(399)	12.3	66.7	19.8	1.3	78.9	21.1
	대학 재학/졸업	(460)	10.9	71.5	15.4	2.2	82.4	17.6
	대학원 재학 이상	(25)	20.0	64.0	16.0	0.0	84.0	16.0
	모름/무응답	(3)	0.0	66.7	0.0	33.3	66.7	33.3
소득별	200만원 미만	(86)	12.8	60.5	24.4	2.3	73.3	26.7
	200-300만원 미만	(188)	8.5	70.7	18.6	2.1	79.3	20.7
	300-400만원 미만	(273)	9.2	65.9	20.1	4.8	75.1	24.9
	400-500만원 미만	(221)	12.2	73.3	13.6	0.9	85.5	14.5
	500-600만원 미만	(147)	13.6	72.1	13.6	0.7	85.7	14.3
	600-700만원 미만	(44)	18.2	70.5	11.4	0.0	88.6	11.4
	700만원 이상	(39)	17.9	64.1	17.9	0.0	82.1	17.9
	모름/무응답	(2)	100.0	0.0	0.0	0.0	100.0	0.0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1,000)	11.6	68.9	17.3	2.2	80.5	19.5
대외원조 찬반	찬성	(800)	13.4	76.4	9.6	0.6	89.8	10.3
	반대	(200)	4.5	39.0	48.0	8.5	43.5	56.5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524)	13.0	71.4	14.5	1.1	84.4	15.6
	선진국 아님	(476)	10.1	66.2	20.4	3.4	76.3	23.7
원조인지	인지	(472)	12.5	73.3	12.9	1.3	<u>85.8</u>	14.2
	비인지	(528)	10.8	65.0	21.2	3.0	75.8	24.2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253)	16.2	73.1	9.9	0.8	89.3	10.7
	경험없음	(362)	9.1	69.3	19.1	2.5	78.5	21.5
원조참여 의사	있음	(483)	14.7	73.1	10.6	1.7	87.8	12.2
	없음	(517)	8.7	65.0	23.6	2.7	73.7	26.3
외국방문 경험	없음	(385)	10.9	65.7	20.5	2.9	76.6	23.4
	1-3회	(450)	11.1	71.8	15.1	2.0	82.9	17.1
	4-9회	(128)	13.3	70.3	14.8	1.6	83.6	16.4
	10회 이상	(37)	18.9	62.2	18.9	0.0	81.1	18.9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46)	15.4	73.6	10.2	0.8	89.0	11.0
	경험없음	(754)	10.3	67.4	19.6	2.7	77.7	22.3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43)	21.7	64.3	13.3	0.7	86.0	14.0
	경험없음	(857)	9.9	69.7	18.0	2.5	79.6	20.4

1-1. 정부의 대외원조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 우리 정부의 대외원조가 저개발국 경제발전과 빈곤퇴치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조집행의 투명성이 부족해서'(23.1%)로 나타남
- 다음으로 '저개발국의 관리 능력이 부족해서'(20.0%), '우리나라 원조집행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해서'(17.4%) 등의 순임

<그림 IV-1-1> 정부의 대외원조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Base : 대외원조 도움 부정적 응답층, n=195, 단위: %)



■ 특성별 분석

- 정부의 대외원조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원조집행의 투명성 부족'은 연령별로 30대(33.3%),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39.4%), 직업별로 자영업(30.6%)에서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저개발국의 관리능력이 부족해서'는 연령별로 19-29세(30.6%), 지역별로 인천/경기(30.3%), 대외원조 찬성(31.7%)에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았음

<표 IV-1-1> 정부의 대외원조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구분	사례수	원조집행의 투명성이 부족해서	저개발국의 관리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나라 원조집행 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우리나라 원조집행 기관간의 협력이 부족해서	저개발국 현지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원조규모가 작아서	
전체	(195)	23.1	20.0	17.4	15.9	13.3	10.3	
성별	남성	(94)	17.0	22.3	18.1	16.0	13.8	12.8
	여성	(101)	28.7	17.8	16.8	15.8	12.9	7.9
연령별	19-29세	(36)	27.8	30.6	13.9	8.3	5.6	13.9
	30대	(42)	33.3	14.3	14.3	14.3	7.1	16.7
	40대	(42)	19.0	19.0	19.0	19.0	16.7	7.1
	50대	(35)	17.1	22.9	17.1	25.7	11.4	5.7
	60대 이상	(40)	17.5	15.0	22.5	12.5	25.0	7.5
지역별	서울	(23)	30.4	26.1	4.3	4.3	30.4	4.3
	인천/경기	(66)	21.2	30.3	12.1	13.6	12.1	10.6
	부산/울산/경남	(33)	39.4	21.2	18.2	15.2	3.0	3.0
	대구/경북/강원	(13)	15.4	15.4	23.1	7.7	15.4	23.1
	대전/세종/충청	(38)	18.4	10.5	18.4	21.1	18.4	13.2
	광주/전라/제주	(22)	9.1	0.0	40.9	31.8	4.5	13.6
지역 규모별	광역시	(81)	24.7	24.7	16.0	13.6	16.0	4.9
	중소도시	(98)	21.4	16.3	17.3	18.4	11.2	15.3
	군지역	(16)	25.0	18.8	25.0	12.5	12.5	6.3
직업별	화이트칼라	(40)	15.0	25.0	12.5	20.0	15.0	12.5
	블루칼라	(44)	25.0	20.5	18.2	13.6	11.4	11.4
	자영업	(36)	30.6	13.9	25.0	8.3	13.9	8.3
	전업주부	(44)	20.5	22.7	18.2	15.9	13.6	9.1
	학생	(16)	31.3	25.0	12.5	18.8	0.0	12.5
	농림어업	(1)	0.0	0.0	0.0	100.0	0.0	0.0
	무직/기타	(14)	21.4	7.1	14.3	21.4	28.6	7.1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6)	16.7	0.0	50.0	0.0	33.3	0.0
	중학교 졸업	(19)	21.1	26.3	15.8	10.5	15.8	10.5
	고등학교 졸업	(84)	27.4	22.6	15.5	16.7	11.9	6.0
	대학 재학/졸업	(81)	19.8	17.3	17.3	17.3	12.3	16.0
	대학원 재학 이상	(4)	25.0	25.0	25.0	0.0	25.0	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소득별	200만원 미만	(23)	26.1	17.4	13.0	17.4	21.7	4.3
	200-300만원 미만	(39)	17.9	20.5	12.8	15.4	15.4	17.9
	300-400만원 미만	(68)	17.6	25.0	23.5	19.1	5.9	8.8
	400-500만원 미만	(32)	18.8	15.6	15.6	21.9	18.8	9.4
	500-600만원 미만	(21)	38.1	19.0	19.0	4.8	9.5	9.5
	600-700만원 미만	(5)	40.0	20.0	0.0	0.0	40.0	0.0
	700만원 이상	(7)	57.1	0.0	14.3	0.0	14.3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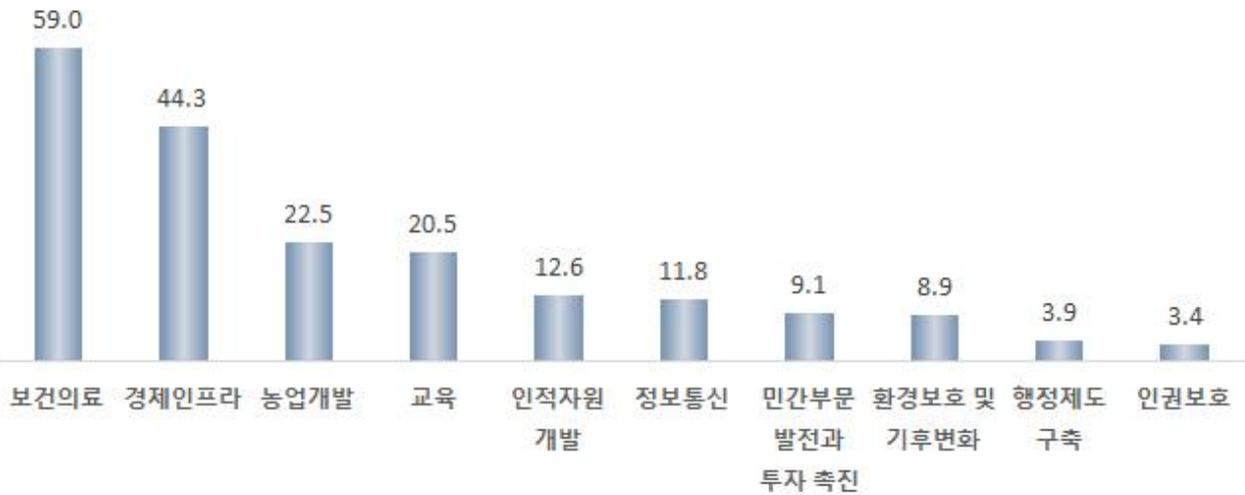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원조집행의 투명성이 부족해서	저개발국의 관리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나라 원조집행 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우리나라 원조집행 기관간의 협력이 부족해서	저개발국 현지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원조규모가 작아서
전체		(195)	23.1	20.0	17.4	15.9	13.3	10.3
대외원조 찬반	찬성	(82)	23.2	31.7	13.4	9.8	15.9	6.1
	반대	(113)	23.0	11.5	20.4	20.4	11.5	13.3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82)	20.7	17.1	15.9	13.4	17.1	15.9
	선진국 아님	(113)	24.8	22.1	18.6	17.7	10.6	6.2
원조인지	인지	(67)	22.4	28.4	14.9	16.4	11.9	6.0
	비인지	(128)	23.4	15.6	18.8	15.6	14.1	12.5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27)	29.6	25.9	22.2	3.7	14.8	3.7
	경험없음	(78)	17.9	23.1	19.2	20.5	9.0	10.3
원조참여 의사	있음	(59)	20.3	22.0	23.7	11.9	10.2	11.9
	없음	(136)	24.3	19.1	14.7	17.6	14.7	9.6
외국방문 경험	없음	(90)	25.6	15.6	14.4	15.6	16.7	12.2
	1-3회	(77)	23.4	26.0	15.6	16.9	7.8	10.4
	4-9회	(21)	4.8	23.8	38.1	19.0	9.5	4.8
	10회 이상	(7)	42.9	0.0	14.3	0.0	42.9	0.0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7)	22.2	37.0	25.9	3.7	11.1	0.0
	경험없음	(168)	23.2	17.3	16.1	17.9	13.7	11.9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0)	30.0	10.0	35.0	10.0	15.0	0.0
	경험없음	(175)	22.3	21.1	15.4	16.6	13.1	11.4

2. 우리나라가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외원조 분야

- 대외원조 분야 중 우리나라가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로 '보건의료'(59.0%) 응답이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경제인프라'(44.3%) 응답률도 높았으며, '농업개발'(22.5%), '교육'(20.5%) 등이 뒤를 이음

<그림 IV-2> 우리나라가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외원조 분야 (복수응답)

(n=1,000, 단위: %)



■ 특성별 분석

- '보건의료'가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외원조 분야라는 의견은 직업별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68.6%), 소득별로 200만원 미만(70.9%)에서 다소 높았음
- '경제 인프라' 응답은 고소득층(600-700만원 미만 50.0%, 700만원 이상 59.0%)에서, 외국 방문 경험이 많을수록(10회 이상 56.8%)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임

<표 IV-2> 우리나라가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외원조 분야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보건료	경제인프라	농업개발	교육	인적개발	정보통신	민간부문발전·자진발투족	환경호·후회변화	행정도구	인권보호	
전체	(1,000)	59.0	44.3	22.5	20.5	12.6	11.8	9.1	8.9	3.9	3.4	
성별	남성	(496)	56.9	45.8	21.6	18.5	14.1	12.7	9.3	9.5	3.8	3.8
	여성	(504)	61.1	42.9	23.4	22.4	11.1	10.9	8.9	8.3	4.0	3.0
연령별	19-29세	(179)	54.2	46.4	19.0	23.5	12.8	17.9	5.0	9.5	2.2	5.0
	30대	(183)	61.2	43.2	16.9	23.0	12.0	15.3	12.0	7.1	2.7	3.3
	40대	(208)	59.1	46.2	25.0	14.9	13.9	11.5	10.1	8.7	4.3	2.4
	50대	(198)	62.1	48.5	23.2	21.2	11.1	10.1	6.1	6.1	4.0	3.5
	60대 이상	(232)	58.2	38.4	26.7	20.7	12.9	6.0	11.6	12.5	5.6	3.0
지역별	서울	(199)	64.3	55.8	19.6	21.1	5.0	9.0	11.6	5.5	2.0	3.5
	인천/경기	(296)	60.1	57.4	14.9	17.9	10.1	16.2	11.8	4.4	1.4	2.7
	부산/울산/경남	(156)	62.8	25.0	30.8	30.8	10.3	9.6	9.0	9.6	3.8	7.1
	대구/경북/강원	(131)	64.1	35.9	27.5	25.2	10.7	4.6	1.5	7.6	6.1	2.3
	대전/세종/충청	(103)	54.4	22.3	24.3	10.7	19.4	20.4	15.5	20.4	6.8	3.9
	광주/전라/제주	(115)	40.0	46.1	28.7	15.7	31.3	8.7	0.9	16.5	8.7	0.9
지역 규모별	광역시	(453)	56.5	48.3	22.1	23.6	11.3	9.5	9.3	7.3	3.5	3.5
	중소도시	(466)	61.8	40.8	23.6	17.0	14.4	15.0	9.4	9.2	3.0	2.4
	군지역	(81)	56.8	42.0	18.5	23.5	9.9	6.2	6.2	16.0	11.1	8.6
직업별	화이트칼라	(236)	53.4	49.6	26.3	18.2	12.3	11.9	11.9	8.9	2.1	1.3
	블루칼라	(216)	60.2	42.1	21.3	18.5	12.5	13.4	8.3	8.8	3.2	6.9
	자영업	(197)	64.5	47.7	18.3	18.8	11.2	8.1	8.1	7.6	8.1	3.6
	전업주부	(200)	61.0	37.5	27.0	23.0	12.0	9.0	11.5	10.0	4.0	2.5
	학생	(89)	55.1	42.7	15.7	31.5	13.5	21.3	1.1	9.0	2.2	3.4
	농림어업	(9)	66.7	44.4	22.2	22.2	22.2	11.1	11.1	0.0	0.0	0.0
	무직/기타	(53)	56.6	45.3	20.8	17.0	18.9	13.2	7.5	11.3	1.9	1.9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	68.6	31.4	31.4	22.9	17.1	2.9	2.9	14.3	2.9	0.0
	중학교 졸업	(78)	64.1	43.6	23.1	17.9	12.8	7.7	11.5	10.3	5.1	2.6
	고등학교 졸업	(399)	60.4	41.1	24.8	19.3	10.0	11.0	9.5	9.8	5.3	4.8
	대학 재학/졸업	(460)	56.3	46.3	20.7	22.2	14.8	13.3	8.7	8.0	2.8	2.6
	대학원 재학 이상	(25)	56.0	80.0	4.0	12.0	8.0	24.0	12.0	0.0	0.0	0.0
	모름/무응답	(3)	66.7	33.3	33.3	33.3	0.0	0.0	0.0	0.0	0.0	33.3
소득별	200만원 미만	(86)	70.9	36.0	26.7	19.8	10.5	10.5	2.3	12.8	2.3	2.3
	200-300만원 미만	(188)	57.4	43.1	19.1	20.2	10.6	12.8	10.6	10.6	6.4	3.2
	300-400만원 미만	(273)	57.1	45.1	23.1	16.1	15.4	12.1	10.3	10.6	4.8	3.7
	400-500만원 미만	(221)	61.1	44.3	20.4	21.3	12.7	10.0	11.3	8.1	2.3	4.5
	500-600만원 미만	(147)	53.1	44.2	27.9	28.6	10.2	11.6	8.2	5.4	4.1	3.4
	600-700만원 미만	(44)	61.4	50.0	22.7	9.1	15.9	20.5	9.1	4.5	0.0	0.0
	700만원 이상	(39)	61.5	59.0	15.4	30.8	12.8	10.3	0.0	2.6	2.6	2.6
	모름/무응답	(2)	50.0	0.0	50.0	50.0	0.0	0.0	0.0	0.0	0.0	0.0

구분	사례수	보건 의료	경제 인프라	농업 개발	교육	인적 자원 개발	정보 통신	민간 부문 투자 촉진	환경 보호· 기후 변화	행정 제도 구축	인권 보호	
전체	(1,000)	59.0	44.3	22.5	20.5	12.6	11.8	9.1	8.9	3.9	3.4	
대외원조 찬반	찬성	(800)	60.4	44.9	23.5	21.4	11.3	11.6	8.9	7.5	3.5	3.3
	반대	(200)	53.5	42.0	18.5	17.0	18.0	12.5	10.0	14.5	5.5	4.0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524)	59.9	43.9	19.5	19.8	11.1	13.0	9.2	10.1	4.6	4.4
	선진국 아님	(476)	58.0	44.7	25.8	21.2	14.3	10.5	9.0	7.6	3.2	2.3
원조인지	인지	(472)	63.1	44.3	24.2	22.5	10.2	9.7	9.3	6.6	3.2	2.3
	비인지	(528)	55.3	44.3	21.0	18.8	14.8	13.6	8.9	11.0	4.5	4.4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253)	58.5	48.2	22.1	24.1	8.3	9.5	11.1	5.5	5.1	3.6
	경험없음	(362)	56.6	47.5	19.3	20.2	14.1	12.4	9.4	8.8	3.9	3.0
원조참여 의사	있음	(483)	59.2	45.3	20.3	24.4	10.8	12.8	8.7	8.7	2.3	3.3
	없음	(517)	58.8	43.3	24.6	16.8	14.3	10.8	9.5	9.1	5.4	3.5
외국방문 경험	없음	(385)	61.6	38.7	25.7	18.4	14.0	12.7	7.5	11.2	3.1	3.6
	1-3회	(450)	58.2	46.0	20.0	21.3	11.8	12.2	10.9	7.1	4.2	3.8
	4-9회	(128)	53.9	51.6	23.4	20.3	12.5	7.8	7.0	10.2	6.3	2.3
	10회 이상	(37)	59.5	56.8	16.2	32.4	8.1	10.8	10.8	2.7	0.0	0.0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46)	58.9	47.6	24.4	24.4	13.8	8.9	8.5	4.9	1.2	1.6
	경험없음	(754)	59.0	43.2	21.9	19.2	12.2	12.7	9.3	10.2	4.8	4.0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43)	53.8	46.2	23.8	19.6	9.8	12.6	13.3	10.5	2.8	2.8
	경험없음	(857)	59.9	44.0	22.3	20.7	13.1	11.7	8.4	8.6	4.1	3.5

3. 저개발국 지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 우리나라의 저개발국 지원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관으로는 '정부기관' 응답률이 44.3%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 '민간단체'(29.8%), '민간기업'(14.9%), '대학·병원 등 전문기관'(11.0%)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3> 저개발국 지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n=1,000, 단위: %)



■ 특성별 분석

- '정부기관'이 저개발국 지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65.2%), 학력별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62.9%)에서 비교적 많았음
- 대외원조 반대(30.0%)에서는 '민간기업'이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남

<표 IV-3> 저개발국 지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구분		사례수	정부기관	민간단체	민간기업	대학, 병원 등 전문기관
전체		(1,000)	44.3	29.8	14.9	11.0
성별	남성	(496)	43.8	30.8	14.9	10.5
	여성	(504)	44.8	28.8	14.9	11.5
연령별	19-29세	(179)	40.2	30.7	15.1	14.0
	30대	(183)	38.8	34.4	14.2	12.6
	40대	(208)	43.8	32.7	14.4	9.1
	50대	(198)	49.0	28.8	14.6	7.6
	60대 이상	(232)	48.3	23.7	15.9	12.1
지역별	서울	(199)	40.2	34.7	9.0	16.1
	인천/경기	(296)	39.5	31.1	20.9	8.4
	부산/울산/경남	(156)	39.7	30.8	12.2	17.3
	대구/경북/강원	(131)	53.4	37.4	1.5	7.6
	대전/세종/충청	(103)	37.9	19.4	35.9	6.8
	광주/전라/제주	(115)	65.2	17.4	9.6	7.8
지역 규모별	광역시	(453)	41.3	36.2	10.6	11.9
	중소도시	(466)	48.1	22.7	18.2	10.9
	군지역	(81)	39.5	34.6	19.8	6.2
직업별	화이트칼라	(236)	42.8	34.7	12.3	10.2
	블루칼라	(216)	48.6	20.8	16.7	13.9
	자영업	(197)	43.1	37.6	11.2	8.1
	전업주부	(200)	49.0	26.5	14.0	10.5
	학생	(89)	40.4	32.6	16.9	10.1
	농림어업	(9)	33.3	11.1	22.2	33.3
	무직/기타	(53)	28.3	26.4	32.1	13.2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	62.9	8.6	5.7	22.9
	중학교 졸업	(78)	50.0	26.9	16.7	6.4
	고등학교 졸업	(399)	47.4	23.1	17.8	11.8
	대학 재학/졸업	(460)	39.3	37.2	13.0	10.4
	대학원 재학 이상	(25)	44.0	40.0	8.0	8.0
	모름/무응답	(3)	33.3	33.3	33.3	0.0
소득별	200만원 미만	(86)	41.9	20.9	19.8	17.4
	200-300만원 미만	(188)	46.3	27.1	16.5	10.1
	300-400만원 미만	(273)	50.9	26.0	12.8	10.3
	400-500만원 미만	(221)	44.8	35.3	13.1	6.8
	500-600만원 미만	(147)	36.7	34.7	13.6	15.0
	600-700만원 미만	(44)	34.1	31.8	25.0	9.1
	700만원 이상	(39)	33.3	35.9	15.4	15.4
	모름/무응답	(2)	0.0	50.0	0.0	50.0

구분		사례수	정부기관	민간단체	민간기업	대학, 병원 등 전문기관
전체		(1,000)	44.3	29.8	14.9	11.0
대외원조 찬반	찬성	(800)	46.3	31.4	11.1	11.3
	반대	(200)	36.5	23.5	30.0	10.0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524)	48.9	27.7	15.8	7.6
	선진국 아님	(476)	39.3	32.1	13.9	14.7
원조인지	인지	(472)	43.0	33.5	12.5	11.0
	비인지	(528)	45.5	26.5	17.0	11.0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253)	43.1	34.8	10.3	11.9
	경험없음	(362)	41.7	31.5	16.9	9.9
원조참여 의사	있음	(483)	43.5	31.7	13.0	11.8
	없음	(517)	45.1	28.0	16.6	10.3
외국방문 경험	없음	(385)	47.5	24.9	16.1	11.4
	1-3회	(450)	42.7	32.4	15.1	9.8
	4-9회	(128)	39.8	35.9	12.5	11.7
	10회 이상	(37)	45.9	27.0	8.1	18.9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46)	39.8	38.2	7.7	14.2
	경험없음	(754)	45.8	27.1	17.2	9.9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43)	39.9	38.5	7.7	14.0
	경험없음	(857)	45.0	28.4	16.1	10.5

4. 대외원조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

- 현재 정부의 대외원조 정책의 문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원조정책 집행에서의 투명성 부족'이라는 의견이 55.6%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원조집행기관 간 협력 및 소통부족'(3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성별 분석

- '원조정책 집행에서의 투명성 부족'이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라는 의견은 직업별로 학생(64.0%), 대외원조 반대(62.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원조집행기관간 협력 및 소통부족'은 지역별로 인천/경기(46.6%)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임

<표 IV-4> 대외원조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원조정책 집행성 투명성 부족	원조집행 기관간 협력 소통부족	원조관련 전문가 부족	원조관련 교육 홍보 부족	민간기 참여 미흡	원조정책 일관성 부족 중복	원조사업 관리 소홀로 인한 예산 낭비
전체		(1,000)	55.6	34.8	23.8	23.2	21.4	19.8	16.4
성별	남성	(496)	55.6	36.5	24.8	21.8	21.6	20.0	14.3
	여성	(504)	55.6	33.1	22.8	24.6	21.2	19.6	18.5
연령별	19-29세	(179)	51.4	31.3	22.3	25.7	23.5	20.1	20.7
	30대	(183)	55.7	34.4	25.7	21.3	22.4	16.4	21.3
	40대	(208)	58.2	37.0	22.6	23.1	18.8	23.1	12.5
	50대	(198)	55.6	34.3	26.3	23.2	23.2	18.2	12.1
	60대 이상	(232)	56.5	36.2	22.4	22.8	19.8	20.7	16.4
지역별	서울	(199)	55.3	39.2	24.1	17.6	21.6	19.6	18.1
	인천/경기	(296)	60.5	46.6	15.2	20.6	14.2	18.2	18.9
	부산/울산/경남	(156)	50.6	23.7	27.6	22.4	26.3	24.4	23.7
	대구/경북/강원	(131)	51.9	29.0	26.7	30.5	26.7	13.0	16.8
	대전/세종/충청	(103)	57.3	15.5	26.2	36.9	19.4	30.1	3.9
	광주/전라/제주	(115)	53.0	35.7	34.8	20.0	28.7	16.5	7.8
지역 규모별	광역시	(453)	55.0	35.8	23.6	21.0	21.4	19.6	17.9
	중소도시	(466)	57.5	36.3	24.0	23.2	19.1	21.0	15.2
	군지역	(81)	48.1	21.0	23.5	35.8	34.6	13.6	14.8
직업별	화이트칼라	(236)	49.2	38.6	26.7	21.6	19.5	24.6	14.8
	블루칼라	(216)	57.4	33.8	26.4	24.1	21.3	17.1	15.7
	자영업	(197)	57.4	35.0	21.8	20.8	22.8	19.3	17.8
	전업주부	(200)	57.5	34.5	23.5	23.0	19.5	20.5	15.0
	학생	(89)	64.0	30.3	18.0	24.7	21.3	16.9	20.2
	농림어업	(9)	66.7	22.2	22.2	33.3	44.4	0.0	11.1
	무직/기타	(53)	47.2	32.1	18.9	32.1	28.3	17.0	20.8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	57.1	28.6	31.4	20.0	34.3	14.3	8.6
	중학교 졸업	(78)	57.7	33.3	24.4	21.8	19.2	20.5	21.8
	고등학교 졸업	(399)	56.1	36.6	23.1	26.3	19.3	17.5	15.8
	대학 재학/졸업	(460)	55.0	33.5	23.9	20.2	23.0	22.0	17.0
	대학원 재학 이상	(25)	48.0	44.0	24.0	32.0	16.0	24.0	12.0
	모름/무응답	(3)	66.7	33.3	0.0	66.7	0.0	0.0	0.0
소득별	200만원 미만	(86)	55.8	33.7	18.6	26.7	26.7	17.4	18.6
	200-300만원 미만	(188)	50.5	32.4	23.4	26.6	20.2	21.8	18.1
	300-400만원 미만	(273)	60.8	34.4	30.4	19.8	20.1	18.3	11.0
	400-500만원 미만	(221)	52.5	38.5	21.7	25.3	24.0	18.6	14.0
	500-600만원 미만	(147)	56.5	36.1	18.4	22.4	19.0	22.4	21.8
	600-700만원 미만	(44)	59.1	40.9	18.2	18.2	20.5	22.7	15.9
	700만원 이상	(39)	53.8	20.5	30.8	20.5	17.9	20.5	33.3
	모름/무응답	(2)	50.0	0.0	0.0	0.0	50.0	0.0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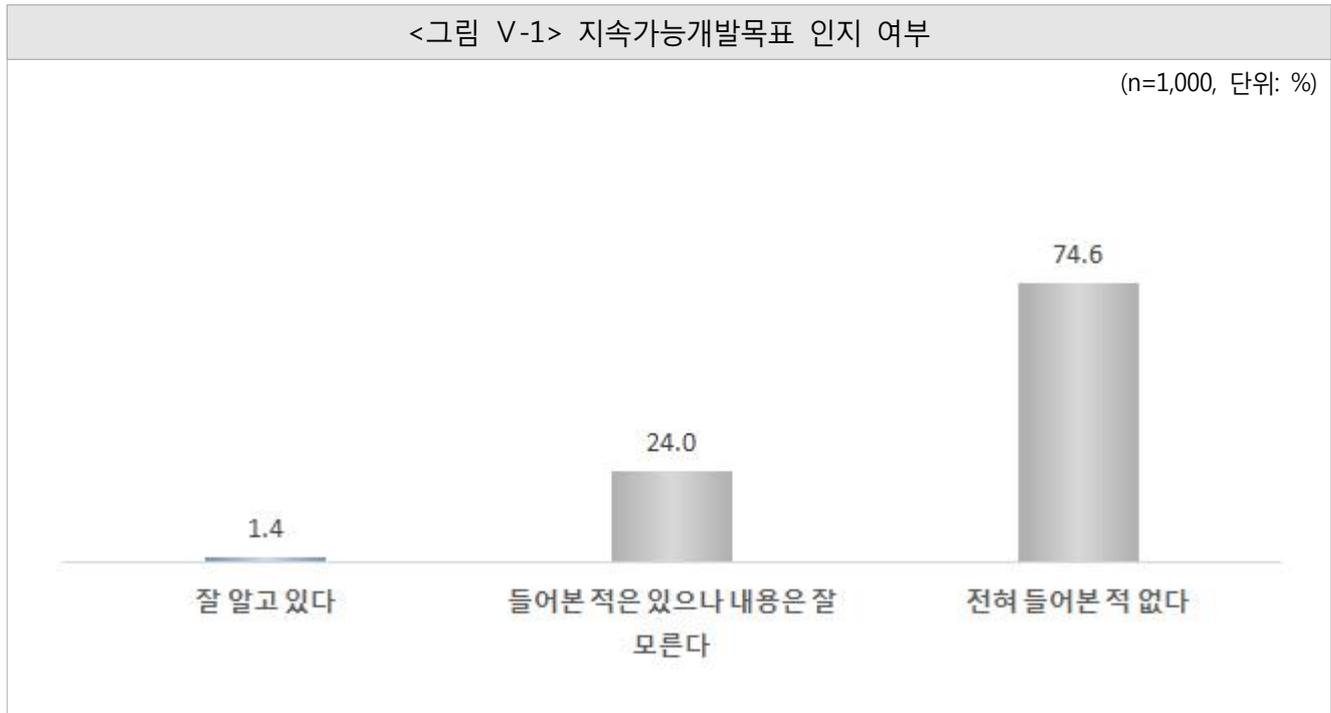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원조정책 집행성 투명성 부족	원조집행 기관간 협력 소통부족	원조관련 전문가 부족	원조관련 교육 홍보 부족	민간기 관 참여 미흡	원조정책 일관성 및 부처 중복	원조사업 관리 소홀로 인한 예산 낭비
전체		(1,000)	55.6	34.8	23.8	23.2	21.4	19.8	16.4
대외원조 찬반	찬성	(800)	53.9	36.5	24.0	23.5	20.9	19.4	16.8
	반대	(200)	62.5	28.0	23.0	22.0	23.5	21.5	15.0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524)	55.9	32.1	22.3	26.7	20.6	20.4	16.0
	선진국 아님	(476)	55.3	37.8	25.4	19.3	22.3	19.1	16.8
원조인지	인지	(472)	57.6	35.4	22.5	22.2	21.8	18.4	17.8
	비인지	(528)	53.8	34.3	25.0	24.1	21.0	21.0	15.2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253)	59.7	31.6	22.1	19.0	20.9	23.7	19.8
	경험없음	(362)	53.6	37.3	24.0	24.0	22.7	18.0	14.9
원조참여 의사	있음	(483)	54.0	33.7	24.2	22.2	21.5	21.1	18.4
	없음	(517)	57.1	35.8	23.4	24.2	21.3	18.6	14.5
외국방문 경험	없음	(385)	54.8	34.5	24.7	25.2	20.5	19.0	15.6
	1-3회	(450)	55.1	34.9	24.2	23.3	21.6	20.7	16.0
	4-9회	(128)	61.7	35.9	20.3	17.2	23.4	19.5	18.0
	10회 이상	(37)	48.6	32.4	21.6	21.6	21.6	18.9	24.3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46)	53.7	42.7	23.6	21.5	20.7	16.7	16.3
	경험없음	(754)	56.2	32.2	23.9	23.7	21.6	20.8	16.4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43)	53.8	35.7	26.6	25.2	21.0	16.8	15.4
	경험없음	(857)	55.9	34.7	23.3	22.9	21.5	20.3	16.6

V. 대외원조 관련 정보 접근성

1. 지속가능개발목표 인지 여부

- UN과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공동 번영을 위해 설정한 '2030 지속가능개발 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대한 인지도는 1.4%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V-1> 지속가능개발목표 인지 여부



■ 특성별 분석

- 지속가능개발목표 인지도는 외국 방문경험 10회 이상(10.8%)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전혀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95.1%), 소득별로 200만원 미만(90.7%)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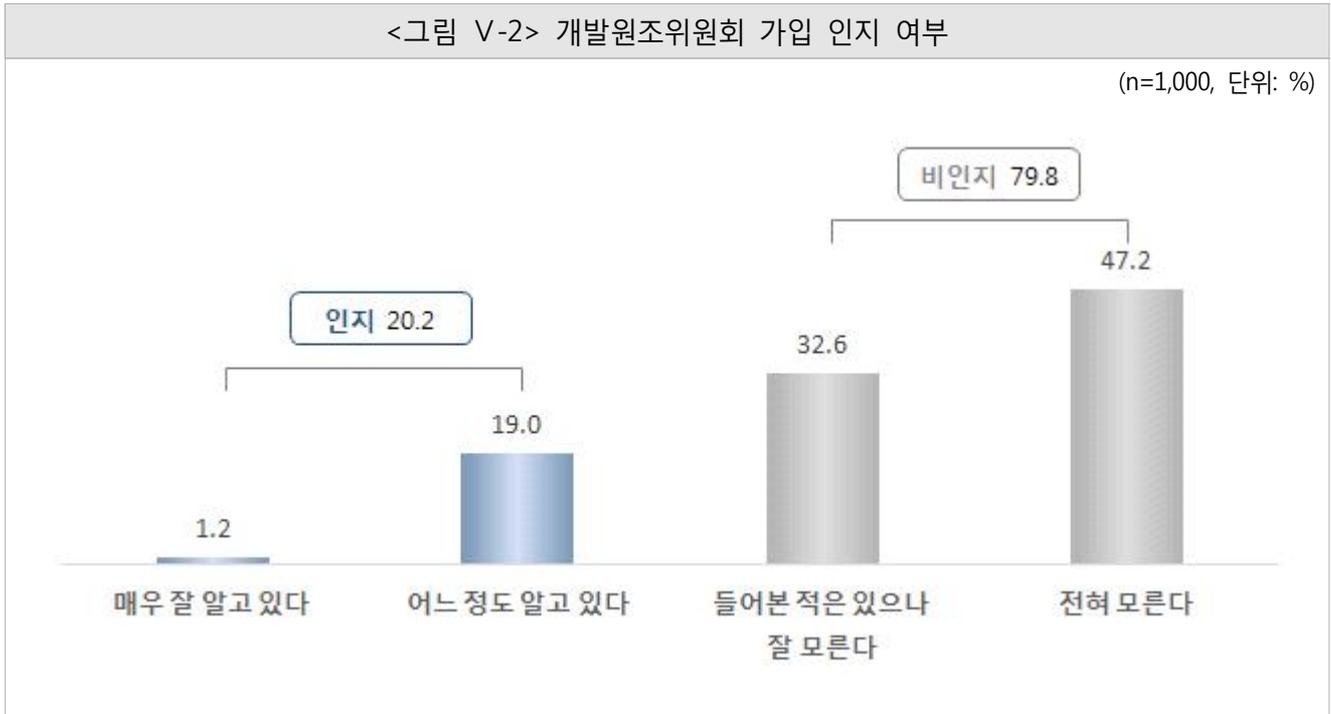
<표 V-1> 지속가능개발목표 인지 여부

구분		사례수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전혀 들어본 적 없다
전체		(1,000)	1.4	24.0	74.6
성별	남성	(496)	2.0	28.4	69.6
	여성	(504)	0.8	19.6	79.6
연령별	19-29세	(179)	1.1	24.0	74.9
	30대	(183)	1.6	26.2	72.1
	40대	(208)	1.4	27.4	71.2
	50대	(198)	2.0	24.2	73.7
	60대 이상	(232)	0.9	19.0	80.2
지역별	서울	(199)	0.5	20.1	79.4
	인천/경기	(296)	2.0	27.0	70.9
	부산/울산/경남	(156)	0.0	23.1	76.9
	대구/경북/강원	(131)	1.5	35.9	62.6
	대전/세종/충청	(103)	0.0	4.9	95.1
	광주/전라/제주	(115)	4.3	27.8	67.8
지역 규모별	광역시	(453)	0.4	24.9	74.6
	중소도시	(466)	2.1	23.0	74.9
	군지역	(81)	2.5	24.7	72.8
직업별	화이트칼라	(236)	2.5	30.5	66.9
	블루칼라	(216)	0.9	27.8	71.3
	자영업	(197)	1.0	24.4	74.6
	전업주부	(200)	0.5	16.0	83.5
	학생	(89)	2.2	18.0	79.8
	농림어업	(9)	0.0	0.0	100.0
	무직/기타	(53)	1.9	22.6	75.5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	0.0	17.1	82.9
	중학교 졸업	(78)	1.3	15.4	83.3
	고등학교 졸업	(399)	1.3	19.3	79.4
	대학 재학/졸업	(460)	1.5	29.6	68.9
	대학원 재학 이상	(25)	4.0	32.0	64.0
	모름/무응답	(3)	0.0	33.3	66.7
소득별	200만원 미만	(86)	1.2	8.1	90.7
	200-300만원 미만	(188)	1.1	25.0	73.9
	300-400만원 미만	(273)	1.5	26.4	72.2
	400-500만원 미만	(221)	1.8	21.3	76.9
	500-600만원 미만	(147)	0.7	31.3	68.0
	600-700만원 미만	(44)	0.0	20.5	79.5
	700만원 이상	(39)	5.1	30.8	64.1
	모름/무응답	(2)	0.0	0.0	100.0

구분		사례수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전혀 들어본 적 없다
전체		(1,000)	1.4	24.0	74.6
대외원조 찬반	찬성	(800)	1.4	27.3	71.4
	반대	(200)	1.5	11.0	87.5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524)	1.0	24.0	75.0
	선진국 아님	(476)	1.9	23.9	74.2
원조인지	인지	(472)	2.1	33.1	64.8
	비인지	(528)	0.8	15.9	83.3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253)	2.4	25.3	72.3
	경험없음	(362)	0.8	27.1	72.1
원조참여 의사	있음	(483)	2.1	29.8	68.1
	없음	(517)	0.8	18.6	80.7
외국방문 경험	없음	(385)	1.3	20.3	78.4
	1-3회	(450)	0.9	24.7	74.4
	4-9회	(128)	0.8	31.3	68.0
	10회 이상	(37)	10.8	29.7	59.5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46)	2.4	35.0	62.6
	경험없음	(754)	1.1	20.4	78.5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43)	2.8	41.3	55.9
	경험없음	(857)	1.2	21.1	77.7

2.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인지 여부

-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원조공여국 모임인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여, 대외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20.2%(‘매우 잘 알고 있다’ 1.2%,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9.0%)로 나타남



■ 특성별 분석

- 우리나라의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인지도는 직업별로 화이트칼라(28.4%), 원조제공 인지(29.2%), 원조참여 의사 있음(27.1%), 외국 방문경험이 많을수록(10회 이상 35.1%), 금전적 기부경험 있음(29.3%), 비금전적 기부경험 있음(32.2%)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임
-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93.2%), 학력별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91.4%)에서는 인지도가 비교적 낮았음

<표 V-2>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인지 여부

구분		사례수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인지	비인지
전체		(1,000)	1.2	19.0	32.6	47.2	20.2	79.8
성별	남성	(496)	1.8	21.4	36.9	39.9	23.2	76.8
	여성	(504)	0.6	16.7	28.4	54.4	17.3	82.7
연령별	19-29세	(179)	1.7	19.6	29.1	49.7	21.2	78.8
	30대	(183)	1.1	20.8	32.2	45.9	21.9	78.1
	40대	(208)	0.5	18.3	38.9	42.3	18.8	81.3
	50대	(198)	2.0	21.7	34.8	41.4	23.7	76.3
	60대 이상	(232)	0.9	15.5	28.0	55.6	16.4	83.6
지역별	서울	(199)	1.5	20.1	25.1	53.3	21.6	78.4
	인천/경기	(296)	2.7	25.0	35.5	36.8	27.7	72.3
	부산/울산/경남	(156)	0.0	9.6	40.4	50.0	9.6	90.4
	대구/경북/강원	(131)	0.0	26.0	22.9	51.1	26.0	74.0
	대전/세종/충청	(103)	0.0	6.8	28.2	65.0	6.8	93.2
	광주/전라/제주	(115)	0.9	17.4	42.6	39.1	18.3	81.7
지역 규모별	광역시	(453)	1.1	20.8	29.1	49.0	21.9	78.1
	중소도시	(466)	1.1	18.9	37.8	42.3	20.0	80.0
	군지역	(81)	2.5	9.9	22.2	65.4	12.3	87.7
직업별	화이트칼라	(236)	2.1	26.3	33.1	38.6	28.4	71.6
	블루칼라	(216)	1.4	18.1	37.5	43.1	19.4	80.6
	자영업	(197)	0.5	18.3	34.0	47.2	18.8	81.2
	전업주부	(200)	0.5	13.0	28.0	58.5	13.5	86.5
	학생	(89)	2.2	19.1	29.2	49.4	21.3	78.7
	농림어업	(9)	0.0	0.0	0.0	100.0	0.0	100.0
	무직/기타	(53)	0.0	18.9	34.0	47.2	18.9	81.1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	0.0	8.6	20.0	71.4	8.6	91.4
	중학교 졸업	(78)	0.0	11.5	23.1	65.4	11.5	88.5
	고등학교 졸업	(399)	1.0	16.8	33.1	49.1	17.8	82.2
	대학 재학/졸업	(460)	1.5	23.3	35.7	39.6	24.8	75.2
	대학원 재학 이상	(25)	4.0	12.0	20.0	64.0	16.0	84.0
	모름/무응답	(3)	0.0	33.3	0.0	66.7	33.3	66.7
소득별	200만원 미만	(86)	0.0	4.7	22.1	73.3	4.7	95.3
	200-300만원 미만	(188)	0.5	18.1	31.4	50.0	18.6	81.4
	300-400만원 미만	(273)	1.1	20.5	34.4	44.0	21.6	78.4
	400-500만원 미만	(221)	0.5	21.7	34.4	43.4	22.2	77.8
	500-600만원 미만	(147)	2.7	21.8	35.4	40.1	24.5	75.5
	600-700만원 미만	(44)	2.3	18.2	27.3	52.3	20.5	79.5
	700만원 이상	(39)	5.1	20.5	33.3	41.0	25.6	74.4
	모름/무응답	(2)	0.0	0.0	50.0	50.0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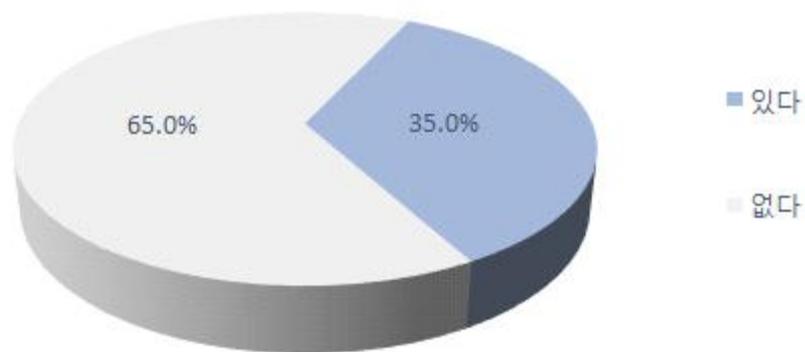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인지	비인지
전체		(1,000)	1.2	19.0	32.6	47.2	20.2	79.8
대외원조 찬반	찬성	(800)	1.5	21.4	33.3	43.9	22.9	77.1
	반대	(200)	0.0	9.5	30.0	60.5	9.5	90.5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524)	0.8	17.6	30.3	51.3	18.3	81.7
	선진국 아님	(476)	1.7	20.6	35.1	42.6	22.3	77.7
원조인지	인지	(472)	2.3	26.9	33.1	37.7	29.2	70.8
	비인지	(528)	0.2	11.9	32.2	55.7	12.1	87.9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253)	2.0	22.5	31.2	44.3	24.5	75.5
	경험없음	(362)	0.6	18.8	39.5	41.2	19.3	80.7
원조참여 의사	있음	(483)	2.3	24.8	32.3	40.6	27.1	72.9
	없음	(517)	0.2	13.5	32.9	53.4	13.7	86.3
외국방문 경험	없음	(385)	1.3	16.9	27.0	54.8	18.2	81.8
	1-3회	(450)	1.1	18.4	35.1	45.3	19.6	80.4
	4-9회	(128)	0.0	24.2	42.2	33.6	24.2	75.8
	10회 이상	(37)	5.4	29.7	27.0	37.8	35.1	64.9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46)	2.4	26.8	35.8	35.0	29.3	70.7
	경험없음	(754)	0.8	16.4	31.6	51.2	17.2	82.8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43)	2.8	29.4	31.5	36.4	32.2	67.8
	경험없음	(857)	0.9	17.3	32.8	49.0	18.2	81.8

3. 정부의 대외원조 관련 정보를 접해본 경험

- 정부의 대외원조 관련 정보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5.0%로 나타남

<그림 V-3> 정부의 대외원조 관련 정보를 접해본 경험

(n=1,000, 단위: %)



■ 특성별 분석

- 정부의 대외원조 관련 정보를 접해본 경험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51.3%), 원조제공 인지(52.1%), 외국 방문경험이 많을수록(10회 이상 48.6%), 금전적 기부경험 있음(47.6%), 비금전적 기부경험 있음(46.9%)에서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89.6%)에서, 학력이 낮을수록(초등학교 졸업 이하 88.6%) 대외원조 정보 경험률이 비교적 낮게 나타남

<표 V-3> 정부의 대외원조 관련 정보를 접해본 경험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1,000)	35.0	65.0
성별	남성	(496)	40.1	59.9
	여성	(504)	30.0	70.0
연령별	19-29세	(179)	28.5	71.5
	30대	(183)	36.6	63.4
	40대	(208)	35.6	64.4
	50대	(198)	40.9	59.1
	60대 이상	(232)	33.2	66.8
지역별	서울	(199)	39.7	60.3
	인천/경기	(296)	41.9	58.1
	부산/울산/경남	(156)	51.3	48.7
	대구/경북/강원	(131)	19.8	80.2
	대전/세종/충청	(103)	28.2	71.8
	광주/전라/제주	(115)	10.4	89.6
지역 규모별	광역시	(453)	39.1	60.9
	중소도시	(466)	33.9	66.1
	군지역	(81)	18.5	81.5
직업별	화이트칼라	(236)	42.8	57.2
	블루칼라	(216)	36.1	63.9
	자영업	(197)	37.6	62.4
	전업주부	(200)	28.0	72.0
	학생	(89)	27.0	73.0
	농림어업	(9)	11.1	88.9
	무직/기타	(53)	30.2	69.8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	11.4	88.6
	중학교 졸업	(78)	23.1	76.9
	고등학교 졸업	(399)	31.6	68.4
	대학 재학/졸업	(460)	40.9	59.1
	대학원 재학 이상	(25)	52.0	48.0
	모름/무응답	(3)	33.3	66.7
소득별	200만원 미만	(86)	18.6	81.4
	200-300만원 미만	(188)	35.1	64.9
	300-400만원 미만	(273)	29.7	70.3
	400-500만원 미만	(221)	40.7	59.3
	500-600만원 미만	(147)	42.2	57.8
	600-700만원 미만	(44)	43.2	56.8
	700만원 이상	(39)	41.0	59.0
	모름/무응답	(2)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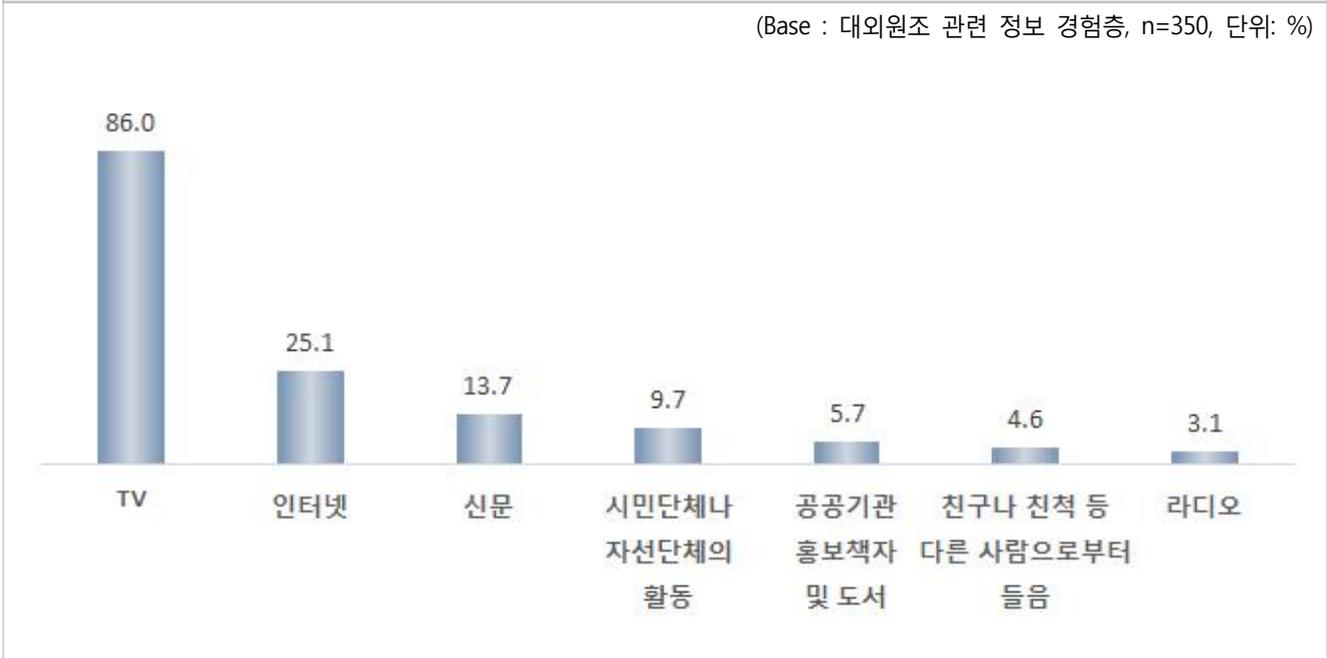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1,000)	35.0	65.0
대외원조 찬반	찬성	(800)	38.1	61.9
	반대	(200)	22.5	77.5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524)	31.1	68.9
	선진국 아님	(476)	39.3	60.7
원조인지	인지	(472)	52.1	47.9
	비인지	(528)	19.7	80.3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253)	43.9	56.1
	경험없음	(362)	34.8	65.2
원조참여 의사	있음	(483)	44.5	55.5
	없음	(517)	26.1	73.9
외국방문 경험	없음	(385)	29.4	70.6
	1-3회	(450)	35.6	64.4
	4-9회	(128)	46.1	53.9
	10회 이상	(37)	48.6	51.4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46)	47.6	52.4
	경험없음	(754)	30.9	69.1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43)	46.9	53.1
	경험없음	(857)	33.0	67.0

3-1. 정부의 대외원조 관련 정보를 접한 경로

- 정부의 대외원조 관련 정보를 접한 주된 경로로는 'TV'가 86.0%로 확연히 높았음
- 다음으로 '인터넷'(25.1%), '신문'(13.7%), '시민단체나 자선단체의 활동'(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V-3-1> 정부의 대외원조 관련 정보를 접한 경로 (복수응답)

(Base : 대외원조 관련 정보 경험층, n=350, 단위: %)



■ 특성별 분석

- 응답자 특성별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TV'를 정부의 대외원조 관련 정보를 접한 경로로 응답함
- 한편, '인터넷'은 연령이 낮을수록(19-29세 49.0%), '신문'은 지역별로 서울(29.1%)에서 응답률이 다소 높았음

<표 V-3-1> 정부의 대외원조 관련 정보를 접한 경로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TV	인터넷	신문	시민단체 나 자선단체 의 활동	공공기관 홍보 책자 및 도서	친구나 친척 등 다른 사람 으로 부터 들음	라디오	
전체	(350)	86.0	25.1	13.7	9.7	5.7	4.6	3.1	
성별	남성	(199)	87.4	25.1	17.1	9.0	3.5	3.0	
	여성	(151)	84.1	25.2	9.3	10.6	6.0	3.3	
연령별	19-29세	(51)	76.5	49.0	5.9	11.8	2.0	2.0	
	30대	(67)	83.6	38.8	13.4	4.5	4.5	0.0	
	40대	(74)	87.8	24.3	9.5	14.9	4.1	0.0	
	50대	(81)	86.4	16.0	18.5	11.1	7.4	8.6	6.2
	60대 이상	(77)	92.2	7.8	18.2	6.5	2.6	2.6	6.5
지역별	서울	(79)	83.5	27.8	29.1	11.4	8.9	7.6	2.5
	인천/경기	(124)	83.9	20.2	12.1	12.1	8.1	2.4	3.2
	부산/울산/경남	(80)	95.0	25.0	2.5	5.0	1.3	5.0	1.3
	대구/경북/강원	(26)	84.6	30.8	15.4	11.5	0.0	3.8	11.5
	대전/세종/충청	(29)	79.3	27.6	10.3	6.9	6.9	6.9	0.0
	광주/전라/제주	(12)	83.3	41.7	8.3	8.3	0.0	0.0	8.3
지역 규모별	광역시	(177)	85.3	29.9	18.1	12.4	7.9	6.8	1.7
	중소도시	(158)	86.7	20.9	9.5	7.6	3.2	2.5	3.8
	군지역	(15)	86.7	13.3	6.7	0.0	6.7	0.0	13.3
직업별	화이트칼라	(101)	77.2	32.7	11.9	12.9	7.9	3.0	5.0
	블루칼라	(78)	92.3	24.4	14.1	9.0	2.6	5.1	2.6
	자영업	(74)	91.9	10.8	20.3	9.5	5.4	5.4	2.7
	전업주부	(56)	85.7	16.1	7.1	10.7	5.4	8.9	0.0
	학생	(24)	79.2	62.5	12.5	4.2	12.5	0.0	4.2
	농림어업	(1)	100.0	0.0	0.0	0.0	0.0	0.0	0.0
	무직/기타	(16)	93.8	25.0	18.8	0.0	0.0	0.0	6.3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4)	100.0	0.0	0.0	0.0	0.0	0.0	0.0
	중학교 졸업	(18)	94.4	5.6	11.1	0.0	5.6	0.0	0.0
	고등학교 졸업	(126)	91.3	15.9	9.5	7.1	3.2	6.3	3.2
	대학 재학/졸업	(188)	81.9	32.4	17.0	12.2	6.9	3.2	3.7
	대학원 재학 이상	(13)	76.9	46.2	15.4	15.4	15.4	15.4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0.0
소득별	200만원 미만	(16)	93.8	6.3	18.8	0.0	0.0	6.3	6.3
	200-300만원 미만	(66)	86.4	21.2	13.6	6.1	4.5	1.5	3.0
	300-400만원 미만	(81)	85.2	23.5	12.3	12.3	1.2	2.5	2.5
	400-500만원 미만	(90)	87.8	28.9	11.1	11.1	7.8	6.7	3.3
	500-600만원 미만	(62)	83.9	29.0	12.9	14.5	11.3	6.5	1.6
	600-700만원 미만	(19)	89.5	21.1	31.6	5.3	0.0	5.3	5.3
	700만원 이상	(16)	75.0	37.5	12.5	0.0	12.5	6.3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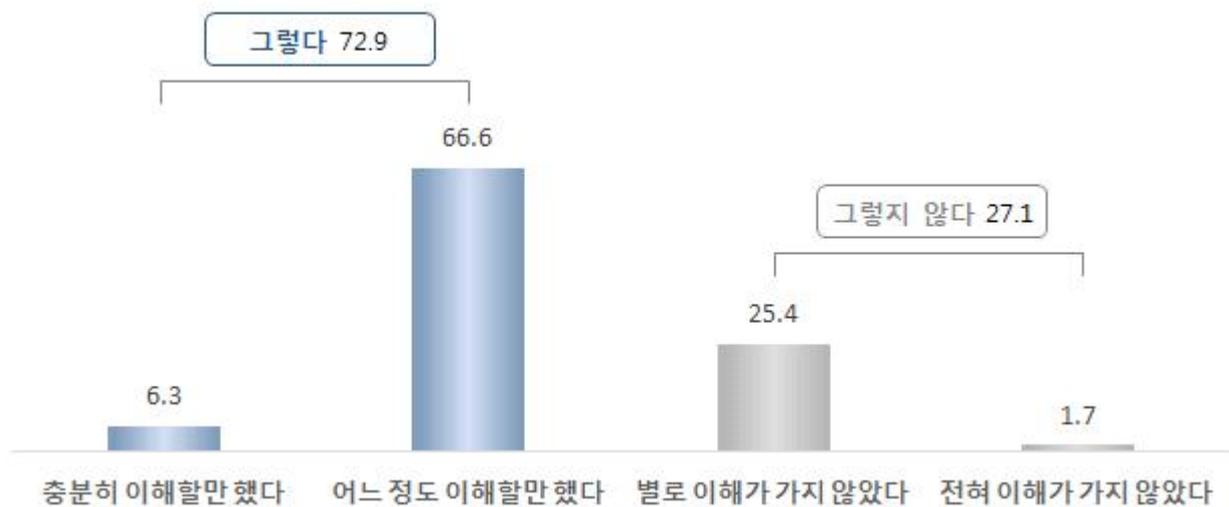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TV	인터넷	신문	시민단체 나 자선단체 의 활동	공공기관 홍보 및 책자 도서	친구나 친척 등 다른 사람 으로 부터 들음	라디오
전체		(350)	86.0	25.1	13.7	9.7	5.7	4.6	3.1
대외원조 찬반	찬성	(305)	84.3	26.2	14.8	10.8	6.6	4.6	3.6
	반대	(45)	97.8	17.8	6.7	2.2	0.0	4.4	0.0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163)	85.9	25.2	16.0	8.0	5.5	4.9	3.1
	선진국 아님	(187)	86.1	25.1	11.8	11.2	5.9	4.3	3.2
원조인지	인지	(246)	86.2	26.4	15.0	10.2	6.9	5.3	4.1
	비인지	(104)	85.6	22.1	10.6	8.7	2.9	2.9	1.0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111)	83.8	28.8	18.0	9.9	6.3	3.6	3.6
	경험없음	(126)	87.3	24.6	13.5	9.5	5.6	5.6	3.2
원조참여 의사	있음	(215)	85.1	26.5	14.9	12.1	8.4	3.7	3.3
	없음	(135)	87.4	23.0	11.9	5.9	1.5	5.9	3.0
외국방문 경험	없음	(113)	86.7	22.1	9.7	9.7	5.3	4.4	2.7
	1-3회	(160)	86.9	26.9	15.6	7.5	4.4	3.1	3.1
	4-9회	(59)	88.1	30.5	16.9	15.3	8.5	8.5	3.4
	10회 이상	(18)	66.7	11.1	11.1	11.1	11.1	5.6	5.6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17)	84.6	23.9	12.8	15.4	8.5	2.6	2.6
	경험없음	(233)	86.7	25.8	14.2	6.9	4.3	5.6	3.4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67)	85.1	25.4	17.9	14.9	10.4	0.0	3.0
	경험없음	(283)	86.2	25.1	12.7	8.5	4.6	5.7	3.2

3-2. 대외원조 관련 정보의 충분성

- 대외원조와 관련하여 접한 정보의 충분성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72.9%(‘충분히 이해할만 했다’ 6.3%, ‘어느 정도 이해할만 했다’ 66.6%)로, 대외원조 정보 경험자의 과반수는 긍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V-3-2> 대외원조 관련 정보의 충분성

(Base : 대외원조 관련 정보 경험층, n=350, 단위: %)



■ 특성별 분석

- 대외원조와 관련하여 접한 정보가 '이해할만 했다'는 의견은 지역별로 서울(87.3%)에서 비교적 높았음
- '이해가 가지 않았다'는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43.8%), 대외원조 반대(42.2%)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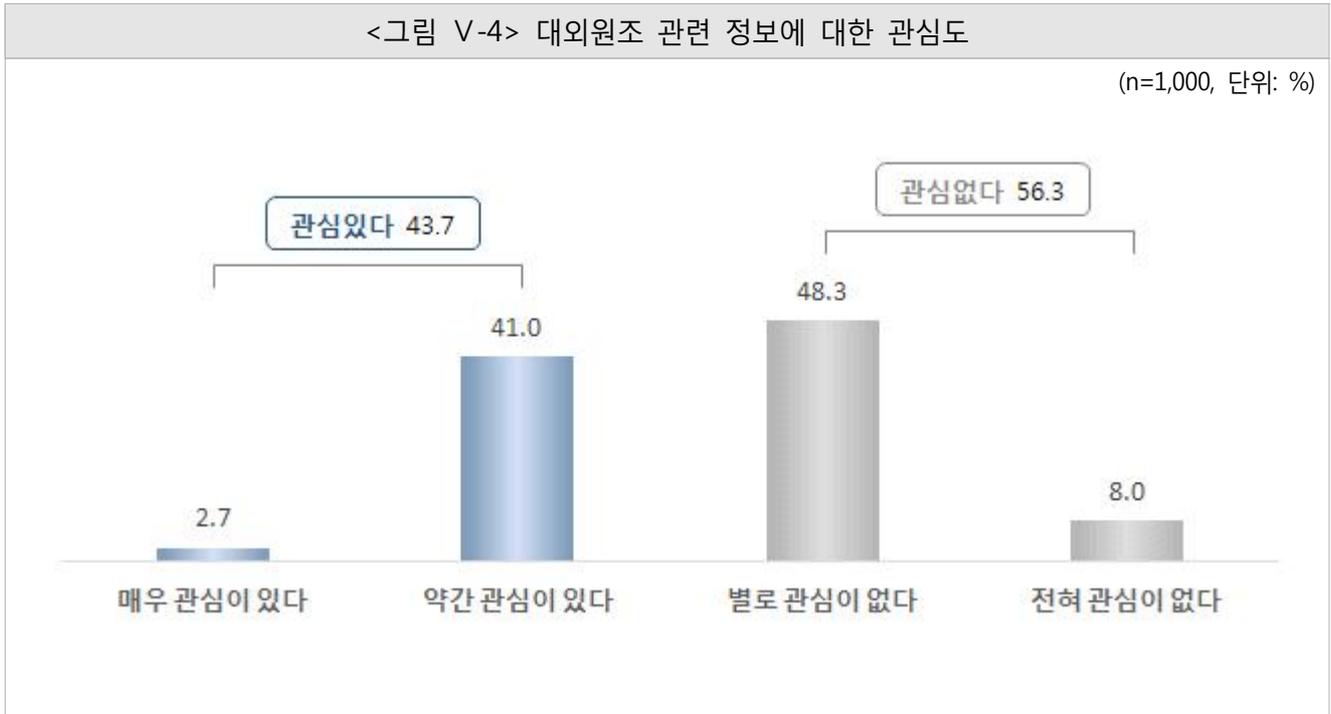
<표 V-3-2> 대외원조 관련 정보의 충분성

구분	사례수	충분히 이해할 만 했다	어느 정도만 이해할 만 했다	별로 이해가 가지 않았다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이해할 만 했다	이해가 가지 않았다	
전체	(350)	6.3	66.6	25.4	1.7	72.9	27.1	
성별	남성	(199)	7.0	67.8	23.6	1.5	74.9	25.1
	여성	(151)	5.3	64.9	27.8	2.0	70.2	29.8
연령별	19-29세	(51)	9.8	56.9	33.3	0.0	66.7	33.3
	30대	(67)	3.0	61.2	35.8	0.0	64.2	35.8
	40대	(74)	2.7	68.9	25.7	2.7	71.6	28.4
	50대	(81)	9.9	66.7	21.0	2.5	76.5	23.5
	60대 이상	(77)	6.5	75.3	15.6	2.6	81.8	18.2
지역별	서울	(79)	6.3	81.0	12.7	0.0	87.3	12.7
	인천/경기	(124)	4.0	66.1	29.0	0.8	70.2	29.8
	부산/울산/경남	(80)	7.5	48.8	38.8	5.0	56.3	43.8
	대구/경북/강원	(26)	0.0	96.2	0.0	3.8	96.2	3.8
	대전/세종/충청	(29)	20.7	55.2	24.1	0.0	75.9	24.1
	광주/전라/제주	(12)	0.0	58.3	41.7	0.0	58.3	41.7
지역 규모별	광역시	(177)	6.2	73.4	18.6	1.7	79.7	20.3
	중소도시	(158)	5.7	60.8	31.6	1.9	66.5	33.5
	군지역	(15)	13.3	46.7	40.0	0.0	60.0	40.0
직업별	화이트칼라	(101)	6.9	65.3	27.7	0.0	72.3	27.7
	블루칼라	(78)	5.1	65.4	26.9	2.6	70.5	29.5
	자영업	(74)	8.1	67.6	20.3	4.1	75.7	24.3
	전업주부	(56)	3.6	67.9	26.8	1.8	71.4	28.6
	학생	(24)	4.2	62.5	33.3	0.0	66.7	33.3
	농림어업	(1)	100.0	0.0	0.0	0.0	100.0	0.0
	무직/기타	(16)	6.3	81.3	12.5	0.0	87.5	12.5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4)	25.0	25.0	50.0	0.0	50.0	50.0
	중학교 졸업	(18)	5.6	77.8	11.1	5.6	83.3	16.7
	고등학교 졸업	(126)	6.3	66.7	24.6	2.4	73.0	27.0
	대학 재학/졸업	(188)	5.9	67.6	25.5	1.1	73.4	26.6
	대학원 재학 이상	(13)	7.7	46.2	46.2	0.0	53.8	46.2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100.0	0.0
소득별	200만원 미만	(16)	12.5	56.3	25.0	6.3	68.8	31.3
	200-300만원 미만	(66)	6.1	68.2	22.7	3.0	74.2	25.8
	300-400만원 미만	(81)	6.2	64.2	27.2	2.5	70.4	29.6
	400-500만원 미만	(90)	6.7	64.4	27.8	1.1	71.1	28.9
	500-600만원 미만	(62)	3.2	69.4	27.4	0.0	72.6	27.4
	600-700만원 미만	(19)	0.0	78.9	21.1	0.0	78.9	21.1
	700만원 이상	(16)	18.8	68.8	12.5	0.0	87.5	12.5

구분		사례수	충분히 이해할 했다	어느 정도 만 이해할 했다	별로 이해가 가지 않았다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전체		(350)	6.3	66.6	25.4	1.7	72.9	27.1
대외원조 찬반	찬성	(305)	6.6	68.5	23.6	1.3	75.1	24.9
	반대	(45)	4.4	53.3	37.8	4.4	57.8	42.2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163)	9.2	69.3	20.9	0.6	78.5	21.5
	선진국 아님	(187)	3.7	64.2	29.4	2.7	67.9	32.1
원조인지	인지	(246)	6.1	67.5	24.8	1.6	73.6	26.4
	비인지	(104)	6.7	64.4	26.9	1.9	71.2	28.8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111)	4.5	78.4	16.2	0.9	82.9	17.1
	경험없음	(126)	2.4	63.5	33.3	0.8	65.9	34.1
원조참여 의사	있음	(215)	6.0	67.4	25.6	0.9	73.5	26.5
	없음	(135)	6.7	65.2	25.2	3.0	71.9	28.1
외국방문 경험	없음	(113)	12.4	58.4	25.7	3.5	70.8	29.2
	1-3회	(160)	3.1	71.3	25.0	0.6	74.4	25.6
	4-9회	(59)	1.7	69.5	27.1	1.7	71.2	28.8
	10회 이상	(18)	11.1	66.7	22.2	0.0	77.8	22.2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17)	7.7	71.8	18.8	1.7	79.5	20.5
	경험없음	(233)	5.6	63.9	28.8	1.7	69.5	30.5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67)	7.5	68.7	22.4	1.5	76.1	23.9
	경험없음	(283)	6.0	66.1	26.1	1.8	72.1	27.9

4. 대외원조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도

-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관련 정보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응답자는 43.7%('매우 관심이 있다' 2.7%, '약간 관심이 있다' 41.0%)로 나타남



■ 특성별 분석

- 대외원조 정보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저개발국 방문경험 있음(58.9%), 원조제공 인지(61.0%), 원조참여 의사 있음(62.5%), 외국 방문경험이 많을수록(10회 이상 59.5%), 금전적 기부경험 있음(66.7%), 비금전적 기부경험 있음(61.5%)에서 다소 높은 비율로 나타남
- '관심이 없다'는 대외원조 반대(92.0%)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 V-4> 대외원조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도

구분		사례수	매우 관심이 있다	약간 관심이 있다	별로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관심	무관심
전체		(1,000)	2.7	41.0	48.3	8.0	43.7	56.3
성별	남성	(496)	4.0	42.3	48.4	5.2	46.4	53.6
	여성	(504)	1.4	39.7	48.2	10.7	41.1	58.9
연령별	19-29세	(179)	1.1	36.3	58.1	4.5	37.4	62.6
	30대	(183)	1.6	41.0	50.3	7.1	42.6	57.4
	40대	(208)	1.4	41.8	49.0	7.7	43.3	56.7
	50대	(198)	4.0	47.5	40.4	8.1	51.5	48.5
	60대 이상	(232)	4.7	38.4	45.3	11.6	43.1	56.9
지역별	서울	(199)	4.5	46.7	45.2	3.5	51.3	48.7
	인천/경기	(296)	4.7	40.9	49.7	4.7	45.6	54.4
	부산/울산/경남	(156)	0.6	46.2	41.7	11.5	46.8	53.2
	대구/경북/강원	(131)	1.5	47.3	44.3	6.9	48.9	51.1
	대전/세종/충청	(103)	0.0	33.0	56.3	10.7	33.0	67.0
	광주/전라/제주	(115)	0.9	24.3	56.5	18.3	25.2	74.8
지역 규모별	광역시	(453)	2.9	45.3	44.8	7.1	48.1	51.9
	중소도시	(466)	2.8	36.7	51.9	8.6	39.5	60.5
	군지역	(81)	1.2	42.0	46.9	9.9	43.2	56.8
직업별	화이트칼라	(236)	4.2	47.0	44.5	4.2	51.3	48.7
	블루칼라	(216)	1.4	39.4	51.9	7.4	40.7	59.3
	자영업	(197)	4.1	41.6	46.2	8.1	45.7	54.3
	전업주부	(200)	1.0	40.5	43.5	15.0	41.5	58.5
	학생	(89)	2.2	28.1	66.3	3.4	30.3	69.7
	농림어업	(9)	0.0	55.6	44.4	0.0	55.6	44.4
	무직/기타	(53)	3.8	39.6	47.2	9.4	43.4	56.6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	0.0	34.3	42.9	22.9	34.3	65.7
	중학교 졸업	(78)	3.8	39.7	44.9	11.5	43.6	56.4
	고등학교 졸업	(399)	1.5	35.1	53.1	10.3	36.6	63.4
	대학 재학/졸업	(460)	3.0	47.0	45.4	4.6	50.0	50.0
	대학원 재학 이상	(25)	16.0	40.0	44.0	0.0	56.0	44.0
	모름/무응답	(3)	0.0	33.3	33.3	33.3	33.3	66.7
소득별	200만원 미만	(86)	3.5	31.4	52.3	12.8	34.9	65.1
	200-300만원 미만	(188)	1.1	39.4	50.0	9.6	40.4	59.6
	300-400만원 미만	(273)	2.2	38.5	50.5	8.8	40.7	59.3
	400-500만원 미만	(221)	2.7	43.9	45.7	7.7	46.6	53.4
	500-600만원 미만	(147)	4.1	44.9	46.9	4.1	49.0	51.0
	600-700만원 미만	(44)	4.5	50.0	38.6	6.8	54.5	45.5
	700만원 이상	(39)	5.1	48.7	43.6	2.6	53.8	46.2
	모름/무응답	(2)	0.0	0.0	100.0	0.0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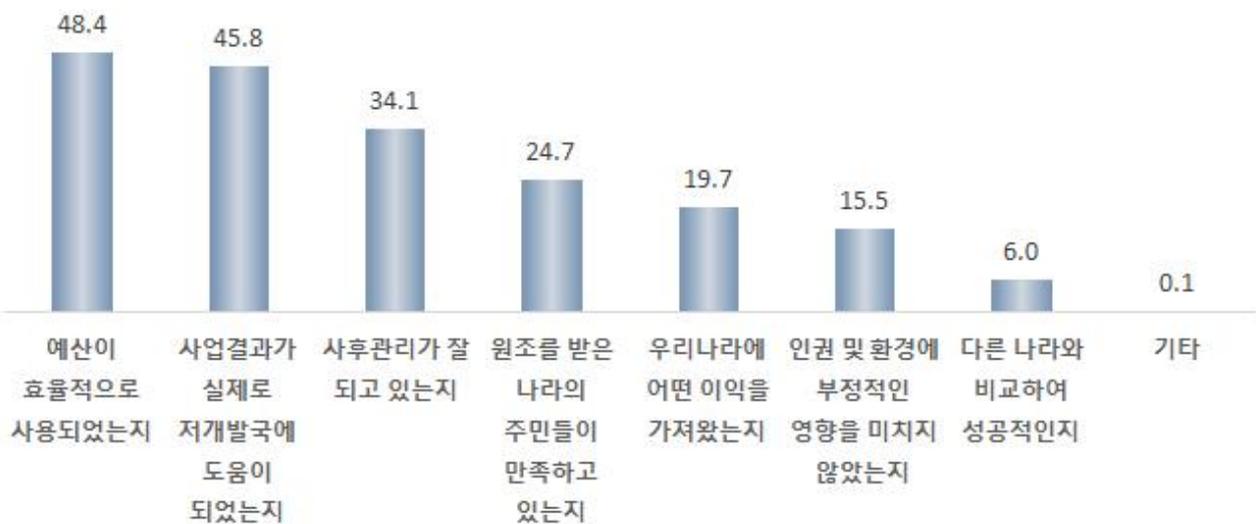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관심이 있다	약간 관심이 있다	별로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관심	무관심
전체		(1,000)	2.7	41.0	48.3	8.0	43.7	56.3
대외원조 찬반	찬성	(800)	3.4	49.3	42.9	4.5	52.6	47.4
	반대	(200)	0.0	8.0	70.0	22.0	8.0	92.0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524)	2.9	41.4	47.1	8.6	44.3	55.7
	선진국 아님	(476)	2.5	40.5	49.6	7.4	43.1	56.9
원조인지	인지	(472)	5.7	55.3	35.8	3.2	61.0	39.0
	비인지	(528)	0.0	28.2	59.5	12.3	28.2	71.8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253)	5.9	53.0	36.4	4.7	58.9	41.1
	경험없음	(362)	1.4	39.2	54.1	5.2	40.6	59.4
원조참여 의사	있음	(483)	4.8	57.8	33.7	3.7	62.5	37.5
	없음	(517)	0.8	25.3	61.9	12.0	26.1	73.9
외국방문 경험	없음	(385)	1.8	34.8	50.6	12.7	36.6	63.4
	1-3회	(450)	1.8	42.9	50.0	5.3	44.7	55.3
	4-9회	(128)	6.3	50.8	37.5	5.5	57.0	43.0
	10회 이상	(37)	10.8	48.6	40.5	0.0	59.5	40.5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46)	6.5	60.2	30.9	2.4	66.7	33.3
	경험없음	(754)	1.5	34.7	54.0	9.8	36.2	63.8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43)	6.3	55.2	33.6	4.9	61.5	38.5
	경험없음	(857)	2.1	38.6	50.8	8.5	40.7	59.3

5. 가장 관심이 가는 대외원조 관련 정보

- 우리나라의 대외원조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정보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48.4%)와 '사업결과가 실제로 저개발국에 도움이 되었는지'(45.8%)인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34.1%), '원조를 받은 나라의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지'(24.7%) 등의 순이었음

<그림 V-5> 가장 관심이 가는 대외원조 관련 정보 (복수응답)

(n=1,000, 단위: %)



■ 특성별 분석

-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대외원조와 관련하여 가장 관심이 간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인천/경기(59.8%), 소득별로 600만원-700만원 미만(68.2%)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음
- '사업결과가 실제로 저개발국에 도움 되었는지'는 직업별로 학생(56.2%), 소득별로 600만원-700만원 미만(56.8%), 외국 방문경험 10회 이상(67.6%)에서 비교적 응답률이 높았음

<표 V-5> 가장 관심이 가는 대외원조 관련 정보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사업 결과가 실제로 저개발국에 도움이 되었는지	사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원조받은 나라의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우리 나라에 어떤 이익을 가져왔는지	인권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성공적 인지	기타	
전체	(1,000)	48.4	45.8	34.1	24.7	19.7	15.5	6.0	0.1	
성별	남성	(496)	45.6	47.2	35.5	23.6	22.6	15.5	3.6	0.0
	여성	(504)	51.2	44.4	32.7	25.8	16.9	15.5	8.3	0.2
연령별	19-29세	(179)	53.6	46.9	27.4	25.7	17.3	15.1	7.3	0.0
	30대	(183)	45.9	49.7	33.3	28.4	19.1	14.2	6.0	0.0
	40대	(208)	51.4	46.2	36.1	22.1	20.2	15.4	2.9	0.0
	50대	(198)	47.0	43.9	36.4	22.2	17.7	18.7	6.1	0.5
	60대 이상	(232)	44.8	43.1	36.2	25.4	23.3	14.2	7.8	0.0
지역별	서울	(199)	55.8	50.8	30.2	23.6	18.6	9.5	7.5	0.5
	인천/경기	(296)	59.8	51.4	30.1	20.9	19.9	10.1	5.7	0.0
	부산/울산/경남	(156)	52.6	37.8	29.5	29.5	23.1	15.4	10.3	0.0
	대구/경북/강원	(131)	35.9	42.0	44.3	26.7	10.7	21.4	1.5	0.0
	대전/세종/충청	(103)	32.0	38.8	40.8	22.3	32.0	29.1	2.9	0.0
	광주/전라/제주	(115)	29.6	44.3	40.0	29.6	15.7	20.9	6.1	0.0
지역 규모별	광역시	(453)	50.1	48.6	28.9	25.2	18.3	13.9	6.6	0.2
	중소도시	(466)	48.1	44.2	38.4	23.8	20.6	14.8	6.0	0.0
	군지역	(81)	40.7	39.5	38.3	27.2	22.2	28.4	2.5	0.0
직업별	화이트칼라	(236)	47.5	43.2	35.2	27.1	20.8	15.7	4.7	0.0
	블루칼라	(216)	46.8	44.4	34.3	23.6	18.5	18.5	6.0	0.0
	자영업	(197)	45.7	46.2	34.5	25.4	22.8	14.2	4.6	0.5
	전업주부	(200)	51.0	44.5	33.0	24.5	20.0	14.0	9.5	0.0
	학생	(89)	50.6	56.2	33.7	23.6	11.2	11.2	7.9	0.0
	농림어업	(9)	33.3	44.4	55.6	0.0	22.2	44.4	0.0	0.0
	무직/기타	(53)	58.5	49.1	28.3	22.6	20.8	15.1	1.9	0.0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	42.9	37.1	54.3	22.9	17.1	14.3	8.6	0.0
	중학교 졸업	(78)	44.9	41.0	35.9	21.8	20.5	20.5	9.0	0.0
	고등학교 졸업	(399)	48.1	41.1	33.1	26.6	22.3	17.0	6.0	0.3
	대학 재학/졸업	(460)	49.6	50.2	33.7	23.7	17.6	13.9	5.4	0.0
	대학원 재학 이상	(25)	48.0	68.0	28.0	28.0	20.0	4.0	4.0	0.0
	모름/무응답	(3)	66.7	33.3	0.0	0.0	0.0	33.3	0.0	0.0
소득별	200만원 미만	(86)	43.0	51.2	31.4	27.9	19.8	15.1	7.0	0.0
	200-300만원 미만	(188)	46.3	40.4	32.4	25.0	22.9	21.3	4.8	0.5
	300-400만원 미만	(273)	45.1	44.3	39.6	24.5	19.8	13.9	5.9	0.0
	400-500만원 미만	(221)	50.2	43.0	33.5	21.7	21.3	17.6	7.2	0.0
	500-600만원 미만	(147)	51.7	51.7	27.9	28.6	16.3	12.9	5.4	0.0
	600-700만원 미만	(44)	68.2	56.8	25.0	25.0	11.4	4.5	6.8	0.0
	700만원 이상	(39)	51.3	51.3	46.2	17.9	17.9	10.3	2.6	0.0
	모름/무응답	(2)	0.0	50.0	50.0	50.0	0.0	0.0	50.0	0.0

구분	사례수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사업 결과가 실제로 저개발국에 도움이 되었는지	사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원조받은 나라의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우리 나라에 어떤 이익을 가져왔는지	인권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성공적인지	기타	
전체	(1,000)	48.4	45.8	34.1	24.7	19.7	15.5	6.0	0.1	
대외원조 찬반	찬성	(800)	50.8	47.6	34.3	24.4	16.0	16.3	5.5	0.0
	반대	(200)	39.0	38.5	33.5	26.0	34.5	12.5	8.0	0.5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524)	47.9	45.0	34.4	24.6	17.9	17.0	6.7	0.2
	선진국 아님	(476)	48.9	46.6	33.8	24.8	21.6	13.9	5.3	0.0
원조인지	인지	(472)	48.5	48.1	36.0	22.9	17.6	15.3	5.1	0.2
	비인지	(528)	48.3	43.8	32.4	26.3	21.6	15.7	6.8	0.0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253)	49.8	49.0	31.2	21.3	19.8	15.0	6.7	0.4
	경험없음	(362)	49.7	43.4	36.5	26.2	20.2	13.5	5.2	0.0
원조참여 의사	있음	(483)	51.3	51.1	32.9	24.4	15.7	14.3	5.6	0.2
	없음	(517)	45.6	40.8	35.2	25.0	23.4	16.6	6.4	0.0
외국방문 경험	없음	(385)	46.2	46.0	33.8	25.5	19.2	17.7	6.2	0.0
	1-3회	(450)	49.3	44.0	32.0	26.2	21.1	15.6	6.2	0.2
	4-9회	(128)	50.8	45.3	38.3	21.9	18.0	12.5	4.7	0.0
	10회 이상	(37)	51.4	67.6	48.6	8.1	13.5	2.7	5.4	0.0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46)	55.3	53.7	25.6	28.5	13.4	12.2	4.9	0.0
	경험없음	(754)	46.2	43.2	36.9	23.5	21.8	16.6	6.4	0.1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43)	56.6	51.0	23.8	25.9	17.5	15.4	6.3	0.0
	경험없음	(857)	47.0	44.9	35.8	24.5	20.1	15.5	6.0	0.1

6. 대외원조 정보 제공 매체 선호도

- 향후 대외원조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는 매체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89.6%)는 'TV'라고 답했음
- 다음으로는 '인터넷'이 42.4%로 나타났으며, '신문·잡지'(16.5%), '대중교통 및 옥외간판 활용 홍보'(10.4%) 등의 순이었음

<그림 V-6> 대외원조 정보 제공 매체 선호도 (복수응답)

(n=1,000, 단위: %)



■ 특성별 분석

- 응답자 특성별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TV'를 선호하는 대외원조 정보 제공 매체로 응답함
- 한편, '인터넷'은 연령이 낮을수록(19-29세 67.0%), 직업별로 학생(70.8%), 학력이 높을수록(대학원 재학 이상 68.0%), '신문'은 연령이 높을수록(23.7%) 선호 비율이 비교적 높았음

<표 V-6> 대외원조 정보 제공 매체 선호도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TV	인터넷	신문 잡지	대중 교육 의 활용 홍보	통 교 간 관 홍 보 책 자 및 도 서	라디오	이벤트 및 행사	기타
전체		(1,000)	89.6	42.4	16.5	10.4	9.7	6.6	4.2	0.1
성별	남성	(496)	87.7	44.6	19.2	9.1	8.3	7.3	5.2	0.2
	여성	(504)	91.5	40.3	13.9	11.7	11.1	6.0	3.2	0.0
연령별	19-29세	(179)	81.0	67.0	8.4	7.8	8.4	2.8	7.3	0.0
	30대	(183)	83.6	55.7	14.2	9.8	10.4	3.8	3.8	0.0
	40대	(208)	90.4	45.7	16.8	9.1	7.7	7.7	5.8	0.0
	50대	(198)	92.9	31.3	17.2	12.1	14.6	5.6	2.5	0.5
	60대 이상	(232)	97.4	19.4	23.7	12.5	7.8	11.6	2.2	0.0
지역별	서울	(199)	82.4	46.2	21.6	8.5	6.0	4.0	2.5	0.0
	인천/경기	(296)	93.2	47.0	16.9	15.9	6.4	5.4	7.1	0.0
	부산/울산/경남	(156)	95.5	49.4	16.0	4.5	16.7	4.5	0.0	0.0
	대구/경북/강원	(131)	86.3	29.8	17.6	4.6	6.9	17.6	2.3	0.0
	대전/세종/충청	(103)	87.4	35.0	13.6	19.4	24.3	2.9	4.9	0.0
	광주/전라/제주	(115)	90.4	35.7	8.7	6.1	5.2	7.8	7.0	0.9
지역 규모별	광역시	(453)	88.1	42.4	16.8	9.1	11.0	4.0	1.8	0.0
	중소도시	(466)	92.3	41.6	16.5	12.0	8.6	7.5	6.7	0.2
	군지역	(81)	82.7	46.9	14.8	8.6	8.6	16.0	3.7	0.0
직업별	화이트칼라	(236)	84.7	53.4	12.7	9.7	11.0	5.1	5.5	0.0
	블루칼라	(216)	94.4	37.5	15.3	12.0	10.2	8.3	4.2	0.5
	자영업	(197)	90.9	36.0	22.8	6.6	7.1	5.6	3.0	0.0
	전업주부	(200)	93.0	31.0	16.0	13.5	13.5	7.0	2.0	0.0
	학생	(89)	80.9	70.8	12.4	6.7	4.5	3.4	6.7	0.0
	농림어업	(9)	66.7	55.6	22.2	0.0	22.2	22.2	0.0	0.0
	무직/기타	(53)	92.5	30.2	22.6	17.0	3.8	11.3	7.5	0.0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	100.0	2.9	17.1	14.3	8.6	20.0	5.7	0.0
	중학교 졸업	(78)	94.9	16.7	21.8	20.5	6.4	11.5	2.6	0.0
	고등학교 졸업	(399)	93.0	34.8	17.5	10.5	10.5	8.0	3.0	0.3
	대학 재학/졸업	(460)	85.7	55.0	14.3	7.6	10.0	3.9	5.4	0.0
	대학원 재학 이상	(25)	76.0	68.0	24.0	20.0	4.0	0.0	4.0	0.0
	모름/무응답	(3)	100.0	33.3	0.0	33.3	0.0	0.0	0.0	0.0
소득별	200만원 미만	(86)	94.2	19.8	15.1	17.4	12.8	14.0	3.5	0.0
	200-300만원 미만	(188)	91.0	38.8	19.7	9.6	7.4	9.0	4.8	0.0
	300-400만원 미만	(273)	89.4	38.8	16.8	9.2	8.8	6.2	2.2	0.4
	400-500만원 미만	(221)	88.7	49.8	15.4	9.0	13.1	3.6	5.4	0.0
	500-600만원 미만	(147)	90.5	47.6	15.0	11.6	6.8	6.1	4.8	0.0
	600-700만원 미만	(44)	86.4	54.5	15.9	11.4	0.0	2.3	9.1	0.0
	700만원 이상	(39)	79.5	59.0	15.4	10.3	20.5	5.1	2.6	0.0
	모름/무응답	(2)	100.0	50.0	0.0	0.0	50.0	0.0	0.0	0.0

구분		사례수	TV	인터넷	신문 잡지	대중 교육 홍보	교통 간판 홍보	홍보 책자 및 도서	라디오	이벤트 및 행사	기타
전체		(1,000)	89.6	42.4	16.5	10.4	9.7	6.6	4.2	0.1	
대외원조 찬반	찬성	(800)	88.9	44.1	17.1	9.3	10.0	6.6	4.1	0.1	
	반대	(200)	92.5	35.5	14.0	15.0	8.5	6.5	4.5	0.0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524)	91.6	40.6	17.6	11.3	9.9	5.5	2.7	0.2	
	선진국 아님	(476)	87.4	44.3	15.3	9.5	9.5	7.8	5.9	0.0	
원조인지	인지	(472)	90.5	43.4	20.8	6.8	9.1	4.9	3.4	0.0	
	비인지	(528)	88.8	41.5	12.7	13.6	10.2	8.1	4.9	0.2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253)	87.4	50.6	16.6	9.5	7.9	6.3	2.0	0.4	
	경험없음	(362)	89.8	42.5	17.1	9.7	7.2	6.6	5.8	0.0	
원조참여 의사	있음	(483)	88.0	45.8	17.4	9.5	11.0	4.3	5.8	0.2	
	없음	(517)	91.1	39.3	15.7	11.2	8.5	8.7	2.7	0.0	
외국방문 경험	없음	(385)	90.9	36.9	15.8	11.7	13.2	6.8	4.2	0.0	
	1-3회	(450)	90.2	45.3	16.0	9.8	7.1	6.9	3.6	0.2	
	4-9회	(128)	85.9	46.9	16.4	8.6	8.6	5.5	7.0	0.0	
	10회 이상	(37)	81.1	48.6	29.7	10.8	8.1	5.4	2.7	0.0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46)	87.0	50.4	12.6	10.2	9.8	2.8	4.5	0.4	
	경험없음	(754)	90.5	39.8	17.8	10.5	9.7	7.8	4.1	0.0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43)	81.8	51.0	17.5	9.8	9.8	3.5	4.2	0.0	
	경험없음	(857)	90.9	41.0	16.3	10.5	9.7	7.1	4.2	0.1	

7. 대외원조 홍보 형태 선호도

- 향후 대외원조에 대한 홍보에 있어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홍보 형태는 '설명 위주의 구체적 홍보'(54.7%)인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유명인을 활용한 홍보'(39.8%), '대외원조 전문가를 활용한 홍보'(33.8%), '이미지 위주의 감성적 홍보'(32.9%) 등의 순이었음

<그림 V-7> 대외원조 홍보 형태 선호도 (복수응답)



■ 특성별 분석

- 대외원조 홍보 형태로 '설명 위주의 구체적 홍보'를 선호하는 비율은 외국 방문경험 10회 이상(67.6%)에서 비교적 많았음
- '유명인을 활용한 홍보'는 지역규모별로 군지역(53.1%), 원조제공 비인지(49.1%)에서, '대외원조 전문가를 활용한 홍보'는 지역별로 서울(52.3%)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로 응답함

<표 V-7> 대외원조 홍보 형태 선호도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설명위주의 구체적 홍보	유명인들을 활용한 홍보	대외원조를 전문가를 활용한 홍보	이미지위주의 감성적 홍보	일반인들을 활용한 홍보	기타
전체		(1,000)	54.7	39.8	33.8	32.9	19.4	0.2
성별	남성	(496)	53.4	36.7	35.3	33.3	19.8	0.2
	여성	(504)	56.0	42.9	32.3	32.5	19.0	0.2
연령별	19-29세	(179)	50.3	41.3	35.2	40.2	14.0	0.6
	30대	(183)	53.0	44.3	26.8	35.0	18.6	0.5
	40대	(208)	52.9	40.4	38.9	30.8	20.2	0.0
	50대	(198)	57.6	39.9	32.8	30.8	21.2	0.0
	60대 이상	(232)	58.6	34.5	34.5	29.3	22.0	0.0
지역별	서울	(199)	57.8	43.2	52.3	38.2	17.6	0.0
	인천/경기	(296)	60.8	36.5	36.5	34.8	16.9	0.7
	부산/울산/경남	(156)	59.0	42.9	30.1	17.3	18.6	0.0
	대구/경북/강원	(131)	36.6	40.5	27.5	24.4	11.5	0.0
	대전/세종/충청	(103)	48.5	38.8	18.4	41.7	35.0	0.0
	광주/전라/제주	(115)	53.9	38.3	20.9	41.7	25.2	0.0
지역 규모별	광역시	(453)	53.9	42.2	39.1	32.2	16.3	0.0
	중소도시	(466)	57.9	35.2	30.3	35.4	20.6	0.4
	군지역	(81)	40.7	53.1	24.7	22.2	29.6	0.0
직업별	화이트칼라	(236)	53.0	36.0	33.5	36.0	18.2	0.4
	블루칼라	(216)	56.9	46.8	28.2	29.6	20.8	0.0
	자영업	(197)	56.3	35.5	34.5	30.5	17.3	0.0
	전업주부	(200)	56.0	44.0	36.0	30.5	23.0	0.0
	학생	(89)	48.3	36.0	38.2	48.3	14.6	1.1
	농림어업	(9)	44.4	55.6	33.3	22.2	22.2	0.0
	무직/기타	(53)	54.7	32.1	39.6	26.4	20.8	0.0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	42.9	40.0	37.1	17.1	17.1	0.0
	중학교 졸업	(78)	53.8	37.2	26.9	25.6	28.2	0.0
	고등학교 졸업	(399)	56.9	42.9	31.8	32.8	21.3	0.0
	대학 재학/졸업	(460)	53.5	37.8	36.5	34.3	17.4	0.2
	대학원 재학 이상	(25)	64.0	40.0	36.0	44.0	4.0	4.0
	모름/무응답	(3)	33.3	0.0	0.0	100.0	0.0	0.0
소득별	200만원 미만	(86)	51.2	37.2	24.4	30.2	17.4	0.0
	200-300만원 미만	(188)	54.8	38.3	36.2	35.1	22.9	0.0
	300-400만원 미만	(273)	54.6	41.8	32.6	35.2	19.8	0.4
	400-500만원 미만	(221)	54.8	41.6	34.4	32.1	20.8	0.0
	500-600만원 미만	(147)	58.5	36.7	36.1	25.2	17.7	0.0
	600-700만원 미만	(44)	54.5	36.4	40.9	29.5	18.2	2.3
	700만원 이상	(39)	51.3	43.6	30.8	48.7	5.1	0.0
	모름/무응답	(2)	0.0	50.0	50.0	5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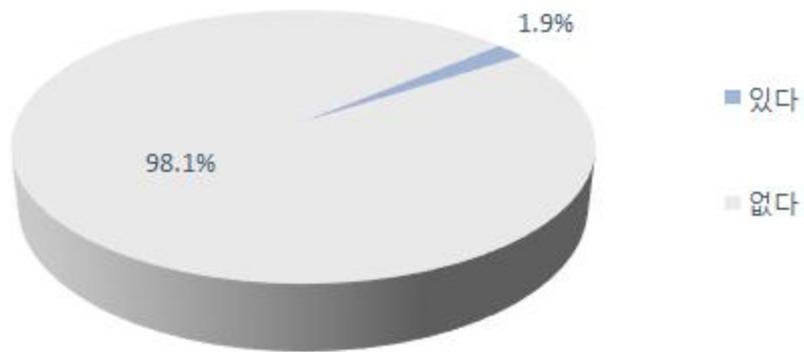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설명 위주의 구체적 홍보	유명인 을 활용한 홍보	대외원조 전문가 를 활용한 홍보	이미지 위주의 감성적 홍보	일반인 을 활용한 홍보	기타
전체		(1,000)	54.7	39.8	33.8	32.9	19.4	0.2
대외원조 찬반	찬성	(800)	56.3	37.9	35.0	33.4	18.4	0.1
	반대	(200)	48.5	47.5	29.0	31.0	23.5	0.5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524)	51.0	41.2	31.1	35.7	18.7	0.0
	선진국 아님	(476)	58.8	38.2	36.8	29.8	20.2	0.4
원조인지	인지	(472)	55.5	29.4	38.3	31.1	19.3	0.0
	비인지	(528)	54.0	49.1	29.7	34.5	19.5	0.4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253)	56.1	39.9	39.1	31.2	17.8	0.4
	경험없음	(362)	58.6	36.5	35.6	36.2	21.3	0.3
원조참여 의사	있음	(483)	54.7	40.0	34.4	34.2	20.5	0.0
	없음	(517)	54.7	39.7	33.3	31.7	18.4	0.4
외국방문 경험	없음	(385)	50.1	42.9	28.6	30.9	18.7	0.0
	1-3회	(450)	57.3	39.3	35.8	34.2	21.8	0.0
	4-9회	(128)	55.5	35.9	41.4	32.8	15.6	0.8
	10회 이상	(37)	67.6	27.0	37.8	37.8	10.8	2.7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46)	62.6	37.8	38.6	32.9	13.0	0.4
	경험없음	(754)	52.1	40.5	32.2	32.9	21.5	0.1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43)	64.3	39.2	36.4	32.9	18.9	0.0
	경험없음	(857)	53.1	39.9	33.4	32.9	19.5	0.2

8. 대외원조 관련 교육 경험

- 국제개발협력 또는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같은 대외원조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9%로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남

<그림 V-8> 대외원조 관련 교육 경험

(n=1,000, 단위: %)



■ 특성별 분석

- 대외원조 관련 교육 경험은 소득별로 700만원 이상(5.1%), 외국 방문경험이 많을수록(10회 이상 8.1%), 비금전적 기부경험 있음(5.6%)에서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V-8> 대외원조 관련 교육 경험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1,000)	1.9	98.1
성별	남성	(496)	1.2	98.8
	여성	(504)	2.6	97.4
연령별	19-29세	(179)	3.4	96.6
	30대	(183)	3.3	96.7
	40대	(208)	1.0	99.0
	50대	(198)	1.5	98.5
	60대 이상	(232)	0.9	99.1
지역별	서울	(199)	3.0	97.0
	인천/경기	(296)	1.0	99.0
	부산/울산/경남	(156)	2.6	97.4
	대구/경북/강원	(131)	0.0	100.0
	대전/세종/충청	(103)	1.9	98.1
	광주/전라/제주	(115)	3.5	96.5
지역 규모별	광역시	(453)	2.2	97.8
	중소도시	(466)	1.7	98.3
	군지역	(81)	1.2	98.8
직업별	화이트칼라	(236)	4.2	95.8
	블루칼라	(216)	1.9	98.1
	자영업	(197)	1.0	99.0
	전업주부	(200)	0.5	99.5
	학생	(89)	2.2	97.8
	농림어업	(9)	0.0	100.0
	무직/기타	(53)	0.0	100.0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	0.0	100.0
	중학교 졸업	(78)	0.0	100.0
	고등학교 졸업	(399)	1.0	99.0
	대학 재학/졸업	(460)	2.6	97.4
	대학원 재학 이상	(25)	12.0	88.0
	모름/무응답	(3)	0.0	100.0
소득별	200만원 미만	(86)	2.3	97.7
	200-300만원 미만	(188)	2.1	97.9
	300-400만원 미만	(273)	2.2	97.8
	400-500만원 미만	(221)	1.4	98.6
	500-600만원 미만	(147)	1.4	98.6
	600-700만원 미만	(44)	0.0	100.0
	700만원 이상	(39)	5.1	94.9
	모름/무응답	(2)	0.0	100.0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1,000)	1.9	98.1
대외원조 찬반	찬성	(800)	1.9	98.1
	반대	(200)	2.0	98.0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524)	2.1	97.9
	선진국 아님	(476)	1.7	98.3
원조인지	인지	(472)	2.5	97.5
	비인지	(528)	1.3	98.7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253)	4.0	96.0
	경험없음	(362)	1.4	98.6
원조참여 의사	있음	(483)	3.3	96.7
	없음	(517)	0.6	99.4
외국방문 경험	없음	(385)	1.0	99.0
	1-3회	(450)	2.0	98.0
	4-9회	(128)	2.3	97.7
	10회 이상	(37)	8.1	91.9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46)	4.5	95.5
	경험없음	(754)	1.1	98.9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43)	5.6	94.4
	경험없음	(857)	1.3	98.7

8-1. 대외원조 관련 교육 경로

- 국제개발협력 또는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같은 대외원조 관련 교육은 '교육기관의 수업 및 강좌·활동'(47.4%)을 통해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미디어'(31.6%), '종교단체'(26.3%), '관련 분야 서적 및 홍보/안내 책자'(2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V-8-1> 대외원조 관련 교육 경로 (복수응답)

(Base : 대외원조 관련 교육 경험층, n=19, 단위: %)



■ 특성별 분석

- 응답 사례수가 적어, 특성별 분석은 생략함

<표 V-8-1> 대외원조 관련 교육 경로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교육기관의 수업 및 강좌, 활동	미디어	종교단체	관련 분야 서적 및 홍보·안내 책자	지역사회· 공공기관의 강좌 및 활동	NGO 또는 시민사회 단체
전체		(19)	47.4	31.6	26.3	21.1	15.8	5.3
성별	남성	(6)	50.0	33.3	50.0	50.0	16.7	0.0
	여성	(13)	46.2	30.8	15.4	7.7	15.4	7.7
연령별	19-29세	(6)	66.7	16.7	0.0	0.0	0.0	16.7
	30대	(6)	66.7	50.0	33.3	16.7	0.0	0.0
	40대	(2)	0.0	0.0	0.0	0.0	100.0	0.0
	50대	(3)	33.3	33.3	66.7	100.0	0.0	0.0
	60대 이상	(2)	0.0	50.0	50.0	0.0	50.0	0.0
지역별	서울	(6)	33.3	16.7	33.3	16.7	16.7	0.0
	인천/경기	(3)	33.3	66.7	33.3	33.3	33.3	0.0
	부산/울산/경남	(4)	100.0	0.0	0.0	0.0	0.0	0.0
	대전/세종/충청	(2)	50.0	50.0	0.0	0.0	0.0	0.0
	광주/전라/제주	(4)	25.0	50.0	50.0	50.0	25.0	25.0
지역 규모별	광역시	(10)	50.0	20.0	20.0	10.0	10.0	0.0
	중소도시	(8)	37.5	50.0	37.5	37.5	25.0	12.5
	군지역	(1)	100.0	0.0	0.0	0.0	0.0	0.0
직업별	화이트칼라	(10)	40.0	40.0	30.0	30.0	10.0	10.0
	블루칼라	(4)	50.0	25.0	50.0	25.0	25.0	0.0
	자영업	(2)	50.0	0.0	0.0	0.0	50.0	0.0
	전업주부	(1)	0.0	100.0	0.0	0.0	0.0	0.0
	학생	(2)	100.0	0.0	0.0	0.0	0.0	0.0
학력별	고등학교 졸업	(4)	25.0	50.0	25.0	25.0	50.0	25.0
	대학 재학/졸업	(12)	50.0	25.0	25.0	8.3	8.3	0.0
	대학원 재학 이상	(3)	66.7	33.3	33.3	66.7	0.0	0.0
소득별	200만원 미만	(2)	50.0	0.0	0.0	0.0	0.0	50.0
	200-300만원 미만	(4)	25.0	25.0	25.0	0.0	25.0	0.0
	300-400만원 미만	(6)	50.0	50.0	50.0	33.3	33.3	0.0
	400-500만원 미만	(3)	33.3	33.3	33.3	33.3	0.0	0.0
	500-600만원 미만	(2)	100.0	50.0	0.0	0.0	0.0	0.0
	700만원 이상	(2)	50.0	0.0	0.0	50.0	0.0	0.0

구분		사례수	교육기관의 수업 및 강좌, 활동	미디어	종교단체	관련 분야 서적 및 홍보·안내 책자	지역사회· 공공기관의 강좌 및 활동	NGO 또는 시민사회 단체
전체		(19)	47.4	31.6	26.3	21.1	15.8	5.3
대외원조 찬반	찬성	(15)	46.7	33.3	33.3	26.7	13.3	0.0
	반대	(4)	50.0	25.0	0.0	0.0	25.0	25.0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11)	27.3	36.4	27.3	27.3	27.3	0.0
	선진국 아님	(8)	75.0	25.0	25.0	12.5	0.0	12.5
원조인지	인지	(12)	41.7	33.3	25.0	25.0	16.7	0.0
	비인지	(7)	57.1	28.6	28.6	14.3	14.3	14.3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10)	30.0	50.0	50.0	40.0	20.0	0.0
	경험없음	(5)	80.0	0.0	0.0	0.0	0.0	20.0
원조참여 의사	있음	(16)	43.8	37.5	31.3	25.0	18.8	0.0
	없음	(3)	66.7	0.0	0.0	0.0	0.0	33.3
외국방문 경험	없음	(4)	50.0	25.0	0.0	0.0	25.0	0.0
	1-3회	(9)	44.4	33.3	33.3	22.2	22.2	11.1
	4-9회	(3)	66.7	66.7	33.3	33.3	0.0	0.0
	10회 이상	(3)	33.3	0.0	33.3	33.3	0.0	0.0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1)	45.5	36.4	36.4	27.3	18.2	0.0
	경험없음	(8)	50.0	25.0	12.5	12.5	12.5	12.5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8)	50.0	25.0	25.0	12.5	25.0	0.0
	경험없음	(11)	45.5	36.4	27.3	27.3	9.1	9.1

9. 초·중·고생 대상 대외원조 교육의 충분성

-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세계 시민의식 함양과 같은 대외원조 관련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3.1%(‘매우 그렇다’ 1.3%, ‘그렇다’ 21.8%)로 다소 낮아, 대부분의 응답자는 초·중·고생 대상의 대외원조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성별 분석

-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대외원조 교육이 ‘충분하다’는 의견은 지역규모별로 군지역(44.4%), 학력별로 중학교 졸업(39.7%)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임
- ‘충분하지 않다’는 소득이 높을수록(700만원 이상 89.7%), 외국 방문경험이 많을수록(91.9%) 응답률이 비교적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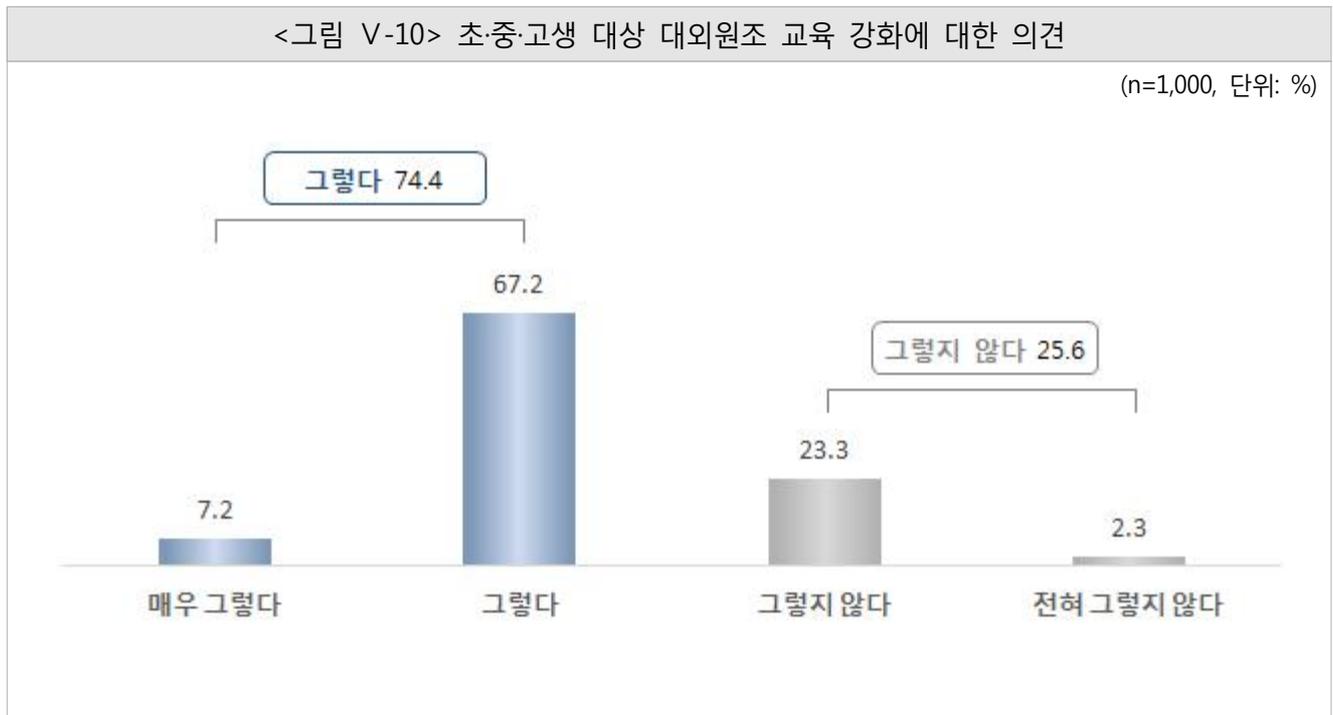
<표 V-9> 초·중·고생 대상 대외원조 교육의 충분성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1,000)	1.3	21.8	60.8	16.1	23.1	76.9
성별	남성	(496)	1.2	20.2	61.1	17.5	21.4	78.6
	여성	(504)	1.4	23.4	60.5	14.7	24.8	75.2
연령별	19-29세	(179)	1.1	18.4	57.0	23.5	19.6	80.4
	30대	(183)	0.5	19.7	61.2	18.6	20.2	79.8
	40대	(208)	1.9	23.6	58.7	15.9	25.5	74.5
	50대	(198)	1.0	17.7	71.2	10.1	18.7	81.3
	60대 이상	(232)	1.7	28.0	56.5	13.8	29.7	70.3
지역별	서울	(199)	0.5	22.6	61.3	15.6	23.1	76.9
	인천/경기	(296)	1.7	15.9	61.5	20.9	17.6	82.4
	부산/울산/경남	(156)	0.0	17.9	64.1	17.9	17.9	82.1
	대구/경북/강원	(131)	0.8	29.8	61.8	7.6	30.5	69.5
	대전/세종/충청	(103)	1.9	25.2	65.0	7.8	27.2	72.8
	광주/전라/제주	(115)	3.5	28.7	48.7	19.1	32.2	67.8
지역 규모별	광역시	(453)	0.4	23.0	62.5	14.1	23.4	76.6
	중소도시	(466)	1.9	17.2	61.8	19.1	19.1	80.9
	군지역	(81)	2.5	42.0	45.7	9.9	44.4	55.6
직업별	화이트칼라	(236)	0.8	22.5	61.0	15.7	23.3	76.7
	블루칼라	(216)	0.5	18.1	62.0	19.4	18.5	81.5
	자영업	(197)	2.0	20.3	66.5	11.2	22.3	77.7
	전업주부	(200)	2.0	27.5	57.0	13.5	29.5	70.5
	학생	(89)	1.1	18.0	56.2	24.7	19.1	80.9
	농림어업	(9)	0.0	66.7	33.3	0.0	66.7	33.3
	무직/기타	(53)	1.9	17.0	60.4	20.8	18.9	81.1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	0.0	20.0	54.3	25.7	20.0	80.0
	중학교 졸업	(78)	2.6	37.2	50.0	10.3	39.7	60.3
	고등학교 졸업	(399)	1.5	22.1	61.7	14.8	23.6	76.4
	대학 재학/졸업	(460)	0.9	20.4	62.0	16.7	21.3	78.7
	대학원 재학 이상	(25)	4.0	0.0	68.0	28.0	4.0	96.0
	모름/무응답	(3)	0.0	0.0	66.7	33.3	0.0	100.0
소득별	200만원 미만	(86)	2.3	25.6	59.3	12.8	27.9	72.1
	200-300만원 미만	(188)	0.0	25.5	60.1	14.4	25.5	74.5
	300-400만원 미만	(273)	0.7	24.5	57.5	17.2	25.3	74.7
	400-500만원 미만	(221)	2.3	19.9	59.7	18.1	22.2	77.8
	500-600만원 미만	(147)	2.0	18.4	61.9	17.7	20.4	79.6
	600-700만원 미만	(44)	2.3	13.6	75.0	9.1	15.9	84.1
	700만원 이상	(39)	0.0	10.3	76.9	12.8	10.3	89.7
	모름/무응답	(2)	0.0	0.0	50.0	50.0	0.0	100.0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1,000)	1.3	21.8	60.8	16.1	23.1	76.9
대외원조 찬반	찬성	(800)	1.3	23.1	60.6	15.0	24.4	75.6
	반대	(200)	1.5	16.5	61.5	20.5	18.0	82.0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524)	1.3	25.0	61.3	12.4	26.3	73.7
	선진국 아님	(476)	1.3	18.3	60.3	20.2	19.5	80.5
원조인지	인지	(472)	1.5	23.3	60.4	14.8	24.8	75.2
	비인지	(528)	1.1	20.5	61.2	17.2	21.6	78.4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253)	2.0	22.5	60.1	15.4	24.5	75.5
	경험없음	(362)	1.7	18.5	60.5	19.3	20.2	79.8
원조참여 의사	있음	(483)	1.4	19.5	62.3	16.8	20.9	79.1
	없음	(517)	1.2	24.0	59.4	15.5	25.1	74.9
외국방문 경험	없음	(385)	0.5	24.4	61.6	13.5	24.9	75.1
	1-3회	(450)	2.2	21.6	59.3	16.9	23.8	76.2
	4-9회	(128)	0.8	18.8	63.3	17.2	19.5	80.5
	10회 이상	(37)	0.0	8.1	62.2	29.7	8.1	91.9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46)	1.6	21.1	65.0	12.2	22.8	77.2
	경험없음	(754)	1.2	22.0	59.4	17.4	23.2	76.8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43)	2.1	17.5	65.7	14.7	19.6	80.4
	경험없음	(857)	1.2	22.5	60.0	16.3	23.7	76.3

10. 초·중·고생 대상 대외원조 교육 강화에 대한 의견

-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대외원조 관련 교육 강화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74.4% : '매우 그렇다' 7.2%, '그렇다' 67.2%)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특성별 분석

-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대외원조 관련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지역별로 서울(82.4%), 원조참여 의사 있음(83.2%), 외국 방문경험 4-9회(85.2%)에서 비교적 많았음
-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응답자 비율은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53.0%), 대외원조 반대(53.5%)에서 다소 높았음

<표 V-10> 초·중·고생 대상 대외원조 교육 강화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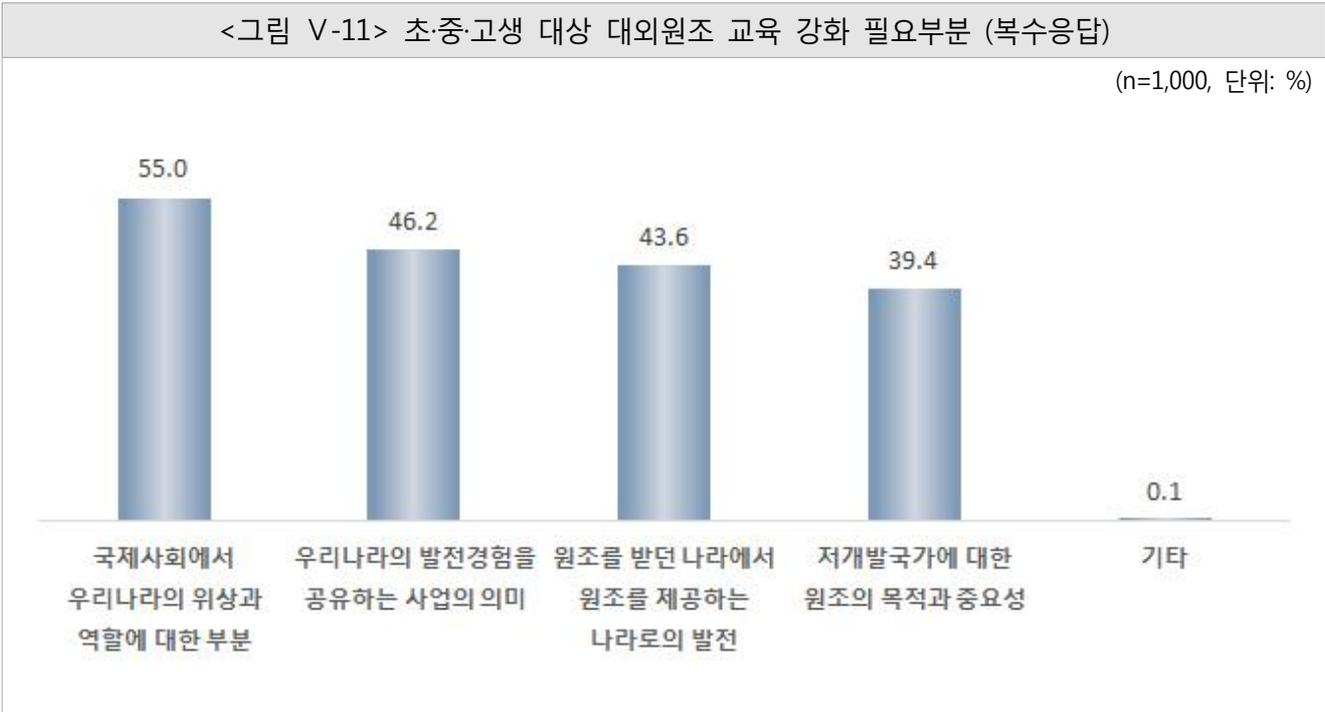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1,000)	7.2	67.2	23.3	2.3	74.4	25.6
성별	남성	(496)	8.9	66.3	23.0	1.8	75.2	24.8
	여성	(504)	5.6	68.1	23.6	2.8	73.6	26.4
연령별	19-29세	(179)	5.6	65.4	27.9	1.1	70.9	29.1
	30대	(183)	5.5	72.7	19.7	2.2	78.1	21.9
	40대	(208)	8.7	66.8	22.1	2.4	75.5	24.5
	50대	(198)	5.1	72.2	20.2	2.5	77.3	22.7
	60대 이상	(232)	10.3	60.3	26.3	3.0	70.7	29.3
지역별	서울	(199)	11.6	70.9	17.1	0.5	82.4	17.6
	인천/경기	(296)	9.8	68.9	20.6	0.7	78.7	21.3
	부산/울산/경남	(156)	0.6	67.9	28.2	3.2	68.6	31.4
	대구/경북/강원	(131)	3.1	78.6	17.6	0.8	81.7	18.3
	대전/세종/충청	(103)	7.8	68.9	23.3	0.0	76.7	23.3
	광주/전라/제주	(115)	6.1	40.9	40.9	12.2	47.0	53.0
지역 규모별	광역시	(453)	6.6	69.8	21.4	2.2	76.4	23.6
	중소도시	(466)	7.7	67.2	23.2	1.9	74.9	25.1
	군지역	(81)	7.4	53.1	34.6	4.9	60.5	39.5
직업별	화이트칼라	(236)	6.8	72.5	18.2	2.5	79.2	20.8
	블루칼라	(216)	6.0	65.3	26.9	1.9	71.3	28.7
	자영업	(197)	6.6	67.5	23.9	2.0	74.1	25.9
	전업주부	(200)	7.0	66.0	23.0	4.0	73.0	27.0
	학생	(89)	9.0	65.2	25.8	0.0	74.2	25.8
	농림어업	(9)	0.0	66.7	33.3	0.0	66.7	33.3
	무직/기타	(53)	15.1	58.5	24.5	1.9	73.6	26.4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	5.7	65.7	22.9	5.7	71.4	28.6
	중학교 졸업	(78)	7.7	59.0	29.5	3.8	66.7	33.3
	고등학교 졸업	(399)	6.8	66.4	25.3	1.5	73.2	26.8
	대학 재학/졸업	(460)	7.6	68.9	21.1	2.4	76.5	23.5
	대학원 재학 이상	(25)	8.0	76.0	16.0	0.0	84.0	16.0
	모름/무응답	(3)	0.0	66.7	0.0	33.3	66.7	33.3
소득별	200만원 미만	(86)	7.0	60.5	30.2	2.3	67.4	32.6
	200-300만원 미만	(188)	4.3	64.9	27.1	3.7	69.1	30.9
	300-400만원 미만	(273)	7.0	64.1	26.0	2.9	71.1	28.9
	400-500만원 미만	(221)	9.0	72.9	15.8	2.3	81.9	18.1
	500-600만원 미만	(147)	6.8	74.1	18.4	0.7	81.0	19.0
	600-700만원 미만	(44)	6.8	59.1	34.1	0.0	65.9	34.1
	700만원 이상	(39)	12.8	66.7	20.5	0.0	79.5	20.5
	모름/무응답	(2)	50.0	50.0	0.0	0.0	100.0	0.0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1,000)	7.2	67.2	23.3	2.3	74.4	25.6
대외원조 찬반	찬성	(800)	8.9	72.5	17.5	1.1	81.4	18.6
	반대	(200)	0.5	46.0	46.5	7.0	46.5	53.5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524)	7.1	68.5	22.3	2.1	75.6	24.4
	선진국 아님	(476)	7.4	65.8	24.4	2.5	73.1	26.9
원조인지	인지	(472)	8.7	71.8	17.8	1.7	80.5	19.5
	비인지	(528)	5.9	63.1	28.2	2.8	68.9	31.1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253)	15.0	66.4	17.8	0.8	81.4	18.6
	경험없음	(362)	5.5	68.8	22.4	3.3	74.3	25.7
원조참여 의사	있음	(483)	10.1	73.1	15.1	1.7	83.2	16.8
	없음	(517)	4.4	61.7	30.9	2.9	66.2	33.8
외국방문 경험	없음	(385)	3.6	66.2	27.8	2.3	69.9	30.1
	1-3회	(450)	7.6	68.0	21.8	2.7	75.6	24.4
	4-9회	(128)	11.7	73.4	14.1	0.8	85.2	14.8
	10회 이상	(37)	24.3	45.9	27.0	2.7	70.3	29.7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46)	12.2	68.3	18.3	1.2	80.5	19.5
	경험없음	(754)	5.6	66.8	24.9	2.7	72.4	27.6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43)	11.9	67.8	18.2	2.1	79.7	20.3
	경험없음	(857)	6.4	67.1	24.2	2.3	73.5	26.5

11. 초·중·고생 대상 대외원조 교육 강화 필요부분

-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대외원조 관련 교육에서 강화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부분'(55.0%) 응답이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의 의미'(46.2%),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의 발전'(43.6%), '저개발국가에 대한 원조의 목적과 중요성'(39.4%) 등의 순이었음

<그림 V-11> 초·중·고생 대상 대외원조 교육 강화 필요부분 (복수응답)



■ 특성별 분석

-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대외원조 관련 교육에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의 의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60.2%)과 광주/전라/제주(62.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발전'은 학력별로 중학교 졸업(59.0%), 소득별로 200만원 미만(58.1%)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로 응답함

<표 V-11> 초·중·고생 대상 대외원조 교육 강화 필요부분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의 의미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발전	저개발국가에 대한 원조의 목적과 중요성	기타
전체		(1,000)	55.0	46.2	43.6	39.4	0.1
성별	남성	(496)	56.0	49.6	43.3	35.9	0.0
	여성	(504)	54.0	42.9	43.8	42.9	0.2
연령별	19-29세	(179)	53.1	44.1	44.1	45.3	0.0
	30대	(183)	51.4	45.4	42.6	46.4	0.5
	40대	(208)	56.3	51.9	37.5	40.4	0.0
	50대	(198)	54.0	49.0	39.4	36.4	0.0
	60대 이상	(232)	59.1	40.9	53.0	31.0	0.0
지역별	서울	(199)	60.8	34.7	43.2	49.7	0.0
	인천/경기	(296)	59.1	40.9	47.3	36.8	0.3
	부산/울산/경남	(156)	55.8	46.2	39.1	50.0	0.0
	대구/경북/강원	(131)	55.0	50.4	41.2	34.4	0.0
	대전/세종/충청	(103)	29.1	60.2	43.7	35.0	0.0
	광주/전라/제주	(115)	56.5	62.6	43.5	23.5	0.0
지역 규모별	광역시	(453)	59.4	41.7	39.7	44.4	0.0
	중소도시	(466)	49.6	51.1	45.3	36.7	0.2
	군지역	(81)	61.7	43.2	55.6	27.2	0.0
직업별	화이트칼라	(236)	59.3	44.5	39.4	42.4	0.4
	블루칼라	(216)	54.2	46.8	41.2	38.0	0.0
	자영업	(197)	51.3	52.8	42.1	37.6	0.0
	전업주부	(200)	57.5	47.5	43.5	39.0	0.0
	학생	(89)	50.6	40.4	46.1	46.1	0.0
	농림어업	(9)	55.6	22.2	66.7	44.4	0.0
	무직/기타	(53)	50.9	35.8	69.8	28.3	0.0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	57.1	37.1	57.1	42.9	0.0
	중학교 졸업	(78)	55.1	42.3	59.0	23.1	0.0
	고등학교 졸업	(399)	54.4	49.1	42.9	37.3	0.0
	대학 재학/졸업	(460)	56.3	45.0	40.9	43.3	0.0
	대학원 재학 이상	(25)	40.0	40.0	40.0	52.0	4.0
	모름/무응답	(3)	33.3	100.0	33.3	0.0	0.0
소득별	200만원 미만	(86)	58.1	39.5	58.1	29.1	0.0
	200-300만원 미만	(188)	53.2	43.1	48.9	37.8	0.0
	300-400만원 미만	(273)	55.3	53.8	39.6	36.3	0.0
	400-500만원 미만	(221)	57.9	43.9	38.9	45.2	0.0
	500-600만원 미만	(147)	54.4	44.2	43.5	42.2	0.0
	600-700만원 미만	(44)	52.3	40.9	45.5	38.6	2.3
	700만원 이상	(39)	43.6	51.3	38.5	48.7	0.0
	모름/무응답	(2)	50.0	0.0	50.0	50.0	0.0

구분		사례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의 의미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발전	저개발국가에 대한 원조의 목적과 중요성	기타
전체		(1,000)	55.0	46.2	43.6	39.4	0.1
대외원조 찬반	찬성	(800)	56.4	43.5	43.3	40.4	0.0
	반대	(200)	49.5	57.0	45.0	35.5	0.5
선진국 인식	선진국임	(524)	53.8	47.9	46.2	34.4	0.0
	선진국 아님	(476)	56.3	44.3	40.8	45.0	0.2
원조인지	인지	(472)	56.8	42.8	45.6	43.9	0.0
	비인지	(528)	53.4	49.2	41.9	35.4	0.2
저개발국 방문	경험있음	(253)	55.3	41.1	49.8	38.7	0.0
	경험없음	(362)	53.0	46.1	42.5	43.1	0.3
원조참여 의사	있음	(483)	56.7	41.4	42.9	43.3	0.0
	없음	(517)	53.4	50.7	44.3	35.8	0.2
외국방문 경험	없음	(385)	56.6	49.6	40.5	36.4	0.0
	1-3회	(450)	53.6	45.3	46.0	40.0	0.0
	4-9회	(128)	53.1	42.2	44.5	45.3	0.0
	10회 이상	(37)	62.2	35.1	43.2	43.2	2.7
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246)	58.9	41.1	41.9	43.5	0.0
	경험없음	(754)	53.7	47.9	44.2	38.1	0.1
비금전적 기부	경험있음	(143)	55.9	44.1	45.5	42.0	0.0
	경험없음	(857)	54.8	46.6	43.3	39.0	0.1

제4장 | 정책 홍보 사례

I. 보건복지부

◆ 핑거밴드 캠페인

- ▶ 국민 금연 홍보 정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진행한 금연 캠페인
- ▶ 2015년 시행 후 5개월만에 누적인원 약 28만명 참여

구분	내용
정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금연 홍보 정책 중 하나로, 담배를 잡는 두 손가락 검지와 중지를 묶는 '핑거밴드' 심볼을 사용하여, 흡연자는 흡연을 억제하고 비흡연자는 흡연자의 금연을 함께 응원하는 의미의 금연 캠페인 ◆ 금연에는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함께 아우르는 의미를 담은 금연 운동
홍보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 브랜드 웹툰 및 바이럴 영상 게재 ◆ 이벤트 : SNS 및 캠페인 사이트 통한 참여자 기념품 증정 참여자 대상 공연 및 행사 ◆ 기타 대상 별 프로모션
홍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이버 웹툰 인기작가의 브랜드 웹툰 '본격 금연권장 만화' 연재 ◆ 페이스북 및 핑거밴드 사이트에 개그콘서트 니글니글 팀 바이럴 영상 게재 ◆ 캠페인 사이트에 금연 응원 메시지 참여자에게 금연 응원팔찌 증정 ◆ 핑거밴드 인증 사진 참여자에게 추첨 선물 증정 ◆ 인기 아이돌 금연송 제작과 금연 랩 오디션 및 공연 개최
성과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핑거밴드 캠페인은 웹툰 '본격 금연권장 만화'가 브랜드 웹툰 최고 조회수를 기록하고, 웹툰에 등장한 금연 응원팔찌가 큰 인기를 얻으며 호응을 얻음. 정책 홍보의 주 대상을 청소년과 저연령층으로 삼아 브랜드 웹툰, 밴드 팔찌 및 랩 오디션과 같은 젊은 층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방안을 이용했으며, 단순히 관련 정보만을 전달하는 대신, 주 대상층이 원하고 관심을 가지는 요소들을 정책 홍보와 접목시켜 좋은 평가를 받았음



[핑거밴드 심볼·금연응원팔찌]



[브랜드 웹툰 '본격 금연권장 만화']



[핑거밴드 인증사진]

Ⅲ. 교육부

◆ 자유학기제

- ▶ 중학교 6개 학기 중 1학기 동안 시험 대신 토론·실습 및 체험활동과 같은 진로 교육을 받는 제도로, 학생들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마련됨
- ▶ SNS 활용 온라인 홍보로 2015년 부처별 페이스북 3위 기록(기존 10위)

구분	내용
정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중학교 한 학기 동안만이라도 시험 부담 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 진로탐색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으로 2016년부터 도입 ◆ 오전에는 교과수업, 오후에는 진로탐색 및 동아리 활동 등으로 자유학기 활동 시행
홍보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책자 : 리플렛 제작 ◆ TV : 드라마 제작 지원 및 방영 시 간접광고 ◆ 이벤트 : 토크콘서트 개최 SNS 통한 참여자 선물 증정
홍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학기제 리플렛 학교 배포 ◆ KBS 드라마 '후아유-학교 2015' 제작 지원 및 방영 시 자유학기제 정보 간접홍보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사연 공모를 통한 드라마 반영을 통한 관심 제고 ◆ 자유학기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학부모 대상 토크콘서트 '맘에 쏙' 개최 ◆ 페이스북 등 SNS 통한 자유학기제 사진 캡처 참여자에게 추첨 선물 증정
성과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학기제 시행에 앞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방송과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의 정책 홍보를 실시함. 드라마 '후아유 - 학교 2015' 제작 지원으로 자유학기제 관련 내용을 드라마에 반영하여 주 시청층인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학부모 대상의 전국적 토크콘서트를 실시하여 자유학기제 정보 제공 및 첫 시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홍보를 전개함. 또한 동영상 캡처 이벤트 등 SNS 홍보를 통한 관심과 인지도 제고로 온라인 소통을 보다 활성화하였음



[자유학기제 리플렛]



[드라마 '학교2015' 장면]



[‘맘에쏙’ 토크콘서트]

IV.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가 있는 날

- ▶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시설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관 할인, 주요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고궁 무료 관람 등 각종 문화행사를 시행함
- ▶ 2016년 상반기 정책 인지도 57.6%로 2015년 하반기 대비 12.4%p 증가

구분	내용
정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영화관, 스포츠시설,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문화재, 도서관에서4 할인 또는 무료 입장 및 야간개방 혜택을 제공 ◆ 문화시설 할인 혜택 외에도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최 및 이벤트 등 진행
홍보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 공익광고영상 제작 인터넷 프로그램으로 콘서트 방영 ◆ 이벤트 : SNS 통한 참여자 추천 이벤트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홍보 서포터즈 운영
홍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가 있는 날 홍보 및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인기 웹툰 '미생'을 이용한 '함께하는 문화 편' 공익광고영상 제작 ◆ 인터넷 콘서트 '문화가 있는 날, 집콘'을 매달 문화가 있는 날에 방송 ◆ 페이스북을 통한 해당 문화기관 관련 기사 감상평 참여자에게 추천 선물 증정 ◆ 온라인 서포터즈 기자단 '문화나르미'를 운영, 현장 모니터링 및 취재기사 작성
성과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문화가 있는 날'은 2년여간 다양한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 방안을 모색함. 직장인을 타겟으로 인기 웹툰 '미생'을 이용한 인터넷 광고, 온라인 기자단을 통한 홍보 영상 및 취재 기사 작성, 인터넷 콘서트를 통한 예술인·유명인사의 공연과 강의 방송 등 주로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적합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정책 인지도 제고에 집중함. 이를 통해 2015년 8월 45.2%였던 정책 인지도가 2016년 상반기 57.6%로 조사되며, 12%p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미생: 함께하는 문화편' 광고]



[인터넷 콘서트 집콘, 공연 사진]



[온라인 기자단 모집광고]

V. 관세청

◆ 수입가격 공개 제도

- ▶ 수입 소비재의 수입원가와 국내 판매 가격을 비교·공개하는 제도
- ▶ 2014년 정책홍보 최우수기관 선정

구분	내용
정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상품의 원가와 국내 판매 가격을 비교·공개하여 수입물품 가격거품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 화장품, 전자제품 등 공산품 및 가공품 등에 대한 가격 비교 및 공개
홍보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 인포그래픽 제작 SNS 홍보
홍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가격 공개 제도' 정보 제공 인포그래픽 제작 ◆ SNS(페이스북) 통한 관련 정보 홍보
성과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청의 '수입가격 공개 제도' 홍보는 인포그래픽을 통해 정책을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 소개 및 내용 전달에 충실한 사례임. 제도 도입의 목적과 현재 수입품의 원가, 판매가격 현황 및 시행 계획을 주요 물품별로 제시하며 한눈에 보기 쉽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을 효과적으로 활용함. 또한 홍보 자료 제작에 내부 인력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모바일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인포그래픽 홍보와 SNS 홍보 등 정책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2014년 정책홍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음



[수입가격 공개 제도 인포그래픽]

VI. 금융위원회

◆ 금융개혁

- ▶ 기업과 가계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권의 자율성 및 창의성을 제고하고자 금융개혁을 추진
- ▶ 홍보 목적 웹드라마 조회수 2개월 만에 900만 건 기록

구분	내용
정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분야에서의 각종 개혁을 통해 실물경제에 보다 도움을 주는 금융개혁을 실천하고자 기업과 가계에 자금 공급 원활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금융 관련 과제들을 중점 추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클라우드펀드, 계좌이동 서비스 등 국민중심 정책 도입
홍보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 공익광고 제작 ◆ 인터넷 : 홍보영상 제작 웹드라마 제작 ◆ 대중교통 및 옥외간판 : 지하철 역 내 광고 ◆ 이벤트 : 창업·일자리 박람회
홍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핀테크 홍보대사로 배우 임시완 선정하여 공익광고 제작, 방송 및 지하철 광고 ◆ 홍보영상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게재 ◆ 금융개혁 홍보 목적 웹드라마 '초코뱅크'를 제작,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으로 공개 ◆ 금융개혁 창업·일자리 박람회를 개최, 금융관련 구직자 대상 정보 안내 및 일자리 홍보
성과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개혁은 2015년부터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나, 국민의 반 이상은 여전히 금융 개혁에 대해 모르고 있어(2016년 상반기 인지도 약 42%), 정책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이 어려워하기 쉬운 금융 개혁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공익광고, 홍보 영상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가운데, 주요 수단으로 웹드라마 '초코뱅크'를 제작함.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를 금융권 취업준비생 캐릭터로 등장시켜 드라마 내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클라우드펀딩, 핀테크 등 새로운 정책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스토리텔링 방식의 홍보로, 2개월 만에 조회수 900만 건을 기록하며, 재미도 있지만 어려운 금융 정책을 쉽게 풀어주었다는 호평을 받았음



[금융개혁 공익광고 장면]



[웹드라마 '초코뱅크' 장면]



[창업·일자리 박람회 포스터]

Ⅶ. 고용노동부

◆ 청년정책

- ▶ 청년들의 일자리·주거·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 ▶ 2015년 정부업무평가 정책홍보 우수 기관

구분	내용
정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정책, 주거지원, 학자금 지원의 정책 분야로 구성된 청년들의 일자리와 생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청년지원 정책 ◆ 주요 정책으로 청년내일찾기패키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등 시행
홍보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 인포그래픽 및 카드뉴스 웹드라마 방영 SNS 홍보 ◆ 이벤트 : 기관장 참여 토크콘서트 SNS 통한 참여자 추첨 이벤트
홍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주요 정책별 카드 뉴스 및 인포그래픽 제작 ◆ 청년정책 홍보 목적 웹드라마 '나는 취준생이다'를 제작, TV캐스트 방영 ◆ 이기권 장관 강연 및 청년 취업 토크콘서트 개최 ◆ '청년 워크넷' 앱 다운로드 참여자에게 커피 증정 이벤트
성과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정책 인지도는 2015년 말 기준 약 36%의 낮은 수준으로, 고용노동부는 청년정책 인지도 향상을 위해 모바일 및 뉴미디어를 주로 이용하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SNS 이벤트 등을 이용한 홍보를 수행하였음. 웹드라마 '나는 취준생이다'를 통한 스토리텔링 방식의 정책 홍보로 청년들의 공감과 관심을 끌어내는 동시에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토크콘서트 '청년, 장관에게 길을 묻다'에 참여해 청년들의 참여를 제고하고 언론 노출을 확대하여 2015년 정부업무평가 정책홍보 우수 기관에 포함되었음



취업 성공이란 요즘 세상에선 정말 힘든 이야기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카드뉴스]



[웹드라마 '나는 취준생이다']



[기관장 참여 토크콘서트]

부록 1 | 조사 설문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②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③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ID

--	--	--	--

2016년도 ODA(대외원조)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과 월드리서치에서는 국민 여러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원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의 인지도 및 원조 규모와 기여도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을 만들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주관 : 국무조정실

조사기관 : 월드리서치

응답자 정보	성 명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연 령	만 _____세 (만 19세 미만 면접 중단)		
	연령대	① 만19-29세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지 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도시규모	① 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군(읍·면)		
	가구주소	()시/도 ()구/시/군 ()동/읍/면		
	연락처	- -	집계구 코드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면접 정보	조사일자	2016년 월 일		
	조사원 성명		조사원 번호	

면접원이 본 설문 시작 전 응답자에게 읽어 주십시오.

※ **대외원조** : 대외원조(ODA)란 우리나라 정부가 저개발국의 발전을 위하여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저개발국** : 본 설문에서 '저개발국'이란 일반적으로 선진국에 대비되는 국가들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낮은 소득수준, 낮은 보건 및 교육 수준, 부족한 사회·경제 인프라 등의 특징을 보이는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I. 대외원조에 대한 기초 인식

문1. 귀하는 지금까지 외국에 방문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총 몇 회입니까?

- ① 없다 (☞ 문2.로 이동)
- ② 1~3회 (☞ 문1-1.로 이동)
- ③ 4~9회 (☞ 문1-1.로 이동)
- ④ 10회 이상 (☞ 문1-1.로 이동)

문1-1.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에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예: 베트남, 미얀마 등의 동남아시아 및 케냐, 이집트 등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
- ① 있다
 - ② 없다

문2. 현재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3. 현재 우리 정부가 저개발국에 대외원조(ODA)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③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 ④ 전혀 모른다

문4.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기업)이 저개발국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③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 ④ 전혀 모른다

문5.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개발국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자원봉사와 같은 직접적 참여 의사가 있다
- ② 기부 및 후원과 같은 간접적 참여 의사가 있다
- ③ 참여 의사가 없다

문6. 저개발국을 돕기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귀하의 평소 행동이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것을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 ① 저개발국 지원을 위한 자원 봉사와 같은 직접적 행동을 해본 적이 있다
- ② 저개발국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를 해본 적은 없으나, 관련 단체에 기부나 후원과 같은 간접적 행동을 해본 적이 있다
- ③ 저개발국 지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을 해본 적은 없다
- ④ 저개발국 지원과 관련하여 전혀 관심이 없다
- ⑤ 기타('지원에 반대한다' 등) (기입: _____)

II. 대외원조의 중요성 및 원조동기 인식

문7. 현재 저개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① 열악한 보건 및 의료 환경
- ② 열악한 교육환경
- ③ 에너지 부족
- ④ 식량부족
- ⑤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의 영향
- ⑥ 식수부족
- ⑦ 경제위기
- ⑧ 기타 (난민, 인권억압, 내전 등) 기타 (기입: _____)

문8. 국제사회가 저개발국의 빈곤층을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중요하다
- ② 중요한 편이다
- ③ 별로 중요하지 않다
- ④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문9.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저개발국에 다양한 원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이들 국가에 원조를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① 국제적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해
- ②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도의적 책임 때문에
- ③ 수출확대 등 자국의 이익을 위해
- ④ 저개발국의 민주화와 정치발전을 위해
- ⑤ 저개발국과의 외교관계 강화를 위해
- ⑥ 저개발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 ⑦ 저개발국의 지원 요청에 응하기 위해
- ⑧ 기타 (난민, 인권억압, 내전 등) (기입:)

문10. 귀하께서는 우리나라가 1950년대 이후 수십년간 국제사회로부터 대외원조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문10-1.로 이동)
-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문10-1.로 이동)
- ③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 문10-1.로 이동)
- ④ 전혀 모른다 (☞ 문11.로 이동)

문10-1. 과거에 국제사회의 원조가 우리나라경제·사회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크게 기여했다
- ② 어느 정도 기여했다
- ③ 별로 기여하지 않았다
- ④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문11. 우리 정부는 저개발국에 다양한 원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 나라에 원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① 저개발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 ② 저개발국의 지원 요청에 응하기 위해
- ③ 우리 상품의 수출촉진 등 우리 이익을 위해
- ④ 국제적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해
- 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도의적 책임 때문에
- ⑥ 저개발국의 민주화와 정치발전을 위해
- ⑦ 저개발국과의 외교관계 강화를 위해
- ⑧ 기타 (이민억제, 테러방지 등) (기입:)

문12. 원조정책 외에, 우리 정부의 정책 중 저개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상관없이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 ①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
- ② 이민정책
- ③ 무역정책 (관세·비관세 정책 등)
- ④ 투자 및 금융정책
- ⑤ 기술정책 (지적재산권 정책 등)
- ⑥ 기타 (기입:)

문13. 위 정책들이 대외원조 정책과는 달리 저개발국에 부정적인 영향(예: 이민이나 상품수입 규제)을 미친다면, 정부는 어떤 정책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외원조 정책을 다른 정책보다 우선하여 다른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 ② 대외원조 정책과 다른 정책의 정책목표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 ③ 정책 간 충돌이 있더라도 각 정책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 ④ 기타 (기입:)

Ⅲ. 대외원조의 정책 선호도 및 예산규모에 대한 인식

문14. 우리 정부가 저개발국에 대외원조를 제공하는데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 ① 적극 찬성한다 (☞ 문14-1.로 이동)
- ② 찬성하는 편이다 (☞ 문14-1.로 이동)
- ③ 반대하는 편이다 (☞ 문14-2.로 이동)
- ④ 적극 반대한다 (☞ 문14-2.로 이동)

문14-1. 대외원조 제공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과거에 우리나라도 외국의 원조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 ② 저개발국의 빈곤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 ③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 ④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나 외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 ⑤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 공존에 기여하기 때문에
- ⑥ 기타 (기입:)

문14-2. 대외원조 제공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원조가 저개발국의 빈곤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 ② 우리나라는 아직 원조를 제공할 만큼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 ③ 원조가 우리나라의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 ④ 국내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 ⑤ 기타 (기입:)

※ 면접원

우리나라는 2015년 대외원조로 약 2조 1천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지원금액 규모로는 14위 수준이며, 국민총소득 대비 원조 비중으로는 25위(0.14%)입니다. OECD 회원국 중 일부는 국제사회 권고 기준인 0.70%의 대외원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정부는 국민총소득 대비 원조 비중을 2020년까지 0.2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15.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절하다(현재 수준 유지) (☞ 문16.으로 이동)
- ② 적으므로 확대해야 한다 (☞ 문15-1.로 이동)
- ③ 많으므로 축소해야 한다 (☞ 문15-2.로 이동)

문15-1. 원조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우리 경제규모 대비 원조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 ②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강화해야하기 때문에
- ③ 저개발국과의 협력 확대가 우리 경제에 더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 ④ 저개발국 지원을 통해 국제적 이미지 및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 ⑤ 기타 (기입:)

문15-2. 원조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이미 원조규모가 크기 때문에
- ② 우리 경제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 ③ 국내 복지재정 확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 ④ 원조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 ⑤ 기타 (기입:)

IV. 정부의 대외원조 효과 및 정책 개선 과제

문16. 우리 정부가 저개발국에 제공하는 원조가 저개발국의 경제발전과 빈곤퇴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문17.로 이동)
- ② 그런 편이다 (☞ 문17.로 이동)
-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문16-1.로 이동)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문16-1.로 이동)

문16-1. 우리나라의 대외원조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저개발국의 관리능력이 부족해서
- ② 우리나라의 원조규모가 작아서
- ③ 우리나라 원조집행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 ④ 우리나라 원조집행기관들 사이의 협력이 부족해서
- ⑤ 저개발국의 현지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서
- ⑥ 원조집행의 투명성이 부족해서
- ⑦ 기타 (기입:)

문17. 대외원조 분야 중 우리나라가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 | |
|----------------------------|-----------------|
| ① 경제인프라(도로, 전력, 철도 등) | ② 보건의료 |
| ③ 인적자원개발(공무원 연수, 전문가 교육 등) | ④ 행정제도 구축 |
| ⑤ 농업개발 | ⑥ 교육 (정규교육과정 등) |
| ⑦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 ⑧ 정보통신 |
| ⑨ 민간부문 발전과 투자 촉진 | ⑩ 인권보호 |
| ⑪ 기타 (기입:) | |

문18. 저개발국 지원에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 중 저개발국 지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 | | |
|-------------|-----------------|
| ① 정부기관 | ② 민간단체(NGO) |
| ③ 민간기업 | ④ 대학, 병원 등 전문기관 |
| ⑤ 기타 (기입:) | |

문19. 우리 정부의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그 요인들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① 원조집행기관간 협력 및 소통부족
- ② 원조정책 집행에서의 투명성 부족
- ③ 원조 관련 전문가 부족
- ④ 민간기관의 참여 미흡
- ⑤ 원조관련 교육 및 홍보 부족
- ⑥ 원조정책의 일관성 부족 및 부처간 중복
- ⑦ 원조사업의 관리 소홀로 인한 예산 낭비
- ⑧ 기타 (기입:)

V. 대외원조에 관한 정보 접근성

문20. UN과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공동 번영을 위해 설정한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 ②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 ③ 전혀 들어본 적 없다

※ 면접원 : 반드시 문20 질문 후에 응답자가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잘 모르는 경우에만 설명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란, **2016년~2030년까지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전세계의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을 설정한 목표**입니다.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2011~2015)가 만료됨에 따라 수립된 국제사회의 후속 목표**입니다.

DQ5. 평소 다음과 같은 미디어 매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이용 빈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용 매체	이용 빈도						
	매일	1주일에 5~6일	1주일에 3~4일	1주일에 1~2일	한달에 1~3일	2~3달에 1~3일 이하	이용 안함
1) TV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기기 청취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신문(무가지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인터넷 (PC,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DQ6. 다음과 같은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주로 이용하시는 매체는 무엇입니까? 각 항목(관심사)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주요 관심사	이용 매체				
	TV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포함)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기기 청취 제외)	신문 (무가지 포함)	인터넷 (PC,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 포함)	기타
1) 뉴스/시사보도	①	②	③	④	⑤ (기입:)
2) 전문적인 지식	①	②	③	④	⑤ (기입:)
3) 오락/연예 정보	①	②	③	④	⑤ (기입:)
4) 생활 정보	①	②	③	④	⑤ (기입:)

DQ7. 다음 매체 중 귀하께서 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무엇입니까?

- ① TV(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포함)
- ② 라디오(인터넷, 스마트기기 청취 제외)
- ③ 신문(무가지 포함)
- ④ 인터넷(PC,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 포함)

부록 2 | 통계표

